

연구보고 2016-14

북한이탈주민 자녀양육지원시스템 구축

박원순 김동훈 김승진

머 리 말

북한이탈주민 3만명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북한이탈주민은 여전히 남한사회의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의 동포이며, 통일 의 마중물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세대라는 이름으로 포장되는 것과는 달리, 우리 사회의 이들에 대한 반응은 여전히 부정적인 면이 더 많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사회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있어 보이지 않는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과 함께 양육환경과 체제가 다른 데에서 기인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 스스로의 적응을 위해 돕는 것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이들이 자녀를 더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이들 북한이탈주민은 자녀의 양육에 있어 다른 남한 부모들과 달리 가족이나 친척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더욱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부모들이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녀양육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이들 부모들을 위한 신뢰로운 자녀양육 환경 조성하고, 이들 북한이탈주민과 자녀들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며, 개인지원 중심에서 가정지원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가 전환되어야 한다는 3가지 접근방식으로 북한이탈주민 부모들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제안이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 한부모 및 조손 가정, 다문화 가정 등 우리 사회가 더 많이 관심 갖고 지원해야하는 양육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 지원방안의 한 축을 이루어, 이 땅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출신과 배경에 관계없이 모두 평등하고 자유롭게 주어진 권리를 누리고 사는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 끝으로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므로,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오인되지 않기를 바란다.

2016년 11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우 남 희**

차 례

요약	1
I. 서론	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9
2. 연구내용	10
3. 용어의 정의	11
4. 연구방법	11
II. 북한이탈주민 관련 현황	18
1. 국내 북한이탈주민 기본 현황	18
2. 북한이탈주민 가정 현황	22
3. 북한이탈주민 자녀 관련 현황	25
4. 북한이탈주민 관련 법령 정착지원 제도	27
5. 선행연구 고찰	44
III. 북한이탈주민의 영유아자녀 일반 양육 실태	49
1. 양육 환경	49
2. 가정 내 자녀양육 실태	57
3. 기관 이용 실태	67
4. 기관 미이용 실태	71
IV. 북한이탈주민 사회집단의 자녀양육지원 실태	75
1. 사회관계망	76
2. 육아정보 획득	83
3. 의사소통 및 언어	91
4. 언론매체의 영향	97
5. 건강, 안전, 성	101
6. 기타	108

V.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양육지원시스템 구축 방안	112
1. 기본방향	112
2. 정책 방안	114
참고문헌	120
부록	125
부록 1. 면담 프로토콜(북한이탈주민)	127
부록 2. 면담 프로토콜(어린이집/유치원 교사용)	130
부록 3. 북한이탈주민 대상 설문지	132

표 차례

〈표 I-4-1〉 영유아 자녀를 둔 북한이탈주민 면담자	13
〈표 I-4-2〉 교사 심층면담자 구성	14
〈표 I-4-3〉 부모대상 설문조사 표집 목표	15
〈표 I-4-4〉 응답자 배경: 북한이탈주민 부모	15
〈표 I-4-5〉 북한이탈주민 부모 설문조사 내용	16
〈표 II-1-1〉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입국 추이	18
〈표 II-1-2〉 북한이탈주민의 연령대별 입국현황(2016년 3월 말 기준)	19
〈표 II-1-3〉 북한이탈주민의 재북 직업별 현황(2016년 3월 말 기준)	19
〈표 II-1-4〉 북한이탈주민의 재북 학력별 현황(2016년 3월 말 기준)	20
〈표 II-1-5〉 북한이탈주민의 출신지역별 현황(2016년 3월 말 기준)	20
〈표 II-1-6〉 북한이탈주민의 지역별 분포	22
〈표 II-4-1〉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변천과정	28
〈표 II-4-2〉 북한이탈주민 관련 통일부 행정규칙	28
〈표 II-4-3〉 북한이탈주민 주요 정착지원 제도	29
〈표 II-4-4〉 사회 적응 교육 지원 내용	31
〈표 II-4-5〉 하나원 교육과정	32
〈표 II-4-6〉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원 내용	32
〈표 II-4-7〉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원 내용	33
〈표 II-4-8〉 정착 가산금 지원 내용	34
〈표 II-4-9〉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제도	35
〈표 II-4-10〉 북한이탈주민 정착장려금 지급기준 및 금액(2013. 4. 30. 이후) ..	37
〈표 II-4-11〉 교육 지원 내용	38
〈표 II-4-12〉 사회보장 지원 내용	39
〈표 II-4-13〉 중별 의료 수급권 비교	40
〈표 II-4-14〉 2016년도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최저보장수준 및 선정기준	40
〈표 II-4-15〉 2016년도 북한이탈주민 특례대상자 선정기준	41
〈표 III-1-1〉 가구의 주거 특성	49
〈표 III-1-2〉 현재 거주지	50

〈표 III-1- 3〉 가구원 부모의 특성	50
〈표 III-1- 4〉 가구원 특성(자녀)	51
〈표 III-1- 5〉 가구 소득 및 양육비용	51
〈표 III-1- 6〉 본인 및 배우자 근무정보	54
〈표 III-1- 7〉 북한이탈주민 평균 주당 근무시간	54
〈표 III-1- 8〉 취업 관련 정보	55
〈표 III-1- 9〉 남한 출신 미취업모의 과거 취업관련 특성	56
〈표 III-1-10〉 실제 및 희망 근로시간	56
〈표 III-2- 1〉 가족, 직장(고용주), 지역사회(이웃), 국가의 아동 돌봄 책임의 비중 ..	57
〈표 III-2- 2〉 부부간 양육역할 분담	59
〈표 III-2- 3〉 배우자의 자녀 양육 참여 정도	60
〈표 III-2- 4〉 배우자의 자녀 양육 참여의 적절성 여부	61
〈표 III-2- 5〉 배우자가 자녀 양육에 참여를 못하는 이유	61
〈표 III-2- 6〉 자녀를 양육하는 데 가장 큰 어려운 점	62
〈표 III-2- 7〉 육아 관련 정보를 제공 받는 곳	64
〈표 III-2- 8〉 기관에 대한 인지여부, 이용여부, 만족도	66
〈표 III-3- 1〉 미취학 자녀 기관 이용실태	67
〈표 III-3- 2〉 최근 3개월 동안 낮시간 주 양육자	68
〈표 III-3- 3〉 남한 출신의 평일 낮시간 주양육자	69
〈표 III-3- 4〉 보육/교육기관 이용 이유	69
〈표 III-3- 5〉 자녀의 보육/교육기관 선택 시 고려사항	70
〈표 III-4- 1〉 기관 미이용 실태 관련 문항	71
〈표 III-4- 2〉 자녀를 기관에 보내지 않는 이유 순위	72
〈표 III-4- 3〉 자녀 양육에서 가장 어려운 점(1순위)	74
〈표 IV-1- 1〉 북한이탈주민의 영유아자녀 양육 실태	75
〈표 IV-1- 2〉 최근 3개월 동안 낮 시간 주 양육자	76
〈표 IV-1- 3〉 근무 시간 정보	81

그림 차례

[그림 II-1-1] 북한이탈주민의 지역별 거주 현황(2016년 3월 말 기준)	21
[그림 II-1-2] 북한이탈주민 거주 형태(N=11,948)	22
[그림 II-2-1] 북한이탈주민의 혼인상태와 배우자 출신국가	23
[그림 II-2-2] 북한이탈주민의 동거가족 구성형태	24
[그림 II-2-3] 가사분담에 대한 의견(2014 북한이탈주민 사회조사 결과)	24
[그림 II-2-4] 가사분담에 대한 의견(2014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	24
[그림 II-2-5] 북한이탈주민의 최고 생활비 지출(N=11,047)	25
[그림 II-3-1] 북한이탈주민의 영유아 자녀의 수 및 자녀 출생국	26
[그림 II-3-2] 북한이탈주민 영유아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 여부(N=2,172)	26
[그림 III-1-1] 월평균 가구 소득	52
[그림 III-1-2]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비율	52
[그림 III-1-3] 영유아 자녀 일인당 월 평균 양육비용	53
[그림 III-2-1] 아동 돌봄 책임의 비중	57
[그림 III-2-2] 아버지 양육 참여비율	59
[그림 III-2-3] 자녀 양육에서 가장 필요한 지원	63
[그림 III-2-4] 육아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곳	64
[그림 III-2-5] 자녀 양육 시 필요한 정보 순위	65
[그림 III-2-6] 부모교육을 제공 받는 기관	66
[그림 III-4-1] 집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 가장 필요한 지원(1순위)	72
[그림 III-4-2] 자녀 양육을 위해 활용하는 지역사회 공공자원	73
[그림 III-4-3] 긴급하게 대리양육이 필요한 경우 도움 받는 사람(기관)	73
[그림 IV-1-1] 긴급하게 대리양육이 필요한 경우 도움 받는 사람(기관)	78
[그림 IV-2-1] 육아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곳	84
[그림 IV-3-1] 자녀 보호·교육기관이용 이유	93
[그림 V-2-1] 현재 하나원 교육과정의 구성	116
[그림 V-2-2] 현행 북한이탈주민 지원 체계도	119

요 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이 경제적인 자립에 집중되며 각종 취업관련 지원 방안은 많이 이루어져 북한이탈주민 부모의 양육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기게 되는 일이 많았음.
- ☐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은 무엇인지, 또 이들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북한이탈주민 부모가 그들의 자녀양육을 잘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연구내용

- ☐ 북한이탈주민의 영·유아 자녀양육의 환경을 살펴봄.
- ☐ 북한이탈주민의 가정 내 영·유아 자녀양육의 실태를 살펴봄.
- ☐ 북한이탈주민의 영·유아 자녀 기관이용 및 미이용 실태를 살펴봄.
- ☐ 북한이탈주민들이 속한 사회적 집단에서 어떤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지 살펴보고 북한이탈주민 자녀양육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함.

3. 연구방법

- ☐ 문헌연구
- ☐ 심층면담
 - 북한이탈주민 어머니,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을 대상으로 개별 심층면담을 실시함.

☐ 서면자문

- 하나센터에 근무하는 북한이탈주민 담당자(센터장, 국장 혹은 팀장)를 대상으로 서면 자문을 실시함.

☐ 설문조사

- 북한이탈주민 부모의 한국 적응 및 자녀 양육과 관련한 지원 정책의 이용 실태와 개선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2016년 9월 한 달간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북한이탈주민 어머니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전문가 워크숍

- 심층면담과 설문조사 결과를 예비 분석을 실시하여 연구진이 얻은 결과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정책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학계, 부처, 관련 기관 전문가와 워크숍을 개최함.

☐ 전문가 자문회의

- 관련 연구를 수행한 학계 전문가를 비롯해 관련부처 공무원 및 관계 기관의 직원, 교사 등의 현장전문가와 자문회의를 실시함.

4. 국내 북한이탈주민 기본 현황

- ☐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2008~2009년까지 증가세를 보였으나, 2009년을 정점으로 2011년 이후로는 감소세를 보이거나 최근 다시 증가하는 추세임.
-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전체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여성의 비율이 모두 70%이상이며 연령대별 입국현황을 살펴보면 30-39세가 8,460명으로 가장 많음.
- ☐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재북 직업별 현황을 살펴보면 무직부양이 13,808명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봉사분야 1,108명, 노동자 10,963의 순으로 나타남.
- ☐ 북한이탈주민의 재북 학력의 경우 중학교(고등중)가 19,991명으로 가장 많으며 전문대가 2,790명, 대학 이상이 1,995명으로 나타났고 출신지역별 현황은 함북 18,069명, 양강 3,819명, 함남 2,577명의 순으로 나타남.

- ☐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에서 경기도에 7,836명으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서울에 6,875명이 거주하고 있음.

5. 북한이탈주민 가정 현황

- ☐ 남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약 절반 정도(48.4%)는 현재 배우자가 있는 상태라고 보고하였고 배우자의 출신지의 경우 북한 출신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 ☐ 북한이탈주민의 동거가족 구성형태에 있어서는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양 부모-자녀 가구(27.6%)가 가장 많았으나 편부모-자녀 가구(24.3%) 역시 그 수가 적지 않았음.
- ☐ 북한이탈주민의 한달 가계 지출은 전체의 2/3에 가까운 64.4%가 100만원 이하라고 응답하였고 월 생활비로 50만원 이하로 지출하고 있다고 보고한 경우도 24.9%에 달했음.

6. 북한이탈주민 자녀 관련 현황

- ☐ 한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대부분이 남한에서 출생한 2세대이며 북한이탈주민의 2/3 이상(69.9%)이 취학 전 영유아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으로 나타남.

7. 북한이탈주민 관련 법령 정착지원 제도

- ☐ 우리나라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은 인도주의에 입각한 특별한 보호·지원을 위해 우리나라의 보호를 받으려는 북한이탈주민을 차별 없이 수용하고,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각종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 ☐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통일부를 주축으로 19개 부처와 기관으로 구성된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적응교육, 정착금, 주거에 대한 지원과 함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취업, 사회보장, 교육, 상담 등 7개 분야를 지원하고 있음.

- 보호결정이 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위하여 하나원에서 12주간의 기본교육을 받고 지역 하나센터에서 2주간의 지역적응교육 및 사후지원을 받게 됨.
- 정착금 지급은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생활 초기에 기초적인 생계를 해결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 모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기본금, 장려금, 가산금으로 구분됨.
- 정부는 정착지원법 제20조에 근거하여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 퇴소 후 사회 편입 시 임대주택을 알선하고 있으며, 1인 세대 기준으로 1,300만원의 주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음.
-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장을 알선하며, 지역별 취업사업을 실시하고,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나 제3국에서 이수하였던 학력을 인정받아 교육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진학하거나 사회활동을 할 수 있음.
- 북한이탈주민은 하나원 퇴소 이후 5년의 범위 내에서 생계급여 수급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 하나원 교육을 수료하고 최초로 거주지로 편입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지역적응교육과 함께, 정착도우미, 거주지보호/취업보호/신변보호 담당관, 지자체 및 민간단체의 정착지원을 받게 됨.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은 하나원 이후 민간차원의 정착지원 서비스를 총괄하며 북한이탈주민의 초기정착 및 생활안정, 자립·자활, 교육·연구, 상호이해 확산 및 통합 등 정착지원 관련 업무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8. 선행연구 고찰

가.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한국 입국 전 경험

- ☐ 북한이탈유아가 한국에 입국하기 전의 경험을 다룬 연구에 따르면 북한이탈유아가 탈북의 과정에서 겪은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 어려움이 성인

도 견디기 힘들 정도로 큼.

- 탈북과정의 어려움을 겪은 유아를 위해 한국에서는 일상적일 수 있는 절차일지라도 북한이탈유아가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도록 세심히 배려할 수 있어야 함.

나.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한국 입국 직후 경험

- 북한이탈주민들은 한국에 입국한 직후에는 국정원의 조사를 거쳐 보통 3개월 정도 하나원에 머무는데 이 기간 동안 영유아 자녀들은 일종의 대안학교인 하나둘학교의 영아반, 인근 초등학교의 병설유치원 다니게 됨.
-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적응은 이주자로서의 일반적인 목표이자 과업일 수 있으나, 개인의 정체성이 부정당할 수 있으므로 한국의 문화를 일방적으로 북한이탈주민 유아에게 강요하지 않고 유아의 자발성을 존중한 내적인 동인에 의한 변화와 적응이어야 할 것임.
- 개인의 특징에 따라 적응과정이 달라 북한이탈주민을 판에 박힌 하나의 문화집단으로 규정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북한이탈주민의 영유아 자녀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어서도 개별적인 맞춤형 정책이 요구됨.

다. 지역정착기(지역하나센터 시기)의 북한이탈주민 자녀

- 하나원을 퇴소한 후 북한이탈주민들은 지역하나센터의 도움을 받아 각 지역에 정착하게 되는데, 북한이탈주민의 영유아 자녀들은 어린이집 생활에 있어서 언어적인 문제, 교사에 의존적인 문제, 산만함의 문제 등을 가지고 있음.
-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가정과의 의사소통의 문제가 교사와 어머니에 의해 공히 거론되었는데 이는 영유아의 적응에 있어서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부모의 적응이 자녀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함.

라. 북한이탈주민 부모의 남한 적응

-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 생존이나 경제적인 목적 등으로 부부가 되는 경우가 많아 부부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불안정한 특성이 있음.
- 남북한의 경제·문화의 차이로 인해 동료들과 오랜 관계를 지속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주민이 많으며 주소지 변동이 잦은 것에 비하여 신변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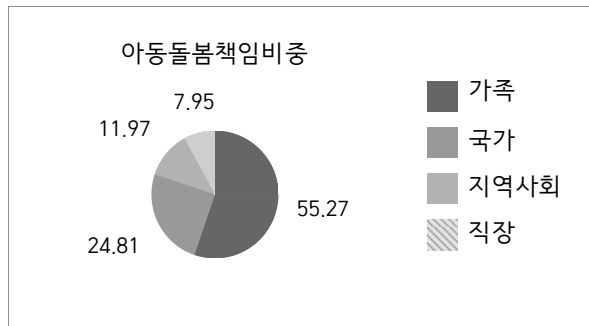
호담당관이 이를 새로운 이주지의 신변보호담당관에게 전달하는 체계가 미흡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적응 지원에 차질이 있음.

마. 북한이탈주민 부모의 자녀 양육

- 남북한의 서로 다른 체제로 인해 북한이탈주민 부모와 한국의 부모들 간에 자녀양육의 차이가 근본적으로 존재하며 그 차이로 인해 북한이탈주민은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데 특히 경제적 어려움이 큰 것으로 보임.

9. 북한이탈주민의 영유아자녀 일반 양육 실태

- 영유아자녀를 둔 북한이탈주민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가구의 주거 특성, 가구의 경제적 특성, 부모의 취업특성, 자녀 양육 특성, 양육지원 요구,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의 이용 실태 및 미이용 실태를 분석함.
- 북한이탈주민의 평균 동거 가구원 수는 3.1명으로 타나났으며 대상자의 과반수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였으며 월평균 가구소득은 약 180만원, 영유아 자녀를 위한 월 양육비용은 약 45만원인 것으로 나타남.
-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돌봄 책임에 대한 인식은 가족의 비중이 가장 높은 55%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국가와 지역사회 직장의 순임.



- 북한이탈주민 아버지는 남한 출신 아버지에 비하여 양육역할분담은 일반적으로 유사하지만 자녀와 놀아주기를 함께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음.
-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양육에 대한 가장 큰 어려움은 양육비이며 자녀양육 지원에 대한 요구도 현금지원이 가장 높음.

-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양육에 대한 정보는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를 가장 필요로 하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양육에 대한 정보는 주로 친구나 이웃을 통해서 얻는 것으로 나타남.
- 북한이탈주민은 육아지원 전달체계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으며 만족도도 높은 편임.
- 북한이탈주민은 부모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음.
- 북한이탈주민은 긴급한 경우에 자녀를 맡길 곳으로 가장 먼저 친구나 이웃을 들었으며 긴급할 때 맡길 곳이 없다고 한 경우가 그 다음으로 많음.

10. 북한이탈주민 사회집단의 자녀양육지원 실태

-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인 관계인 가정, 북한이탈주민 모임, 어린이집, 지역사회, 직장, 그리고 전달체계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사회관계망, 육아정보의 획득, 의사소통, 언론매체, 그리고 건강 및 안전 문제를 통해 자녀의 양육의 실태를 살펴봄.
- 북한이탈주민이 맺고 있는 사회 관계망은 전체적으로 단순한 강한 연결 중심의 사회관계망임. 적극적으로 사회 관계망 형성을 추구하여 약한 연결의 사회관계망이 더 많이 필요함.
- 북한이탈주민에게 정보 전달은 미흡한 실정임. 주민센터와 같은 곳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며 대안적으로 지방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에서 문자 등으로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안내도 병행할 필요 있음.
- 북한이탈주민의 언어는 자신을 북한출신임을 알리는 마커(marker)로 작용하고 있으며 많은 북한이탈주민은 이를 불편하게 여김. 이는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크기에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가 필요함.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없이는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에서 쉽게 소통하기 어려움.
- 북한이탈주민에게 매체가 주는 영향력은 강력함. 특히 언론 매체를 비관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형태에 가까움. 남한 사회

와 육아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언론매체가 전하는 내용을 다른 각도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 있음.

- 북한이탈주민 중 대다수가 미혼 여성이나 이들은 대부분 체계적인 성교육 및 건강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음. 이들이 다른 체제에 적응하며 예상하지 못한 결혼과 임신을 경험하며 양육의 어려움이 출산 전부터 시작됨.

11.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양육 양육지원 시스템 구축 방안

- 사회 통합형 지원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원칙하에 이루어져야함.
 - 신뢰환경 조성: 북한이탈주민이 약한 연결을 신뢰하고 안전하게 손을 내뻗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함.
 - 차별방지: 북한이탈주민이 자신의 언어로 인해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으로 인해 차별을 겪지 않아야함.
 - 가정 중심의 지원: 북한이탈주민 개개인이 아닌 가정이 지원의 중심이 되어야함.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98년까지 북한을 이탈하여 남한에 입국한 주민의 누계가 1,000명을 넘지 못하였는데 이후 본격적으로 탈북행렬이 줄을 이어, 2016년 8월 현재 2만 9천명이 넘게 입국하여 2016년 내에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3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통일부, 2016b, 2016c).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보호를 위해 정부는 1997년 [북한이탈주민 정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들의 한국내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입국초기 국정원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¹⁾를 거쳐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해 하나원에서 약 3개월 간 입소하여 다양한 교육을 받는다. 하나원을 퇴소하여 전국 23개 지역의 하나센터에서 이들의 정착을 돕고는 있으나 남북한의 분단이 장기화되어가며 남북간의 사회·문화적 골이 깊어 이러한 교육과 적응 훈련 및 안내로도 북한이탈주민과 그들의 자녀는 이러한 사회·문화 및 경험과 가치관의 차이 등을 극복하고 정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그동안의 정부의 지원정책이 주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인 자립에 초점이 맞추어져왔기에 이들의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과 같은 정책은 우선순위에 서 밀리곤 하였다. 통일부가 1999년부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인 하나원을 경기도 안성시에 설치한 후 2001년 대안학교 성격의 하나들 학교를 하나원 내에 설치하였으나 현재는 유아를 위한 프로그램은 폐지되고 인근 병설유치원으로 유아들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인근의 병설유치원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들을 위해 배치되었던 전문 교사가 예산 및 원아 수 감소 등의 이유로 없어진 실정이다(강재희, 2016). 새로운 사회에의 적응과 동시에 자신의 정체성을 수립하고, 또 발달과업도 이루어가야 하는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는(이부미, 2003) 북한이탈주민 자녀 영유아를 위해 초·중등 및 성인 북한이탈주민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더구나 부모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북한이탈주민을 향한 결

1) 국가정보원은 2014년 7월 28일 중앙합동신문센터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로 개칭하였다.

으로 드러나거나 혹은 감추어진 한국 사회 일반의 차가운 시선을 극복하기 위해 문화적으로 북한과는 전혀 다른 사회로 변모한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에 관심을 두는 사이 이들의 영유아 자녀는 성장의 황금기를 놓치고 말게 된다.

특히 최근 들어 둔화되던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추세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또한 “통일의 역군, 소중한 자산, 먼저 온 미래”(동아일보, 2016. 10. 6일자)라고 상황에서 그에 걸맞은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분단의 장기화로 남북 간 문화의 차이가 커져가며 통일시대의 준비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 연구를 비롯한 북한이탈주민의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은 무엇인지, 또 이들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북한이탈주민 부모가 그들의 자녀양육을 잘 지원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2. 연구내용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영·유아 자녀양육의 환경을 살펴본다. 자녀양육 환경은 부모의 취업여부를 비롯한 소득과 같은 경제적 환경 및 주거 형태 등을 살펴본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가정 내 영·유아 자녀양육의 실태를 살펴본다. 북한이탈주민의 가정 내 자녀양육 실태는 부부간의 육아의 분담, 돌봄 비중에 대한 인식, 자녀양육의 어려운 점 및 육아정보의 획득 방법 등을 알아본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영·유아 자녀 기관이용 실태를 살펴본다. 북한이탈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영·유아 자녀를 위한 교육·보육 기관, 이용 시간 등을 알아본다.

넷째, 북한이탈주민의 기관 미이용 실태를 살펴본다. 자녀를 기관에 보내지 않는 이유, 대리양육과 같은 영·유아 자녀의 교육 및 보육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북한이탈주민의 실태를 알아본다.

다섯째, 북한이탈주민들이 속한 사회적 집단에서 어떤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지 살펴본다. 북한이탈주민의 다양한 사회적 집단, 즉 가정, 북한이탈주민 모임, 어린이집, 지역사회, 직장, 및 전달체계가 이들의 자녀 양육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를 알아본다.

3. 용어의 정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013, 이하 북한이탈주민법)에 의해 보호받는 북한이탈주민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북한을 벗어난 사람이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중 북한에서 태어난 자녀 외에 부모가 북한을 이탈하는 과정이 길어지며 제3국에서 출생한 중도입국 자녀,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부모가 남한에 입국한 이후 남한에서 출생한 자녀는 북한이탈주민의 범주에 속하지 못한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의 출생지 혹은 국적에 따라 자녀 양육의 행태가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자녀가 어린 영·유아인 경우 자녀와의 의사소통 및 언어 문제와 같은 보다 나이든 자녀의 부모가 겪는 차이에 비하여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영유아의 부모 중 한 명, 혹은 두 명 모두 다 북한이탈주민인 경우 자녀의 북한이탈주민 여부와 관계 없이 북한에서 출생한 자녀, 중도입국 자녀, 남한 출생 자녀를 모두 포함한다. 한편 모든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이탈주민법의 “보호대상자”는 아니다(류지성, 2016). 원칙적으로 보호대상자는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에 머무는 기간과 하나원 출소 후 5년동안의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에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북한이탈주민법의 보호대상자가 되지 못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하현선, 2016).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법의 보호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영·유아 자녀를 둔 남한에 거주하는 모든 북한이탈주민 부모를 연구의 주된 대상으로 한다.

4.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문헌연구의 방법으로 다음의 연구 내용을 고찰하였다.

첫째,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현황 및 통계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둘째,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한국 적응과 관련한 선행 연구를 분석하였다.

셋째, 북한이탈주민 부모의 한국 적응 및 그들의 자녀 양육과 관련한 선행

연구를 분석하였다.

나. 심층면담

문헌연구를 통해 파악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양육의 현황 및 실태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 어머니,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 그리고 하나센터에 근무하는 북한이탈주민 담당자(센터장, 국장 혹은 팀장)을 대상으로 개별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은 60분 ~ 90분 정도로 이루어졌으며, 면담은 사전에 작성된 프로토콜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전체적인 면담은 프로토콜에 의해서 제한받지는 않으며 자유롭게(open-ended) 진행되었다. 모든 면담은 면담이 이루어지기 전에 연구윤리에 따라 서면 동의를 받은 후 이루어졌으며, 면담의 내용은 보이 스레코더를 이용하여 녹음하였다. 녹음된 파일은 면담이 끝난 후 모두 컴퓨터로 전사되었다.

1) 영유아 자녀를 둔 북한이탈주민 어머니 면담

북한이탈주민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북한을 벗어난 사람이기에 법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중 북한에서 태어난 자녀 외에 부모가 북한을 이탈하는 과정에서 제3국에서 출생한 중도입국 자녀,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부모가 남한에 입국한 이후 남한에서 출생한 자녀는 북한이탈주민의 범주에 속하지 못한다. 그러나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영유아 자녀 대다수(86.3%)는 남한출생자녀이다(남북하나재단, 2015b). 또한 북한출생 자녀나 중도입국 자녀의 부모일지라도 이후 남한에서 자녀를 출생한 경우도 있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영유아의 부모 중 한 명, 혹은 두 명 모두 다 북한이탈주민인 경우 자녀의 법적 북한이탈주민 여부와 관계없이 북한에서 출생한 자녀, 중도입국 자녀, 남한 출생 자녀를 모두를 대상으로 하였다. 한편 북한이탈주민 대상 면담은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상 집단 면담을 꺼릴 뿐만 아니라 민감한 개인정보의 누출로 원활한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어 대부분 개별면담으로 진행하였다. 영유아 자녀를 둔 북한이탈주민 부모의 면담자 정보는 <표 I-41>과 같다.

〈표 1-4-1〉 영유아 자녀를 둔 북한이탈주민 면담자

번호	면담유형	지역	나이	입국시기	자녀 수(영유아)
2	개별	서울 노원구	37세	2011. 12.	2(1)
3	개별	서울 동대문구	39세	2009. 12.	1(1)
4	개별	서울 강북구	38세	2009. 2.	2(2)
5	개별	서울 성동구	45세	2011. 6.	2(2)
6	개별	서울 노원구	21세	2009. 9.	1(1)
9	개별	인천 논현동	41세	2008. 8.	1(1)
10	개별	인천 논현동	29세	2011. 2.	1(1)
11	개별	경기 안산시	31세	2006. 1.	2(2)
22	개별	경기도 군포시	37세	2008. 7.	2(1)
23-1	집단	서울 강북구	33세	2009. 8.	2(2)
23-2	집단	서울 강서구	42세	2009. 8.	2(1)
23-3	집단	서울 강북구	31세	2009. 6.	2(2)
24	개별	서울 마포구	26세	2015. 6.	1(1)
26	개별	서울 중랑구	43세	2007. 12.	2(1)
27	개별	인천 남동구	43세	2007. 11.	3(1)
28	개별	서울 동작구	32세	2013. 4.	1(1)
29	개별	서울 송파구	37세	2005. 2.	5(3)
41	개별	서울 강서구	44세	2004. 10.	3(1)
42	개별	경기 군포시	39세	2009. 6.	1(1)
43	개별	경기 군포시	28세	2010. 11.	1(1)

위의 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총 20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이 진행되었으며 3명을 한 집단으로 한 1건의 면담을 제외하고 모두 개별 면담으로 이루어졌다.

2)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면담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양육지원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자녀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사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사는 북한이탈주민 거주지역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사와 원장을 대상으로 하였다. 면담 대상 교사의 경우 현재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담임교사를 하고 있거나 과거에 담임을 했던 경험이 있는 교사, 원장의 경우 북한이탈주민 부모를 직접 면담한 경험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였다. 교

사와의 집단 심층면담을 위한 면담프로토콜은 부록 2에 수록되어있다.

〈표 1-4-2〉 교사 심층면담자 구성

단위: 명

구분	지역	경력	재원 북한이탈주민 자녀 수
민간어린이집 원장	인천	15	5
공립어린이집 원장	서울	18	2
민간 어린이집 교사	인천	3	1
공립 어린이집 교사	서울	17	2

3) 하나센터 전문가 면담

지역 하나센터의 북한이탈주민 담당자(하나센터 센터장, 국장 혹은 팀장)를 대상으로 대면 혹은 서면질의를 통한 면담은 전국 23개 하나센터에서 연구의 취지에 공감하고 연구 참여에 응한 7명의 하나센터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루어 졌다.

다. 설문조사

2016년 9월 한 달간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북한이탈주민 어머니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설문조사의 설문지는 북한이탈주민 부모의 한국 적응 및 자녀 양육과 관련한 지원 정책의 이용실태와 개선 요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정원·도남희·김세현·나지혜(2012)의 연구와 김은설·윤재석·윤지연(2015)의 연구 설문지를 참고하여 제작하였다.

1) 조사대상 및 방법

영유아 자녀를 둔 북한이탈주민의 모집단은 남북하나재단(2015b)이 실시한 “2014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응답자를 대상으로 추정하였다. 전수조사를 목표로 실시한 위 조사는 55.2%의 응답률을 보였으나 미응답자가 해외 출국 등으로 부재중이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이를 실질적인 모집단으로 참고하였다.

〈표 I-4-3〉 부모대상 설문조사 표집 목표

자녀 유형	모집단 ¹⁾	
	모집단 ¹⁾	표집 목표
북한출생 자녀	123	200
중도입국 자녀	230	
남한 출생 자녀	2286	

자료: 남북하나재단(2015b). 2014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 243.

하지만 모집단의 규모가 워낙 작아 설문조사의 표집을 무선표집이나 할당표집으로 진행하기가 어려워 임의표집 하였으며 조사는 조사원이 응답대상자를 직접 찾아가 면대면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조사의 응답자 일반배경은 <표 I-4-4>와 같다. 우선 응답자의 나이를 살펴보면 30대가 49.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40대 34.8%, 20대 14.6%의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 소재 지역으로는 대도시가 55.5%로 가장 많았으며 중소도시가 11.5%로 나타났고, 읍면지역은 3.5%에 불과했다. 남한 입국 시기의 경우에는 2006년에서 2010년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48.7%로 가장 많았고 2011년에서 2015년에 입국한 경우도 3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응답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수를 살펴보면 1명인 경우가 54.0%, 2명인 경우가 33.3%로 나타났다. 3명인 경우는 12.2%로 비교적 적었으나 4명 이상인 경우는 1명(0.5%)으로 매우 적게 나타났다. 응답자 자녀의 나이를 살펴보면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가 74.0%로 8세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26.0%) 보다 약 3배 정도 많았다.

〈표 I-4-4〉 응답자 배경: 북한이탈주민 부모

단위: %(명)

구분	비율(빈도)
나이	n=178 ¹⁾
20대	14.6(26)
30대	49.4(88)
40대	34.8(62)
50대	0.6(1)
60대	0.6(1)
거주 소재 지역	n=146 ¹⁾
대도시	55.5(111)
중소도시	11.5(23)
읍면지역	3.5(7)
기타	2.5(5)

(표 I-44 계속)

구분	비율(빈도)	
남한 입국 시기		n=199 ¹⁾
2000년~2005년	17.6(35)	
2006년~2010년	48.7(97)	
2011년~2015년	33.7(67)	
자녀 수		n=189 ¹⁾
1명	54.0(102)	
2명	33.3(63)	
3명	12.2(23)	
4명 이상	0.5(1)	
자녀 나이		n=285 ²⁾
7세이하	74.0(211)	
8세이상	26.0(74)	

주: 1) 무응답한 경우가 있어 항목별 응답자 수가 다름.

2) 자녀 나이의 경우 중복응답임.

2) 조사내용

설문조사 내용은 북한이탈주민 부모를 대상으로 그들의 한국 적응 및 자녀 양육과 관련한 지원 정책의 이용실태와 개선 요구에 초점을 맞추어 구성하였다. 조사내용은 크게 응답자의 가구 및 취업 특성, 자녀 양육 특성 및 의식, 자녀의 기관 이용실태 및 미이용실태, 기타(남북한의 양육 문화 차이, 하나원에서 필요한 양육 관련 교육 내용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조사원으로 선임한 북한이탈주민 7인의 검토를 거쳐 문항을 확정하였다. 조사내용은 <표 I-45>과 같으며, 각 문항의 내용은 부록 5에 제시하였다.

<표 I-4-5> 북한이탈주민 부모 설문조사 내용

구분	문항내용
한국 적응 및	- 가구 및 취업 특성
자녀 양육 관련	- 자녀 양육 특성 및 의식
지원 정책의	- 자녀의 기관 이용실태
이용실태와	- 자녀의 기관 미이용실태
개선 요구	- 기타(남북한의 양육 문화 차이, 하나원에서 필요한 양육 관련 교육 내용 등)

라. 전문가 워크숍

심층면담과 설문조사 결과를 예비 분석을 실시하여 연구진이 얻은 결과의 타

당성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정책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학계, 부처, 관련 기관 전문가와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마. 전문가 자문회의

관련 연구를 수행한 학계 전문가를 비롯해 관련부처 공무원 및 관계 기관의 직원, 교사 등의 현장전문가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의 방향 설정, 연구 내용 및 설문조사 문항 조정, 설문지 검토, 정책 제언과 관련된 자문을 얻었다.

II. 북한이탈주민 관련 현황

1. 국내 북한이탈주민 기본 현황

본 절에서는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정책 관련 통계를 토대로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현황과 입국자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입국 현황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연도별 입국 추이와 연령별 입국현황에 대해서 제시하고 입국자 특성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직업별, 학력별, 과거 출신지역별, 현재 거주지역별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가. 입국 현황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2008~2009년까지 증가세를 보였으나, 2009년을 정점으로 2010년 감소하였다. 2011년 이후로는 오히려 감소세로 돌아선 것을 <표 II-1-1>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표 II-1-1>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입국 추이

단위: 명, %

구분	'08	'09	'10	'11	'12	'13	'14	'15 (잠정)	'16.3월 (잠정)	합계
남	608	662	591	795	404	369	305	251	77	8,580
여	2,195	2,252	1,811	1,911	1,098	1,145	1,092	1,025	265	20,557
합계	2,803	2,914	2,402	2,706	1,502	1,514	1,397	1,276	342	29,137
여성 비율	78	77	75	71	73	76	78	80	77	71

자료: 통일부(2016b). 통계자료(<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3099>, 2016. 6. 29 인출)

위의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전체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여성의 비율이 모두 70%이상이다. 2006년(75%) 이래로 2016년 현재까지 매해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여성의 비율이 70%를 하회한 경우는 단 한

차레도 없어 북한이탈주민의 여초현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최근 입국자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연령대별 입국현황을 살펴보면 30-39세가 8,460명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20-29세가 8,128명으로 많게 나타났다(표 II-1-2 참조).

〈표 II-1-2〉 북한이탈주민의 연령대별 입국현황(2016년 3월 말 기준)

단위: 명

구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계
남	613	1,542	2,334	1,989	1,245	464	320	8,507
여	615	1,874	5,794	6,471	3,543	1,080	902	20,279
합계	1,228	3,416	8,128	8,460	4,788	1,544	1,222	28,786

주: 입국당시 연령 기준이며, 최근 입국하여 보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일부 인원은 제외된 수치임.

자료: 통일부(2016b). 통계자료(<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3099>, 2016. 6. 29 인출)

나. 입국자 특성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재북 직업별 현황을 살펴보면 <표 II-1-3>과 같다. 무직부양이 13,808명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봉사분야 1,108명, 노동자 10,963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1-3〉 북한이탈주민의 재북 직업별 현황(2016년 3월 말 기준)

단위: 명

구분	관리직	군인	노동자	무직 부양	봉사 분야	예술 체육	전문직	비대상 (이동등)	기타	계
남	368	639	3,682	3,082	70	73	207	385	1	8,507
여	110	92	7,281	10,726	1,038	173	445	413	1	20,279
합계	478	731	10,963	13,808	1,108	246	652	798	2	28,786

주: 최근 입국하여 보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일부 인원은 제외된 수치임.

자료: 통일부(2016b). 통계자료(<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3099>, 2016. 6. 29 인출)

북한이탈주민의 재북 학력별 현황 및 출신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II-1-4, 표 II-1-5 참조). 학력의 경우 중학교(고등중)가 19,991명으로 가장 많으며 전문대가 2,790명, 대학 이상이 1,995명으로 나타났다. 무학은 825명으로 전체의 약 3%에 불과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출신지역별 현황은 함북 18,069명,

양강 3,819명, 함남 2,577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1-4〉 북한이탈주민의 재북 학력별 현황(2016년 3월 말 기준)

단위: 명

구분	취학전 아동	유치원	인민 학교 (소학교)	중학교 (고등 중)	전문대	대학 이상	무학 (북)	기타 (불상 등)	계
남	397	128	736	5,167	720	954	351	54	8,507
여	390	170	1,183	14,824	2,070	1,041	474	127	20,279
합계	787	298	1,919	19,991	2,790	1,995	825	181	28,786

주: 최근 입국하여 보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일부 인원은 제외된 수치임. 해당 학력별 중 퇴자 포함

자료: 통일부(2016b). 통계자료.(<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3099>, 2016. 6. 29 인출)

〈표 II-1-5〉 북한이탈주민의 출신지역별 현황(2016년 3월 말 기준)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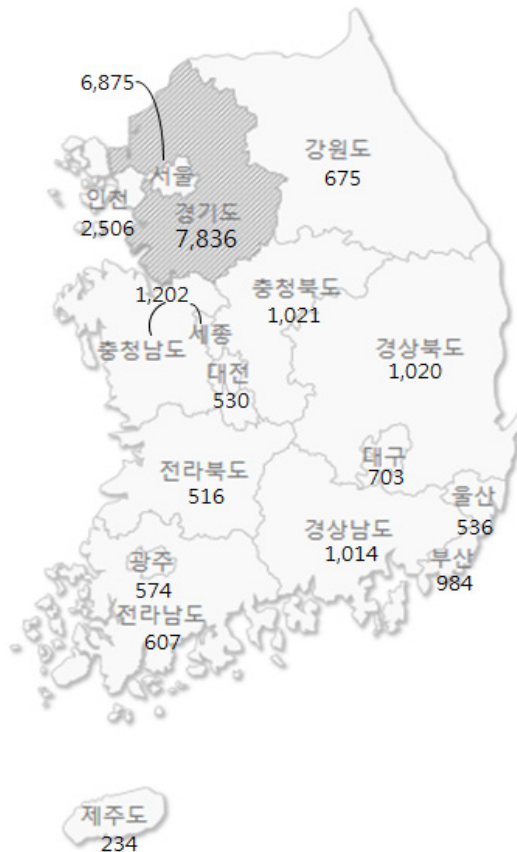
구분	강원	남포	양강	자강	평남	평북	평양	함남	함북	황남	황북	개성	기타	계
남	214	62	1,089	65	420	349	354	740	4,670	255	165	44	80	8,507
여	343	69	2,730	134	561	425	261	1,837	13,399	174	235	27	84	20,279
합계	557	131	3,819	199	981	774	615	2,577	18,069	429	400	71	164	28,786

주: 1) 최근 입국하여 보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일부 인원은 제외된 수치임.

2) 기타는 불상 등을 포함

자료: 통일부(2016b). 통계자료.(<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3099>, 2016. 6. 29 인출)

2016년 3월 말 기준으로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지역별 거주 현황을 살펴보면 [그림 II-1-1]과 같다. 북한이탈주민은 경기도에 7,836명으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서울에 6,875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적게 거주하는 지역은 제주도로 234명이며 그 다음으로 전북이 516명으로 적었다.



단위: 명

주: 사망, 말소, 이민, 주소불명, 보호시설 수용자 제외된 수치임.
 자료: 통일부(2016). 통계자료(<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3099>, 2016. 6. 29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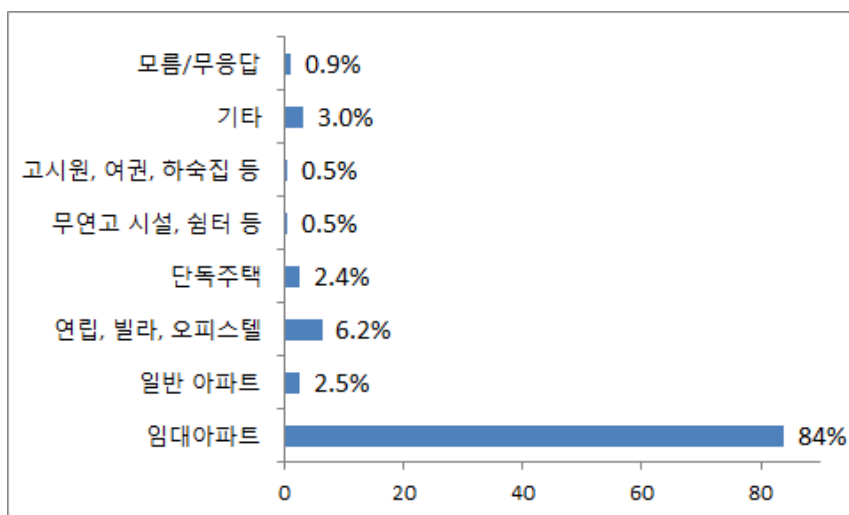
[그림 II-1-1] 북한이탈주민의 지역별 거주 현황(2016년 3월 말 기준)(N=26,833)

다음으로 시설 입소, 소재지 확인 불가,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조사가 불가능한 자들을 제외하고 2013년까지 남한 내 입국자 중 만 15세 이상의 북한이탈주민 23,141명을 모집단을 삼아 조사를 실시한 2014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절반이 넘는 수의 북한이탈주민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다(표 II-1-6 참조). 또한 서울과 인천 및 경기지역에 주로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주거지의 형태별로 살펴보면 대다수(84.0%)가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II-1-2 참조).

〈표 II-1-6〉 북한이탈주민의 지역별 분포

		경기	서울	인천	비수도권	계
모집단	사례수	6,575	6,088	2,138	8340	23,141
	백분율	28.4	26.3	9.2	36.0	100.0
조사 응답자	사례수	3,386	2,809	1,177	5405	12,777
	백분율	26.5	22.0	9.2	42.4	100.0

자료: 남북하나재단(2015b). 2014북한이탈주민사회조사, 86, 114p의 표를 재구성함.



자료: 남북하나재단(2015b). 2014북한이탈주민사회조사, 147p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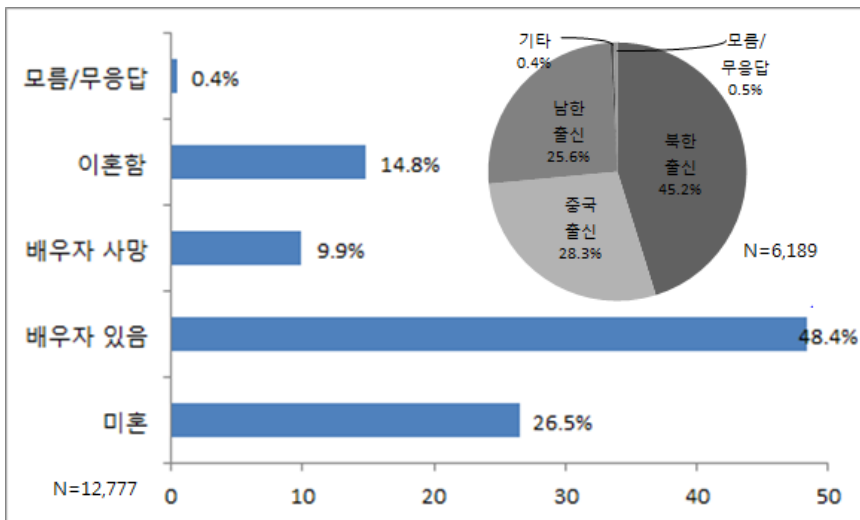
[그림 II-1-2] 북한이탈주민 거주 형태(N=11,948)

2. 북한이탈주민 가정 현황

본 절에서는 남북하나재단의 2014 북한이탈주민 사회조사를 토대로 북한이탈주민의 혼인 관련 특성, 가정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혼인 관련 특성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혼인상태와 배우자 출신 국가에 대해서 제시하고 가정 특성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동거가족 구성 형태와 생활비 지출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가. 혼인 관련 특성

남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약 절반 정도(48.4%)는 현재 배우자가 있는 상태라고 보고한 반면 미혼인 경우는 약 1/4정도(26.5%) 정도였으며 나머지 1/4정도는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이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북한이탈주민의 배우자는 북한 출신이 가장 높은 비율로 전체의 45.2%였으며 중국 출신(28.3%)과 남한 출신(25.6%)이 비슷한 비율로 그 뒤를 이었다. 북한이탈주민들끼리 결혼한 경우가 전체 절반이 못되는 가운데 남성의 86.5%는 배우자가 북한출신이라고 보고하였으나 여성은 북한 출신 배우자가 31.6%에 그쳤다(남북하나재단, 2015b).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성비에 있어서 여초현상을 보이는데서 기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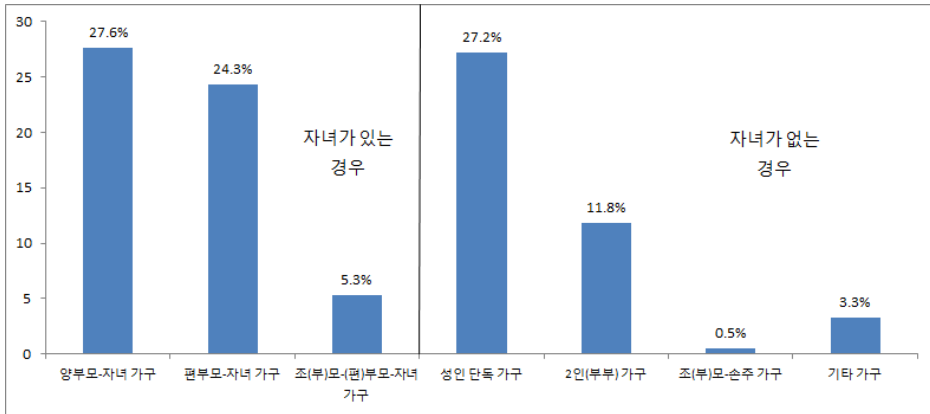
자료: 남북하나재단(2015b). 2014북한이탈주민사회조사, 210p, 213p 재구성.

[그림 II-2-1] 북한이탈주민의 혼인상태와 배우자 출신국가

나. 북한이탈주민 가정 특성

북한이탈주민의 동거가족 구성형태에 있어서는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양 부모-자녀 가구(27.6%)가 가장 많았으나 편부모-자녀 가구(24.3%) 역시 그 수가 적지 않았다. 성인 단독 가구가 27.2%, 2인(부부) 가구가 11.8%로 나타났으며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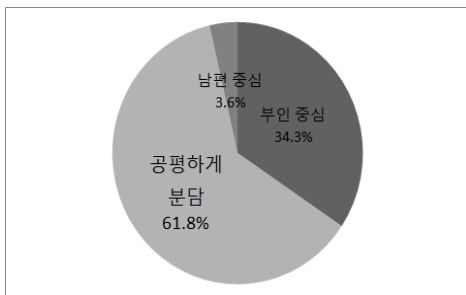
부모와 함께 사는 3대 가정이 5.3%였고 조-손 가정도 0.5% 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기타 가구에는 미성년 단독(또는 형제) 가구가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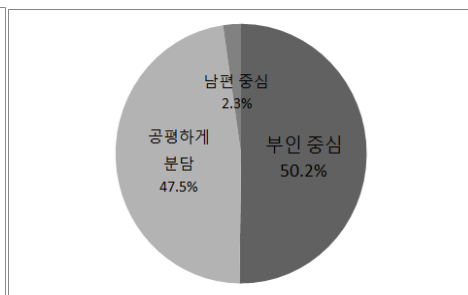
자료: 남북하나재단(2015b). 2014북한이탈주민사회조사, 220p 재구성.

[그림 II-2-2] 북한이탈주민의 동거가족 구성형태



자료: 남북하나재단(2015a). 2014북한이탈주민사회조사, 291p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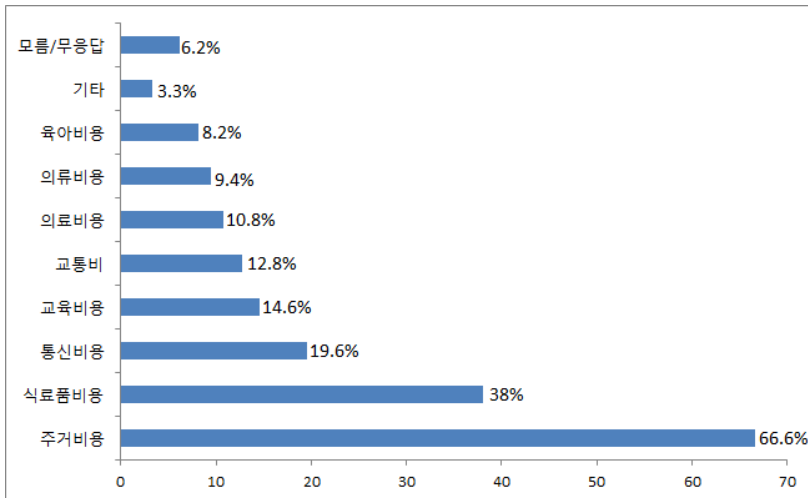
[그림 II-2-3] 가사분담에 대한 의견(2014 북한이탈주민 사회조사 결과)



자료: 남북하나재단(2015a). 2014북한이탈주민사회조사, 291p 재구성.

[그림 II-2-4] 가사분담에 대한 의견(2014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

북한이탈주민의 한달 가게 지출은 전체의 2/3에 가까운 64.4%가 100만원이하라고 응답한 가운데 월 생활비로 50만원 이하로 지출하고 있다고 보고한 경우도 약 1/4에 해당하는 24.9%에 달했다. 이중 이들이 생활비로 가장 많이 지출하는 비용은 주거비용으로 전체 응답자의 2/3에 해당하는 66.6%가 주거비용이 가장 큰 생활비 지출이라고 답하였다(그림 II-2-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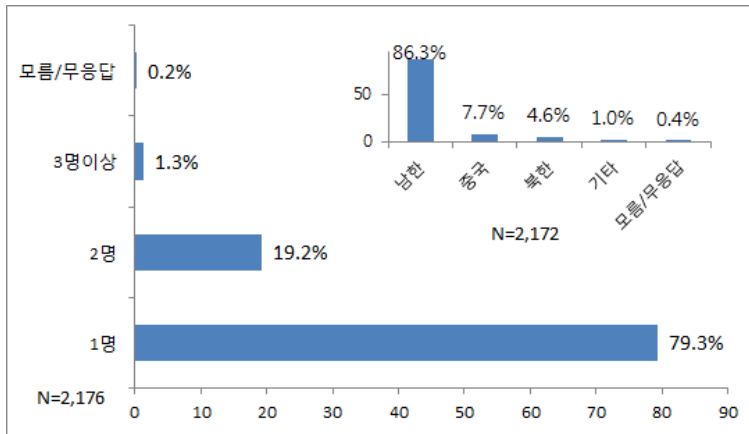
주: 기타에 경조사 비용 포함

자료: 남북하나재단(2015b). 2014북한이탈주민사회조사, 230p 재구성.

[그림 II-2-5] 북한이탈주민의 최고 생활비 지출(N=11,047)

3. 북한이탈주민 자녀 관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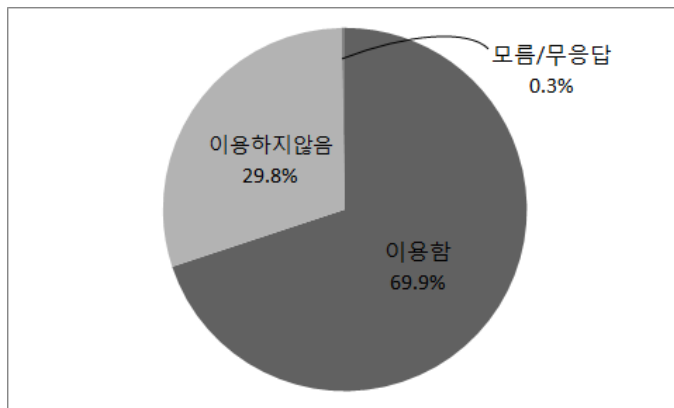
남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중 취학 전 자녀가 있는 경우는 전체의 약 19.7% 정도였다(남북하나재단, 2015b). 남한에 취학 전 영유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수를 묻는 질문에 79.3%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 부모는 1명이라고 답하였다. 또한 남북하나재단(2015b: 242)에 따르면 한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남한 내 취학 전 자녀의 출생국은 '남한'이라는 응답이 8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뒤로 중국이 7.7%, 북한이 4.6%, 태국이 0.2%였으며 기타 응답으로는 캐나다와 영국 등이 있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로 미루어 한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대부분이 2세대인 것을 알 수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들이 언어의 문제,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적응의 문제를 직접 겪는 사례는 오히려 소수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자료: 남북하나재단(2015b). 2014북한이탈주민사회조사, 236p, 242p 재구성.

[그림 II-3-1] 북한이탈주민의 영유아 자녀의 수 및 자녀 출생국

한편 북한이탈주민의 2/3 이상(69.9%)이 취학 전 영유아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경우는 부모가 20대인 경우(36.9%), 거주기간이 3~5년 미만인 경우(40.0%), 현재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39.9%)인 것으로 나타났다(남북하나재단, 2015b).



자료: 남북하나재단(2015b). 2014북한이탈주민사회조사, 246p 재구성.

[그림 II-3-2] 북한이탈주민 영유아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 여부(N=2,172)

4. 북한이탈주민 관련 법령 정착지원 제도²⁾

본 절에서는 북한이탈주민 관련 법령과 각종 정착지원 정책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다.

가. 관련 법령

현재 우리나라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은 인도주의에 입각한 특별한 보호·지원을 위해 우리나라의 보호를 받으려는 북한이탈주민을 차별 없이 수용하고,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각종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통일대비 역량강화를 위한 실질적 통일준비의 통일시대 남북주민의 원활한 통합을 통모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은 1962년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을 시작으로 하여 여러 번의 법 개정과 관련 법 신설 등을 거쳐, 1997년부터는 「귀순」이라는 용어를 「북한이탈」 주민으로 대체한 「북한이탈주민³⁾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착지원법’이라 한다)에서 주로 다루고 있다.

초기의 북한이탈주민 정책은 체제 경쟁을 목표로 귀순용사를 국가유공자나 귀순용사 등으로 대우하는 형태로 시행되었다가, 1993년 이후 당시 보건사회부가 주관부처가 되어 귀순자를 우리나라의 생활능력이 결여된 취약계층 북한동포로 간주하여 과거의 용사의 개념에서 하향 조정되면서 지원규모가 줄어들었다. 이후 1997년을 기점으로 남북통합에 대비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과 자활능력 배양에 초점을 두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2005년부터는 일회성 현금지원에서 자립·자활과 연계된 인센티브·분할지급방식으로 개선되었으며, 지역적응센터(2009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2010년), 제2하나원(2012년) 등 정착지원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2) 본 절의 상당부분은 통일부(2015c)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의 내용과 통일부 홈페이지의 북한이탈주민정책 관련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한 것임.

3) 법 제2조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표 II-4-1〉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변천과정

관련 법	시행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	1962. 4~	귀순자에게 국가유공자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여 원호대상자로 우대하며, 최초로 체계적인 지원 실시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	1979. 1~	정부는 귀순자를 사선을 넘어 자유민주주의를 택한 '귀순용사'로 간주하며, 이전보다 더욱 체계화된 지원 실시
귀순북한동포보호법	1993. 6~	귀순자를 국가유공자에서 생활능력이 결여된 생활보호대상자로 전환하며, 정착금 하향조정 등 지원규모를 대폭 축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1997~1999	기존의 「귀순」의 개념을 「북한이탈」로 대체하고, 자립·자활능력 배양에 중점
	1999~2004	교육지원 연령범위 확대 등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안정 및 정착지원 강화
	2004~2006	정착금의 인센티브제, 임대주택 제공 확대, 정착도우미 제도 도입 등
	2006~2008	이혼특례 조항 신설, 자격인증제도 개선, 취업보호기간 확대
	2009~	해외장기체류자 보호범위 확대, 지역적응교육, 청소년·학교 등 지원근거 마련
	2010~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 설립, 취업지원 강화방안 마련
	2013 ~ 2014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 취업·교육 등 실태조사 근거마련 등

자료: 통일부 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1439>, 2016. 10. 4 인출)의 내용에 기초하여 표로 구성함

이러한 법령과 함께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각종 행정규칙들이 있으며 다음과 같다.

〈표 II-4-2〉 북한이탈주민 관련 통일부 행정규칙

행정규칙	제정	최근개정	관련 법조항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지침	1999.5.27	2015.9.3	정착지원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등 지급에 관한 지침	2005.4.12	2015.9.3	정착지원법 제20조 및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6조의2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 지침	2000.2.11	2014.4.1	정착지원법 제17조 및 제17조의2, 동법 시행령 제34부터 제35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부터 제3조의4

(표 II-4-2 계속)

행정규칙	제정	최근개정	관련 법조항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 지침	2014.7.10		정착지원법 제17조 및 제17조의2의 제4항, 동법 시행령 제35조의3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지침	2001.1.30	2015.9.3	정착지원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및 연구 협조 지침	2009.10.11		정착지원법 제4조 제4항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보조사업 집행지침	2009.12.15	2015.9.3	정착지원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탈북무연고청소년 정착지원 업무지침	2002.4	2015.9.3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	2011.1.24	2015.9.3	정착지원법 제22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42조의2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운영지침	2010.1.29	2015.9.3	정착지원법 제22조의2

자료: 통일부(2015c).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에서 제시한 행정규칙을 표로 정리함.

나. 정착지원 제도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통일부를 주축으로 19개 부처와 기관으로 구성된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이 되는 사회적응교육, 정착금, 주거에 대한 지원과 함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취업, 사회보장, 교육, 상담 등 7개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정착지원 제도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II-4-3〉 북한이탈주민 주요 정착지원 제도

구분	항목	내용
사회적응교육	기본교육	- 하나원 12주 392시간 교육 ※ 연령대·성별 7개반 운영(유아, 유치, 초등, 청소년, 성인남성, 성인여성, 경로) ※ 정서안정 및 건강증진, 우리사회 이해 증진, 진로지도 및 기초직업능력훈련, 초기 정착지원 등 4개 분야
	지역적응교육	- 전국 하나센터 2주 60시간 교육 및 사후지원 ※ 지역사회 이해, 진로 및 취업지원, 사회적응, 정서안정 등

(표 II-43 계속)

구분	항목	내용
정착금	기본금	▪ 1인 세대 기준 700만원 지급 ※ 초기지급 400만원, 분기별 100만원씩 3회
	지방거주 장려금	▪ 지방 2년 거주 시 130만원(지방 광역시), 260만원(기타)
	취약계층 보호 가산금	▪ 노령, 장애, 장기치료, 한부모아동 등 최대 1,540만원 ※ 1인 1개 사유만 인정
주거	주택알선	▪ 영구·국민·다세대 임대주택 알선(2년간 임대차계약 해지불가, 소유권·전세권·임차권 변경 불가)
	주거지원금	▪ 1인 세대 기준 1,300만원 (보증금의 잔액은 거주지 보호기간 종료 후 지급)
취업	직업훈련	▪ 훈련비 전액 지원 및 훈련기간 중 훈련수당 지급
	직업훈련 자격취득	▪ 직업훈련 500시간 이수 시 120만원, 120시간 당 20만원 추가, 최대 740시간 이수 시 160만원(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시 200만원 추가) ▪ 자격취득시 200만원 ※ 자격취득 장려금 및 직업훈련 장려금은 다만, 2014.11.28. 이전 입국하여 보호결정된 자에게 적용
	취업 장려금	▪ 3년간 근무 시 취업장려금 수도권 1,650만원, 지방 1,950만원
	고용지원금 (채용기업주 에 지급)	▪ 급여의 1/2을 50만원 한도에서 기본 3년, 최대 4년간 지원 ※ 고용지원금은 2014.11.28 이전 입국하여 보호결정된 자에게 적용
	자산형성제도 (미래행복 통장)	▪ 근로소득 중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동일 금액을 매칭하여 지원 - 요건: 거주지보호기간 내에 있고,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3개월 이상 취업중일 것 등 - 적립 목적: 주택구입비 또는 임대비, 교육비, 창업자금 등 - 지원기간: 2년(1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 가능) - 적용대상: '14.11.29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된 자
	기타	▪ 취업지원센터 운영, 사회적기업 설립 지원, 영농정착 및 창업지원, 취업지원 바우처
사회 보장	생계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정
	의료보호	▪ 의료급여 1종 수급자로서 본인 부담 없이 의료 혜택
	연금특례	▪ 입국 당시 50세 이상~60세 미만 시 국민연금 가입 특례
교육	특례 편·입학	▪ 대학진학 희망 시 특례입학
	학비지원	▪ 중·고교 및 국공립대 등록금 면제, 사립대 50% 보조
상담	-	▪ 하나센터, 전문상담사, 정착도우미 등을 통한 사후 지원

자료: 1) 통일부(2015c).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pp.10-11.

2) 통일부 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1442>, 2016. 10. 4 인출)의 내용에 기초하여 표로 구성함.

1) 사회적응훈련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기관으로 하나원이 있다. 하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수용기관 및 교육기관으로서, 탈북민들이 국내 입국 후 그들이 경험해 오던 체제와는 전혀 다른 문화·환경을 가진 남한 사회에 곧바로 편입되어 받게 되는 문화적 충격을 경감시켜주는 완충 지역 역할을 하는 곳이다. 북한이탈주민은 이곳에 머물면서 그들의 거주지가 확정되고 남한에서의 신분이 만들어지는 동안 하나원에 머물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받고 사회적응 훈련과 직업교육 등을 받게 됨으로써 어느 정도 우리사회를 이해하게 된다(김정인, 2003:40-41).

하나원은 정착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정착지원시설’로서 1999년 7월 경기도 안성(본원)에 개원하였으며, 지난 2012년 강원도 화천에 제2하나원(화천분소)개 개원하였다. 본원은 여성 특화교육을, 분소는 남성 특화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1999년 7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총 26,500여명이 사회적응교육수료 후 사회에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통일부, 2015a:14).

보호결정이 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위하여 하나원에서 12주간의 기본교육을 받고 지역 하나센터에서 2주간의 지역적응교육 및 사후지원을 받게 된다. 하나원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12주간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며, 연령 및 성별을 고려하여, 성인반(남성, 여성), 청소년반, 초등반, 유치반, 영아반, 경로반 등 7개 반으로 운영한다. 교육시간은 정규 프로그램은 총 392시간, 일과 후 및 주말 자율 참여형 보충 프로그램 운영 총 431시간으로 운영되며, 취업지원을 위해 남성 11직종, 여성은 12개 직종을 체험하게 된다. 이외에도 하나원은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번호 발급, 정착지원금 지급, 주택알선 등 초기의 정착지원업무를 수행한다(통일부, 2015a:14-15).

〈표 II-4-4〉 사회 적응 교육 지원 내용

항목	내용
기본교육 (하나원)	하나원 12주 392시간 교육 * 연령대·성별 7개반 운영(유아, 유치, 초등, 청소년, 성인남성, 성인여성, 경로) * 정서안정 및 건강증진, 우리사회 이해 증진, 진로지도 및 기초 직업 능력훈련, 초기 정착지원 등 4개 분야
지역적응교육 (하나센터)	전국 하나센터 2주 60시간 교육 및 사후지원 * 지역사회 이해, 진로 및 취업지원, 사회적응, 정서안정 등

자료: 통일부(2015a).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정착지원 매뉴얼, 15.

〈표 II-4-5〉 하나원 교육과정

항목	내용	
정서안정 및 건강증진	·심리검사·상담 ·건강검진·진료 *46시간	12주 총 392시간
진로지도 및 직업훈련	·적성검사, 진로지도 ·기초작업적응훈련 *157시간	
우리 사회의 이해 증진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역사·문화·생활법률 ·현장체험(시장구매, 가정체험, 도시체험) *138시간	
초기 정착지원	·정착지원제도 안내 ·정착의지 함양 교육 *51시간	

자료: 통일부(2015a).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정착지원 매뉴얼, 20p 재구성.

2) 정착금 지급제도

정착금 지급은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생활 초기에 기초적인 생계를 해결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 모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자활을 촉진하기 위해, 기본금을 축소하고 장려금 제도를 폭넓게 도입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정착금은 기본금, 장려금, 가산금으로 구분되는데, 정착기본금 이외에 북한이탈주민 개개인의 자립자활 노력 및 사정에 따라 정착장려금과 정착가산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토록 세분화되어 있다. 정착을 위한 기본금은 북한이탈주민 모두에게 지급되며, 1인 가족의 경우 700만원이며, 주거지원금 1,300만원을 포함할 경우 2,000만원이 된다(통일부 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1443>, 검색일 2016년 10월4일).

〈표 II-4-6〉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원 내용

항목	내용
기본금	1인 세대 기준 700만원 지급 * 초기지급 400만원, 분기별 100만원씩 3회
지방거주 장려금	지방 2년 거주시 130만원(지방 광역시), 260만원(기타)
취약계층 보호 가산금	노령, 장애, 장기치료, 한부모아동 등 * 1인 1개 사유만 인정

(표 II-4-6 계속)

항목	내용
주택알선	영구·국민·다세대 임대주택 알선(2년간 임대차계약 해지불가, 소유권·전세권·임차권 변경 불가)
주거 지원금	1인 세대 기준 1,300만원 (보증금의 잔액은 거주지 보호기간 종료후 지급)

자료: 통일부(2015a),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정착지원 매뉴얼, 15.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되는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을 세대원 수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II-4-7〉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원 내용

단위: 만원

세대원수	정착금 기본금			주거지원금	합계
	초기지급금	분할지급금	소계		
1인	400	300	700	1,300	2,000
2인	500	700	1,200	1,700	2,900
3인	600	1,000	1,600	1,700	3,300
4인	700	1,300	2,000	1,700	3,700
5인	800	1,600	2,400	2,000	4,400
6인	900	1,900	2,800	2,000	4,800
7인 이상	1,000	2,200	3,200	2,000	5,200
지급시기	하나원 퇴소시 지급	거주지 전입 후 1년 동안 분기별로 지급		임대주택 보증금을 제외한 잔액은 5년 후 지급	

자료: 통일부(2015a),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정착지원 매뉴얼, 23.

기본금 중 초기지급금은 하나원 퇴소 시 지급하고, 분할지급금은 거주지 편입 후 1년 동안 분기별로 분할하여 지급된다. 주거지원금은 실입주보증금만 지원하고 잔액은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되는 5년 후 지급된다. 가산금은 연령가산금, 장애가산금, 장기치료가산금, 한부모가정 아동보호 가산금으로 구분하고 동일세대의 총지급액은 월 최저임금의 50배 이내, 장애 결정 후 등급을 달리하는 장애인은 기 지급 가산금을 공제하며, 지급 시기는 분할금 지급 종료 후 4년간 분할 지급되며, 1세대에 1개 사유만 인정된다.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정착금 가산금은 만 60세 이상이거나, 1·5급 장애등급에 따라, 그리고 만 13세 미만의 한부모 아동이 있을 시 지급된다. 장려금은 직업훈련시간과 자격취득여부, 취업기간에 따라 달리 지급된다. 이외에도 북한이탈주민이 국가이익을 위하여 제공한 정보 또는 장비에 대해 2억5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이 있다(통일부, 2015a:19-20).

〈표 II-4-8〉 정착 가산금 지원 내용

정착금 가산금(1세대에 1개 사유만 인정)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신청방법	필요서류
장애	장애등급별	1,540(1급) 1,080(2-3급) 360(4-5급)	-시기: 거주지 보호기간 -방법: 하나원에 신청(필요서류 우편송부)	-공통서류: 가산금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장애: 공통서류, 장애진단서, 장애증명서(복지카드) -장기치료: 공통서류, 입원진단서
장기치료	중증질환으로 연속 3개월 이상 입원	개월×80 (최대 9개월)		
한부모가정 아동보호	13세 미만 한부모 아동	360(세대당)	하나원에서 일괄 지급	
연령	만 60세 이상	720		

자료: 통일부(2015a).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정착지원 매뉴얼, 24.

이 외에도 서울, 경기도, 인천광역시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는 지방거주장려금을 지급하는데 하나원 퇴소후 2년이 지난 기간 동안 서울, 경기도 인천광역시로 전입한 사실이 없는 경우 인천시를 제외한 광역시에 거주한 경우 130만원을, 기타지역에 거주한 경우 260만원을 지급한다.

3) 주거지원

정부는 정착지원법 제20조에 근거하여 북한이탈주민의 하나원 퇴소 후 사회 편입시 임대주택을 알선하고 있으며, 1인 세대 기준으로 1,300만원의 주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거지원금 중 임대주택 보증금을 제외한 잔액은 5년 이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사회편입 후 공공주택 신청시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 대상으로 배정하고 있다. 거주지역은 하나원에서 교육 중인 북한이탈주민 본인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최대한 반영하되, 주택 물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차순위 지역으로 배정한다. 대신 북한이탈주민은 2년간 통일부장관의 허가없이 알선된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알선된 주택의 소유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을 변경을 불가하도록 하고 있다(통일부, 2015a:22-24).

4) 취업지원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취업이 필수조건이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장을 알선하며, 지역별 취업사업을 실시하고,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와 통일부는 2006년부터 북한이탈주민이 직업훈련과정을 쉽게 따라갈 수 있도록 예비반 성격의 '기초직업적응훈련' 과정을 하나원에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통일부 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1444>, 검색일 2016년 10월4일). 이에 따라 하나원에서부터 적성검사와 진로지도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초직업적응훈련으로 남성인당 11종, 여성은 12종의 직종을 체험하는 교육 등 총 144시간의 진로지도 및 직업훈련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통일부, 2015c:16).

하나원 이후 거주지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취업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지원제도는 다음과 같다.

〈표 II-4-9〉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제도

시행제도	시행기관	주요내용
직업훈련	고용노동부	▪ 무료 직업훈련. 훈련기간 중 훈련 수당 지급
취업알선, 취업보호담당관	고용노동부	▪ 전국 56개 고용센터에 취업보호담당관을 지정, 취업알선 및 직업지도 등 지원
고용지원금	통일부	▪ 북한이탈주민 지불 임금의 1/2을 기본 3년, 최대 4년간 지원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채용 활성화 ▪ 고용센터에 신청, 통일부(하나원)에서 지급
정착장려금	통일부	▪ 직업훈련, 자격증취득, 취업 등 개인 자립의지에 따라 장려금 지급(신청·지급은 고용지원금과 동일)
자산형성제도 (미래행복통장)	-	▪ 근로소득 중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하여 지원 - 요건: 거주지보호기간 내에 있고,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3개월 이상 취업중일 것 등 - 적립목적: 주택구입비 또는 임대비, 교육비, 창업자금 등 - 지원기간: 2년(1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 가능) - 적용대상: '14.11.29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된 자
학력·자격인정	통일부	▪ 관계법령에 따라 북한에서 취득한 학력·자격에 상응하는 국내 학력·자격 인정

주: 정착지원법령 개정(2014.11.29 시행)으로 2014.11.29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고용지원금, 자격취득장려금, 직업훈련장려금은 적용되지 않으며 미래행복통장 제도 적용. 단, 2014.11.28 이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기존 제도 적용

자료: 통일부(2015c),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p.28.

하나원은 사회에 진출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8년에 고용노동부·직업훈련기관·기업체가 협력하여 '맞춤형 직업훈련-취업연계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에 맞추어 '모집-훈련-채용'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시범사업으로, 이러한 사업들은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선도적 협력모델로서 의미를 갖는다. 또한 고용노동부 산하 전국 56개 종합고용지원센터에 전문적인 취업상담 공무원이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담당관으로 지정되어, 북한이탈주민의 진로 지도를 지원하고 직업훈련기관을 알선하는 한편 이들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사업장을 연결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주는 고용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사업주가 북한이탈주민이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시키는 경우에 한해, 2014년부터는 고용지원금 지급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였다(통일부 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1444>, 검색일 2016년 10월4일).

직업훈련과 자격증 취득, 취업 등 개인의 자립의지에 따라 지급되는 정착장려금은 크게 직업훈련 장려금, 자격취득 장려금, 취업 장려금으로 구분된다. 직업훈련 장려금은 거주지보호기간(5년) 중 총 50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북한이탈주민에게 1회에 한하여 지급되며, 2013년 4월 30일 이후 사회진출자(하나원 177기 이후)부터는 직업훈련의 장기화 및 취업기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직업훈련 장려금은 당초 최대 1,220시간 240만원에서 최대 760시간 160만원 축소·변경하였다. 여기에 수료한 직업훈련이 1년 이상의 과정이거나,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인 경우에는 추가로 200만원을 지급한다. 취업장려금은 2013년 개정시 북한이탈주민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지방거주를 장려하기 위해 1년차 취업장려금은 다소 낮추고 3년차 취업장려금을 상향 조정했으며, 수도권에 비해 지방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였다. 또한 법령 개정을 통해 2014년 11월 29일 이후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출산한 경우 이에 따른 취업장려금 수급 가능 기간이 최대 2년까지 연장(현행 거주지보호기간 5년에서 최대 2년 연장, 입국 후 5년 이내 → 최대 7년 이내)할 수 있도록 하였다(통일부, 2015c:40-45).

〈표 II-4-10〉 북한이탈주민 정착장려금 지급기준 및 금액(2013. 4. 30. 이후)

단위: 만원

구분	기준	금액
직업훈련 장려금*	총 500시간 미만	-
	총 500시간 이상	120
	총 620시간 이상	140
	총 740시간 이상	160
	(추가)1년 과정, 국가기간전략산업과정 수료	200
자격취득 장려금* (신청횟수: 1회)	직업훈련장려금 수혜자	200
	독학으로 취득한 자격	200
취업 장려금	6개월 동일업체 취업	200(수도권), 250(지방)
	1년차	450(수도권), 550(지방)
	2년차	550(수도권), 650(지방)
	3년차	650(수도권), 750(지방)
총액(최고액) 수도권 2210만원, 지방 2,510만원		

주: * 2014.11.29.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미지급(미래행복통장 제도 적용). 2014.11.28.이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자는 요건 충족 시 장려금 지급
 자료: 통일부(2015c).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p.40.

미래행복통장은 정착지원법 개정(2014.11.29. 시행)으로 마련된 제도로써, 북한이탈주민이 근로소득을 저축하면 매월 동일 금액을 정부지원금으로 적립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률 상승과 장기근속근무를 통한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 제도이다.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근로소득의 30%이내(10~50만원) 중 본인이 계좌 개설시 설정한 저축금액에 대해 1:1매칭으로 정부가 최대 4년간 지원한다(통일부, 2015c:47-48).

5) 교육지원 및 학력·자격인정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나 제3국에서 이수하였던 학력을 인정받아 교육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진학하거나 사회활동을 할 수 있다. 교육부는 2008년 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학력심의위원회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이 고급중학교 이하 학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시도교육청 산하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전문학교 이상은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학력인정 절차가 이원화된 것은 초·중·등교육 업무의 지방이양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북한

에서의 수학기간만이 아니라 연령·수학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력을 인정하기 위함이다(통일부 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1445>, 검색일 2016년 10월4일).

북한이탈주민이 일반대학이나 교육대학 등의 대학진학시 만35세 미만의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 보호기간 중이거나,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입학(편입학)하는 경우에는 학비지원이 가능하다. 이때 국공립대는 학교에서 학비를 면제하고, 사립대는 정부 50%를 보조한다. 산업대학과 전문대학, 기술대학, 사이버대학, 기능대학 및 그 이외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연령에 관계없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입학(편입학)하는 경우 학비지원이 가능하다(통일부 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1445>, 검색일 2016년 10월4일).

〈표 II-4-11〉 교육 지원 내용

항목	내용
특례 편·입학	대학진학 희망시 특례입학
학비 지원	중·고교 및 국공립대 등록금 면제, 사립대 50% 보조

자료: 통일부(2015a).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정착지원 매뉴얼, 16.

국내 입국 인원이 증가하면서 가족동반으로 또는 단독으로 입국하는 북한이탈 청소년의 숫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탈북 청소년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총 입국 인원 중 10대 청소년은 12%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남북한 간 이질화된 문화 및 탈북과정에서의 학업중단 등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는데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사회적응, 일반학교 편입 지원을 위해 디딤돌학교 성격의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인 한겨레 중고등학교를 운영·지원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탈북 청소년 보호시설 및 대안학교도 다수 운영·지원하고 있다(통일부 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1445>, 검색일 2016년 10월4일).

6) 사회보장지원

북한이탈주민은 하나원 퇴소 이후 5년의 범위 내에서 생계급여 수급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 특례는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근로무능력자

로만 구성된 가구는 총 5년동안, 근로 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3년간 특례를 받을 수 있다. 특례의 내용으로는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더하여 생계 및 주거 급여를 지급받는다. 근로능력이 포함된 가구의 경우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 재산가액의 산정 시, 북한이탈주민이 지급받은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조건제시 유예자로 관리하여 조건부과를 면제하고, 해당 기간이 만료된 후(6개월 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가 부과된다.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사회보장지원 제도는 크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국민연금이 있다(표 II-5-12 참조).

〈표 II-4-12〉 사회보장 지원 내용

항목	내용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정, 1인 세대 기준 약 50만원 수준
의료보호	의료급여 1종 수급자로서 본인 부담없이 의료 혜택
연금특례	입국 당시 50세 이상~60세 미만시 국민연금 가입 특례

자료: 통일부(2015a),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정착지원 매뉴얼, 16.

생계급여는 정착지원법 제26조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다음에 따라 특례가 적용된다. 특례기간은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5년,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는 3년으로,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하나원 재원 중에 수급자로 보장결정 되었다더라도 정착지원시설(하나원) 출원 후 최초거주지 전입일 부터 기산한다. 또한 특례기간 중 취·창업 등으로 탈 수급하였으나, 실직·폐업·질병 등으로 수급을 재신청하는 경우 북한이탈주민 특례 소득인정액 기준에 해당하면 동 특례 규정에 대한 재적용이 가능하다(보건복지부, 2015:88).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구분에 대한 기준은 소득인정액 기준으로는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적용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권)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특례기간 중에만 소득산정시 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 정착금 등은 제외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미적용하며, 특례 종료 후 일반수급자로 보장 중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자동차는 일반수급(권)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보건복지부, 2015:88-89).

생계급여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을 수료하고 사회에 나온 뒤 6개월까지는 조건부과를 면제하여 시행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는 조건부 수급권자로 편성하고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현금을 지급한다. 다만 세대구성원이 모두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대구성원의 수보다 1명을 더 추가하여 현금 급여액을 산정하여 지급한다(통일부 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1446>, 검색일 2016년 10월4일).

한편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은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지정되어 진찰과 치료를 비롯한 의료혜택을 부여한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보호결정 당시 만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10년을 채우지 않더라도, 60세 이후 가입기간이 5년이면 노령연금 취득이 가능하다(통일부 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1446>, 검색일 2016년 10월4일).

〈표 II-4-13〉 종별 의료 수급권 비교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CT 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자료: 통일부(2015a).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정착지원 매뉴얼, 36p에서 인출.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 10년이 지나야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나 보호결정 당시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북한이탈주민은 최소가입기간을 5년으로 하여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표 II-4-14〉 2016년도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최저보장수준 및 선정기준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소득 (A)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6,828,680
생계급여 선정기준 (A의 29% 이하)	471,201	802,315	1,037,916	1,273,516	1,509,116	1,744,717	1,980,317
의료급여 선정기준 (A의 40% 이하)	649,932	1,106,642	1,431,608	1,756,574	2,081,540	2,406,506	2,731,473

주: 8인 이상 가구의 선정 및 급여기준 : 7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6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을 차감한 금액인 235,600원을 추가함(8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2,215,917원)
자료: 보건복지부(2015).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50, p.51.

〈표 II-4-15〉 2016년도 북한이탈주민 특례대상자 선정기준

구분	선정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근로능력 북한이탈주민	맞춤형급여의 일반수급(권)자와 동일							
근로무능력 북한이탈주민	생계급여	802,315	1,037,916	1,273,516	1,509,116	1,744,717	1,980,317	2,215,917
	의료급여	1,106,642	1,431,608	1,756,574	2,081,540	2,406,506	2,731,473	3,056,440

주: 근로무능력자 북한이탈주민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적용하며,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선정기준에서 6인가구 선정기준을 뺀 차액을 가구원수 1인 증가시 마다 가산함. 단위는 원임.

자료: 보건복지부(2015).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89.

7) 거주지보호제도

하나원 교육을 수료하고 최초로 거주지로 편입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지역적응 교육과 함께, 정착도우미, 거주지보호/취업보호/신변보호 담당관, 지자체 및 민간단체의 정착지원을 받게 된다.

통일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거주지보호담당관을, 고용노동부를 통하여 취업보호담당관을, 그리고 경찰서를 통하여 신변보호담당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통일부에서는 연1회 보호담당관 및 사회복지공무원 대상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통일부, 2015b).

먼저 지역적응교육은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에서 이루어지며, 센터는 거주지에 편입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초기집중교육(2주, 60시간 이상)과 '지역적응 지원'을 통해 신속한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자활기반 조성을 지원한다. 2005년 기준 16개 시도에 29개의 지역적응센터가 있다(통일부, 2015b:79).

정착도우미는 정착지원법 시행령 제41조의 2에 근거하고 있으며, 탈북민이 하나원에서 거주지에 도착할 때까지 그 신변을 보호하고 거주지에서의 생활 안내를 하는 등 보호대상자를 돕기 위한 자원봉사자로, 2015년 8월말 기준 518여명이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다(통일부, 2015b:95). 다시 말해 정착도우미 사업은 탈북민이 거주지에 편입된 이후 초창기에 일상생활과 주변 환경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민간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에 편입된 이후 1년 동안 지역사회를 안내하고 상담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통일부 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1447>, 검색일 2016년 10월4일).

거주지보호담당관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정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정착지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주민등록 등 각종 행정지원업무를 총괄·조정한다. 취업보호담당관은 고용노동부 산하 전국 56개 고용센터에 지정되어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진로지도, 직업훈련, 취업알선 및 상담 등을 담당한다. 신변보호 담당관은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서 지정하며, 경찰서마다 자체적으로 북한이탈주민 안보교육, 북한이탈주민건강지킴이, 자매결연, 자원봉사자 모인 등을 운영한다(통일부, 2015b:85).

거주지보호제도로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가 있다. 협의회는 탈북민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의 만관협력 네트워크로, 보호담당관, 하나센터, 종교·민간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기업체 등이 위원으로 구성된다. 2015년 8월말 기준, 수도권 44개, 지방 59개로 총 103개로 구성되어 운영 중이다(통일부, 2015b:87).

거주지보호담당관, 취업보호담당관, 신변보호담당관의 역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거주지보호담당관

거주지보호담당관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정되어 거주지 편입과정에서부터 주민등록, 생계급여 지급, 의료급여 대상자 지정 등 사회보장제도의 편입과 증명서 발급과 같은 각종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하며 2015년 1월 기준 전국 약 230개 지자체에 거주지보호담당관이 지정되어 활동 중이며, 이들 거주지보호담당관의 주요한 업무는 다음과 같다(통일부, 2015b).

- 거주지 보호업무의 총괄·조정
- 주거 알선 / 거주지보호지침 제8조에 따른 특약해지·통지 및 제5호·10호의 통보에 관한 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 긴급의료 지원
-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과 협조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학력확인서 및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 북한이탈주민 생활실태조사 및 거주지 보호대장 관리(북한이탈주민종합관리 시스템)
-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운영 지원 및 관리
- 북한이탈주민 지원 관련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 종교, 민간단체 및 지역주민들과 결연 및 후원추진 등

나) 취업보호담당관

취업보호담당관은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에서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업무를 담당하며 2013년 현재 전국 56개 고용센터에서 취업보호담당관을 지정·운영 중에 있다. 취업보호담당관은 직업상담, 직업훈련 안내, 취업알선, 고용지원금 접수·신청, 고용실태조사, 취업보호자료 작성·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이들의 주요한 업무는 아래와 같다(통일부, 2015b).

- 직업훈련 신청서 접수 및 내담자 면담
- 훈련상황 확인 및 기록유지
- 취업신청서 및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및 통일부(하나원)에 송부
- 취업장려금 신청서 접수 및 통일부(하나원)에 송부
- 북한이탈주민 취업알선 및 직업지도
- 북한이탈주민 고용실태조사 및 취업보호대장 관리
-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참여
- 구인·구직자 발굴 및 취업 연계
- 지역적응센터,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정착도우미 등과 협력관계 유지

다) 신변보호담당관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신변보호담당관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5년 1월 현재 전국적으로 800여명의 경찰관이 신변보호담당관으로 활동하고 있다(통일부, 2016a). 각 경찰서마다 자체적으로 북한이탈주민 안보교육, 북한이탈주민 건강지킴이(지역 내 의료기관과 북한이탈주민 진료협약 체결), 자매결연, 자원봉사자 모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신변보호담당관의 주요한 역할은 아래와 같다(통일부, 2015b).

- 북한이탈주민의 신변위해요소 제거 및 신변보호
-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에 필요한 사항 파악
- 북한이탈주민의 애로사항 파악 및 관련기관 통보

8) 민간지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은 정착지원법 제30조에 의해 2010년 9월 27일 출범하였으며, 하나원 이후 민간차원의 정착지원 서비스를 총괄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초기정착 및 생활안정, 자립·자활, 교육·연구, 상호이해 확산 및 통

합 등 정착지원 관련 업무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통일부, 2015c:88).

전문상담사 제도는 북한이탈주민의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종합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를 육성·배치하는 사업으로(통일부 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1449>, 검색일 2016년 10월 4일). 2010년 1월부터 배치하여, 2015년 8월말 기준으로 91명의 전문상담사가 전국 16개 시도에서 활동 중이다(통일부, 2015c:94).

5. 선행연구 고찰

본 연구를 위해 검토한 선행연구들은 크게 북한이탈 영유아의 한국 사회 및 교육에의 적응의 문제를 다룬 것들과 그들의 가정 및 부모님들의 문제를 다룬 것들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가.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한국 입국 전 경험

먼저 북한이탈 영유아에 관한 연구들 중에서 먼저 강재희(2011)는 북한이탈유아가 한국에 입국하기 전의 경험을 연구하였는데, 그의 연구에 따르면 북한이탈유아가 탈북의 과정에서 겪은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 어려움이 성인도 견디기 힘들 정도로 클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에 강재희(2011)는 연구를 통하여 탈북과정의 어려움을 겪은 유아를 위해 한국에서는 일상적일 수 있는 절차일지라도 북한이탈유아가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도록 세심히 배려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한국 입국 직후 경험

북한이탈주민들은 탈북이후 제3국을 거쳐 한국에 입국한 직후에는 국정원의 조사를 거쳐 하나원에 입소하게 된다. 하나원에는 보통 3개월 정도 머무는데 이 기간동안 영유아 자녀들은 일종의 대안학교인 하나돌학교의 영아반, 인근 초등학교의 병설유치원에 다니게 된다. 이부미(2003)는 1년간 하나원 내의 하나돌학교에서 북한이탈주민 유아 27명을 참여 관찰하였다. 이 연구는 탈북 전단계인

북한, 제 3국에서의 유아들의 탈북경험의 특성과 이들의 남한사회의 초기 적응 과정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하나둘 학교에서의 교육적 경험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이부미(2003)는 일 년 동안의 현장연구를 통하여 하나둘 학교에서 만난 북한이탈주민 유아들이 제한된 시간 안에 한국 사회에 대한 적응이라는 과제를 떠 안으며 이전에 구축한 자신만의 세계를 빨리 버려야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적으로 돌아보았다. 즉,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적응은 이주자로서의 일반적인 목표이자 과업일 수 있으나, 그 과정이 단기간 내에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면 과거에 구축한 자신의 정체성이 모두 부정당하는, 나아가 자신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음을 연구자는 발견하였다. 때문에 이부미(2003)의 연구는 한국의 문화를 일방적으로 북한이탈주민 유아에게 강요하거나, 헤게모니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 유아의 자발성을 존중한 내적인 동인에 의한 변화와 적응이어야 된다는 시사점을 준다.

한편 강재희·박은혜(2011)는 가족 모두가 탈북하여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 유아 세 명을 참여관찰과 면담을 통하여 그들의 또래관계의 적응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를 통하여 저자들은 세 명의 유아가 모두 유사한 배경을 가진(가족이 모두 탈북하여 유사한 시기에 한국에 입국하여 하나원에서 생활 중인) 아이들이었지만 그들을 하나의 특징으로 단정 지어 묘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즉 각자 개인의 특징에 따라 그 적응과정이 판이하여 이들을 판에 박힌 하나의 문화집단으로 규정하는 것이 어려울 뿐 아니라 바르지 않다고 저자들은 주장하였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영유아 자녀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하는데 있어서도 개별적인 맞춤형 정책이 요구됨을 시사하고 있다. 강재희(2014)는 또한 하나원 인근에 위치한 병설유치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의 경험을 연구하였다. 이 유치원은 일반 병설유치원으로 인근의 유아들이 다니는 일반적인 병설유치원과 다름이 없었으나 북한이탈주민 유아들이 증가하면서 점차 인근 주민 유아들의 수는 급감하게 되었다. 연구에서 밝힌 이 병설유치원의 문제는 유아들이 하나원에 머무는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해 유아가 단기간 머물고 떠나서 일년을 기준으로 한 교육과정을 진행하기 어려운 점, 어머니가 하나원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간이 많아 교사와 별도로 상담하기가 어려운 점, 중국어만 하는 유아들이 최근 늘고 있는데 이들을 돕기 위한 중국어가 가능한 교사지원이 재정적인 이유로 중단된 점이 있었다. 하나원 내에 위치한 하나둘 학교를 다니는 것보다 외부의 병설유치원을 다닐 때의 장점은 북한이탈주민이 아닌 지역의 유아

들과 어울릴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하나원 유아들이 주류가 되면서 오히려 지역의 유아들이 다니지 않게 되면서 하나원 외부에 위치한 병설 유치원을 다녔을 때는 장점보다 단점이 더 두드러진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다. 지역정착기(지역하나센터 시기)의 북한이탈주민 자녀

하나원을 퇴소한 후 북한이탈주민들은 전달체계인 지역하나센터의 도움을 받아 각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강재희(2008)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유아의 적응과정을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를 통해 저자는 어린이집 생활에 있어서 북한이탈아가 언어적인 문제, 교사에 의존적인 문제, 산만함의 문제 등을 가지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장기적인 문제가 아니거나(언어), 그 구체적인 원인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가정과의 의사소통의 문제가 교사와 어머니에 의해 공히 거론되었는데 이는 유아의 적응에 있어서 부모의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적응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라. 북한이탈주민 부모의 남한 적응

김현아·조영아·김요완(2012)의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가정을 유형별로 부부중심 가정, 한부모 가정, 1인 가정으로 분류하여 그에 따른 차별적인 지원방안을 제안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를 통하여서 저자들은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부부중심이라고 할지라도 이들의 가족 구성은 남녀가 서로에게 호감을 갖고 교제하며 부부가 되는 일반 가정과는 달리 탈북과정에서 생존을 위해, 한국에 입국한 후에는 경제적인 목적 등으로 부부가 되는 경우가 많아 부부 간에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불안정하다. 특히 한부모 가정은 조건에 따라 재결합 가정이 되기 위하여 준비하는 경우가 많아서 부부중심의 가정과 불안정성에 있어서는 더 나을 바가 없다.

김윤영·이상원(2014)의 연구는 선행연구들의 분석을 통해 신변보호담당관에 대한 만족도가 거주지보호담당관이나 취업보호담당관에 비하여 높다고 하면서도, 남북한의 경제체제의 차이, 문화의 차이로 인해 동료들과 오랜 관계를 지속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주민이 많고 이에 따라 주소지 변동이 잦은 것에 비하여 신변보호담당관이 이를 새로운 이주지의 신변보호담당관에게 전달하

는 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적응 지원에 차질이 있음을 밝혔다.

마. 북한이탈주민 부모의 자녀 양육

이운진·서문희·김선화·박영자(2011)는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을 문헌연구 및 심층면담과 설문조사를 통하여 북한의 양육제도 및 실태, 양육관의 변화를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 이운진 외(2011)는 남북한의 서로 다른 체제로 인해 북한이탈주민 부모와 한국의 부모들 간에 자녀양육의 차이가 근본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밝혔다.

이운진·이정림·김경미(2012)는 영유아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양육 실태와 양육의 애로사항 및 요구를 조사하여 그들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먼저 경제적인 어려움을 들었다.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은 심리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도 생계수급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률혼을 회피함으로써 연구 대상자의 40%가 별거 및 이혼을 하는 등 결혼생활의 안정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북한이탈주민의 영유아 자녀 양육은 부모가 남한의 언어에 익숙하지 않고, 자녀 중심의 남한 문화에 익숙하지 않으며, 높은 비용이 소요되는 사교육을 감당하기 어려워 자녀 교육에 한계가 있음을 호소하고 있었다. 특히 취업모의 경우 영유아자녀를 대리양육해줄 친척이 드물고, 비혈연 대리양육자를 고용하기에는 높은 비용부담으로 대부분 자녀가 어릴 때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었다. 연구방법의 측면에서 이 연구는 설문조사의 결과가 종종 심층면담의 결과와는 다르게 드러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연구 시 자료의 수집 및 해석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한편 조혜영·김미경·이문옥(2013)은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유아 자녀의 영어교육에 대한 실태를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는 3세 이전에 영어교육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자신들이 겪는 어려움을 대물림하지 않기위하여 한국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영어교육에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도 높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자녀의 영어교육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것을 주로 이용하였고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부모가 직접 돕지는 못하고 숙제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았다.

홍누리·김희진(2013)은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북한이탈가정 어머니와 그들과 소득수준이 비슷한 일반 저소득가정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비교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인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북한이탈주민의 특징 중 경제적인 부분만이 집중적으로 부각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북한이탈주민과 소득수준이 비슷한 일반 저소득층가정과의 비교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제한 다른 특징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의 양육태도가 더 권위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북한의 권위적인(양육)문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는 일반 저소득가정 어머니들에 비하여 사회적 지지를 덜 받고 있다고 느껴 주류사회로부터의 소외가 경제적인 요인 외에 사회·문화적인 요인이 더 있음을 가늠케 하는 대목이다.

권정윤·조혜영·김미경(2013)은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 양육행동 및 양육 스트레스가 자녀의 문제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을 밝혔다. 북한이탈주민의 유아에 대한 적지 않은 연구자들이 유아들이 다른 아이들이 어린 나이에 겪지 않을 큰 시련을 겪었음에도 상대적으로 큰 회복 탄력성을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과 상반되게, 그 어머니들은 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연구는 어머니들의 이러한 심리적 특성과 양육의 특성이 자녀의 문제행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지적하여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적응의 문제는 그 부모, 특히 어머니에 대한 지원이 없이는 완전한 지원이 되지 못하는 것을 시사한다.

Ⅲ. 북한이탈주민의 영유아자녀 일반 양육 실태

본 장에서는 영유아자녀를 둔 북한이탈주민 어머니 20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결과를 가구의 주거 특성, 가구의 경제적 특성, 부모의 취업특성, 자녀 양육 특성, 양육지원 요구,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의 이용 실태 및 미이용 실태를 분석하였다.

1. 양육 환경

본 절에서는 조사대상 북한이탈주민 영·유아 자녀의 양육환경을 가구의 주거 특성과 경제적 특성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가. 가구의 주거 특성

본 설문에 참여한 200명의 북한이탈주민 영유아 어머니는 아래의 표와 같이 남한내 평균 거주기간이 약 7년 3개월 정도이며 동거하는 가구원 수는 설문 응답자 본인을 포함해 모두 3.1명, 그리고 자녀의 수는 평균 1.6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1-1〉 가구의 주거 특성

단위: 개월, 명		
구분	평균	범위
거주기간	약 7년 3개월	약 8개월 ~ 15년 8개월
함께 거주중인 가구원 수	3.1 명	1 ~ 7 명
자녀 수	1.6 명	0* ~ 5 명

주: 자녀 수가 0인 경우는 임신부임.

조사대상자의 거주 지역은 서울이 44.1%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가 22.0%, 인천이 15.1%로 서울과 경인지역의 응답자가 전체의 81.2%에 달했다.

〈표 III-1-2〉 현재 거주지

		단위: %(명)	
구분	비율(빈도)	구분	비율(빈도)
거주 지역		거주 소재 지역	
서울	44.1(82)	대도시	55.5(111)
경기	22.0(41)	중소도시	11.5(23)
인천	15.1(28)	읍면지역	3.5(7)
대전	8.1(15)	기타	2.5(5)
충북	7.0(13)		
충남	1.1(2)		
대구	0.5(1)		
부산	0.5(1)		
제주	0.5(1)		
전남	0.5(1)		
강원	0.5(1)		

조사대상자 어머니와 그 배우자의 연령과 출생국 그리고 동거여부를 묻는 물음에 대한 응답은 <표 III-1-3>과 같다. 보는 바와 같이 자녀의 부모는 주로 30대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40대, 20대 순이었다.

응답자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40대가 가장 많았으며 30대와 20대가 그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배우자 출생국은 한국과 북한, 그리고 중국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파키스탄인 배우자도 1명 있었다. 동거 중인 배우자가 비동거 중인 배우자보다 많았으나 무응답 비율이 높아 정확한 비율은 가늠하기 어렵다.

〈표 III-1-3〉 가구원 부모의 특성

		단위: %(명)			
구분	나이	출생국	동거여부		
자녀의 부모					
본인	20대	14.6(26/178)			
	30대	49.4(88/178)			
	40대	34.8(62/178)			
	50대	0.6(1/178)			
	60대	0.6(1/178)			
배우자	20대	8.7(10/115)	한국 북한 중국 파키스탄	40.9(47/115) 35.7(41/115) 22.6(26/115) 0.9(1/115)	동거 비동거 84.4(76/90) 15.6(14/90)
	30대	34.8(40/115)			
	40대	50.4(58/115)			
	50대	5.2(6/115)			
	60대	0.9(1/115)			

한편 자녀는 285명 중 211명이 영유아 자녀였으며, 8세 이상인 경우는 74명이었다. 또한 출생국을 살펴보면 7세 이하인 경우에는 남한이 많았고 8세 이상인 경우에는 중국이 많았다.

〈표 III-1-4〉 가구원 특성(자녀)

				단위: %(명)	
구분	나이	출생국	성별	동거여부	
자녀					
7세이하 (211/285)		남한	90.5(171/189)		
		중국	6.9(13/189)	남	52.0(66/127)
		북한	2.1(4/189)	여	48.0(61/127)
		캐나다	0.5(1/189)	비동거	4.8(6/124)
8세이상 (74/285)		중국	46.6(34/73)		
		남한	28.8(21/73)	남	50.0(22/44)
		북한	23.3(17/73)	여	50.0(22/44)
		캄보디아	1.4(1/73)	비동거	7.0(4/57)

나. 가구의 경제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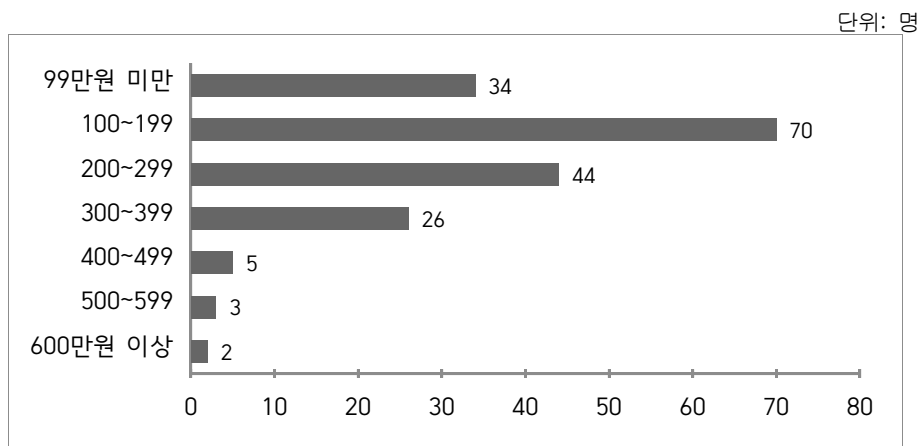
본 연구의 설문에 응한 영유아 자녀를 둔 북한이탈주민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평균 181.7만원이었으며 이들의 미취학 영유아 자녀 1명당 소요되는 양육비는 45.5만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5〉 가구 소득 및 양육비용

			단위: 만원
구분	평균	범위	
월 평균 가구 소득	181.72 만원	0 ~ 800 만원	
미취학 영유아 자녀 월 양육 비용	45.49 만원	0 ~ 200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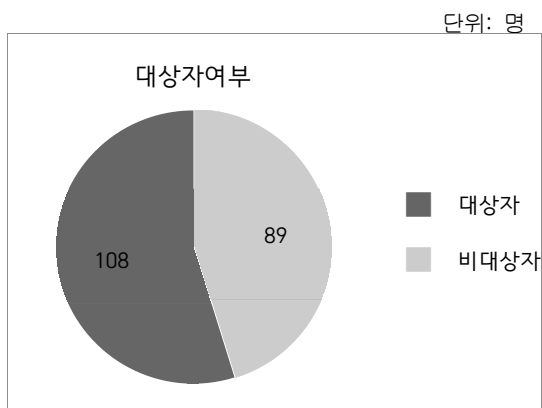
한편 월평균 가구소득을 급간으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 100만원에서 199만원 사이의 소득을 올리는 경우가 가장 많은 70명이었고, 다음으로 월 소득 200만원대가 44명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99만원 미만의 월 소득을 올리는 가구도 34

이나 되었다. 반면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도 전체 응답자의 19.6%인 36명이었다.



[그림 III-1-1] 월평균 가구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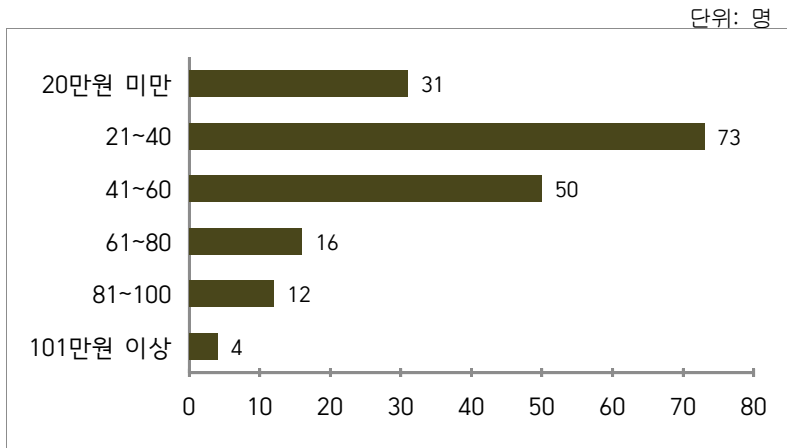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여부를 묻는 질문에 모두 총 197명이 응답하였으며 그 중 과반인 108명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임을 밝혔다.



[그림 III-1-2]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비율

응답자의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일인당으로 계산하여

응답해달라는 문항에 응답자들의 답변을 급간으로 나누어 비교해본 결과 아래와 같이 21~40만원 사이로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41~60만원, 20만원 미만의 순으로 월 평균 양육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1-3] 영유아 자녀 일인당 월 평균 양육비용

한편 이는 자녀양육비용으로 40만원 미만을 사용한다고 보고한 비율이 55.9%로 45.2%라고 보고했던 남한 출신의 영아부모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이정원 외, 2012)와 비교하였을 남한 출신의 부모들에 비하여 자녀 일인당 월 평균 양육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월평균 가계 소득(182.7 만원)에 비하여 적지 않은 비용을 자녀양육에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부모의 취업특성

200명의 응답자들 중 67.5%는 미취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취업중이라고 밝힌 응답자는 전체의 24.5%, 그리고 무응답이 8.0%로 나타났다. 전체의 25%가 채 되지 못하는 취업자의 주당 근무시간은 평균 28.1시간으로 영유아 자녀를 둔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는 대부분 미취업이거나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취업이 50.0%였으며 주당 근무시간은 43.9시간이었다.

〈표 III-1-6〉 본인 및 배우자 근무정보

단위: %(명), 시간

구분	비율(빈도)	구분	평균
본인 취업여부		본인 주당 근무시간	28.1 시간
취업	24.5(49)	본인 출근시간	8시 30분
미취업	67.5(135)	본인 퇴근시간	17시 50분
무응답	8.0(16)		
배우자 취업여부		배우자 주당 근무시간	43.9 시간
취업	50.0(100)	배우자 출근시간	7시 35분
미취업	10.0(20)	배우자 퇴근시간	18시 40분
무응답	40.0(80)		

북한이탈주민의 평균 주당 근무시간은 응답자 본인(어머니)가 28.1시간, 배우자가 44시간으로 배우자가 더 오랜 시간동안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가구소득이 200만원 이상인 집단에서 어머니의 주당 근무시간은 31.3시간으로 22.1시간에 그친 200만원 미만인 집단에 비해 근로시간이 더 많았다. 그러나 소득에 따른 배우자의 근로시간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부모 가정 여부에 따른 근로시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한부모 가정(20.8시간)보다 양부모 가정(33.9시간) 어머니의 근로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7〉 북한이탈주민 평균 주당 근무시간

단위: 시간

구분		본인	배우자
전체		28.1	44.0
입국 시기	00~06년	33.2	41.0
	07~09년	30.4	47.8
	10~15년	13.5	41.2
	계	28.14	43.95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22.1	47.8
	200만원 이상	31.3	43.1
	계	28.4	44.3
기초생활 수급자 여부	대상자	25.1	49.3
	비대상자	29.7	42.2
	계	28.5	44.0
월평균미취학자녀 양육비	40만원 미만	27.4	43.9
	40만원 이상	29.0	44.4
	계	28.4	44.2

(표 III-1-7 계속)

구분		본인	배우자
맞벌이 여부	맞벌이	32.8	42.1
	홀벌이	20.2	44.8
	계	28.1	44.0
한부모 가정 여부	한부모가정	20.8	-
	양부모가정	33.9	45.7
	계	29.6	45.7

취업 관련 정보를 살펴보면 취업 경험이 없는 경우가 44.4%로 가장 많았고 임신 후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는 25.6%였다. 이는 취업 중단 이유에 대한 질문에서 '직접 양육을 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58.7%로 나타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 향후 취업 의향을 살펴본 결과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가 72.6%로 높게 나타났으며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희망하는 직종으로 사무직(31.7%), 서비스직(27.8%)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1-8〉 취업 관련 정보

구분		단위: %(명)	
구분	비율(빈도)	구분	비율(빈도)
취업 중단 시기		향후 취업 의향	
취업 경험 없음	44.4(71)	희망	72.6(114)
임신 후	25.6(41)	비희망	27.4(43)
결혼 후 자녀임신 전	11.3(18)		
출산 후	10.0(16)	취업중인(혹은 희망하는) 직종	
결혼 전	8.8(14)	사무직	31.7(40)
취업 중단 이유		서비스직	27.8(35)
직접 양육을 위해서	58.7(61)	생산직	19.8(25)
건강상의 이유	19.2(20)	기타	20.6(26)
일을 쉬고 싶어서	3.8(4)		
해고	1.0(1)		
주변의 반대	1.0(1)		
기타	16.3(17)		

위의 결과를 남한 영아 부모의 결과(이정원 외, 2012)와 비교해 보았을 때,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은 전혀 취업의 경험이 없는 경우가 44.4%로 남한 출신 어머니들의 3.8%보다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남한 출신 어머니들이나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 공히 직장을 그만 둔 시기를 임신 후 혹은 출산 후

라고 답한 비율이 북한이탈주민 35.6%, 남한 영아 어머니의 경우 37.2%로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어, 북한이탈주민이 직장을 얻기가 어려운 것을 제하면 직장에서의 임신 및 육아관련 특성은 남한 어머니들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9〉 남한 출신 미취업모의 과거 취업관련 특성

		단위 %(명)
구분		비율
과거취업 중단시점	결혼 전에 중단함	38.2
	결혼 후 첫 자녀의 임신 전에 중단함	20.8
	임신 후 중단함	26.3
	출산 후 중단함	10.9
	취업한 적이 없음	3.8
계(수)		100.0(728)
취업중단이유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12.2
	가사·자녀양육과 일을 병행하기 어려워서	64.8
	건강상의 이유로	2.9
	주변의 반대로	4.1
	자녀를 직접 돌보고 싶어서	12.8
	기타	3.2
계(수)		100.0(701)

자료: 이정원 외(2012) 표 IV-1-4에서 발췌함.

실제로 근무하거나 희망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들은 실제로 일주일에 평균 5.1일 근무하며 하루에 평균 7.4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희망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응답자들은 일주일에 평균 5.1일, 하루에 평균 7.1시간을 근무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보다 덜 근무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1-10〉 실제 및 희망 근로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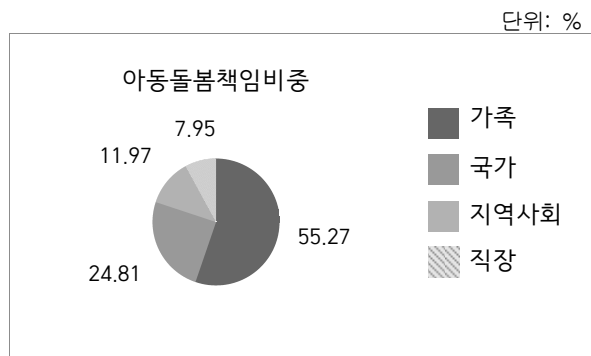
		단위: 일, 시간
구분	평균	
일주일		
희망 근무일	4.9 일	
실제 근무일	5.1 일	
하루		
희망 근무시간	7.1 시간	
실제 근무시간	7.4 시간	

2. 가정 내 자녀양육 실태

본 절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양육 특성, 자녀양육 지원요구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가. 자녀양육 특성

우선 북한이탈주민 가정 어머니들은 아동 돌봄 책임의 비중이 가족(55.27%)에서 가장 높다고 보았으며 그 다음으로 국가(24.81%), 지역사회(11.97%), 직장(7.95%) 순으로 비중을 높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III-2-1] 아동 돌봄 책임의 비중

대부분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어머니들은 아동 돌봄 책임의 비중이 가족에서 가장 높다고 보지만 가구소득과 기초생활 수급자 여부에 따라 상대적 차이를 보였다. 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어머니들(28.96%)은 200만원 이상인 어머니들(16.91%)에 비해 아동 돌봄 책임의 비중을 국가에 더 두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자 어머니들(27.83%) 또한 비대상자(16.91%) 어머니들에 비해 아동 돌봄 책임의 비중을 국가에 더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1〉 가족, 직장(고용주), 지역사회(이웃), 국가의 아동 돌봄 책임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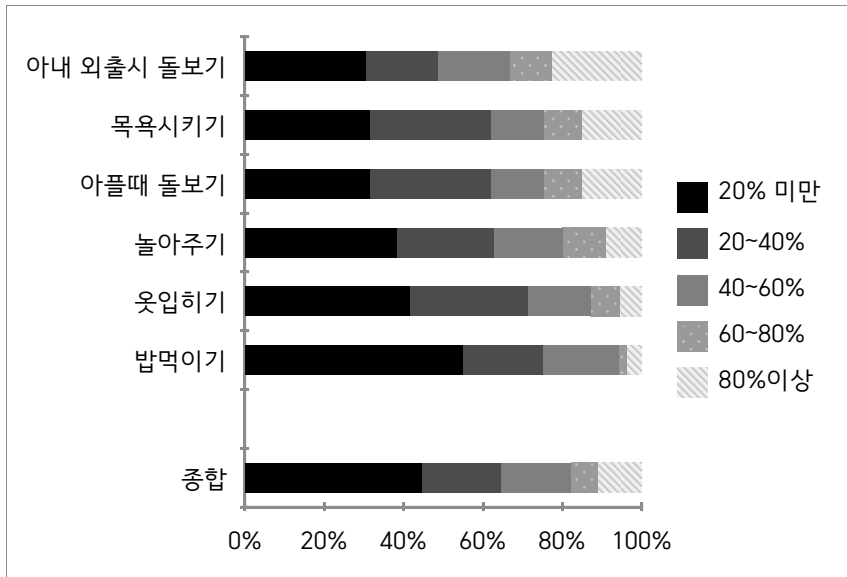
단위: %

구분	가족	직장(고용주)	지역사회(이웃)	국가	계
전체	55.2	8.0	12.0	24.8	100.0

(표 III-2-1 계속)

구분		가족	직장(고용주) 지역사회(이웃)		국가	계
입국 시기	00~06년	54.40	9.40	10.42	25.78	100
	07~09년	57.00	7.28	12.02	23.70	100
	10~15년	54.40	7.55	12.93	25.12	100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49.54	8.36	13.12	28.98	100
	200만원 이상	61.95	9.06	12.07	16.82	100
기초 생활 수급자 여부	대상자	51.93	7.35	12.89	27.83	100
	비대상자	62.72	8.93	11.43	16.91	100
월평균 미취학자녀 양육비	40만원 미만	60.88	6.28	8.19	24.65	100
	40만원 이상	52.10	9.06	14.62	24.22	100
맞벌이 여부	맞벌이	58.50	12.82	8.14	20.54	100
	맞벌이 아님	53.71	8.26	12.53	25.50	100
현재취업 여부	취업	53.40	11.46	10.02	25.10	100
	미취업	57.55	7.3	10.08	25.07	100
취업경험 여부	경험있음	57.50	7.91	8.92	25.66	100
	경험없음	56.50	6.93	12.33	24.24	100
한부모 가정 여부	한부모가 정	53.60	8.26	13.18	24.86	100
	양부모가 정	55.52	8.84	10.84	24.80	100

양육활동에 따른 아버지 양육참여 비율을 알아본 결과 아내가 외출 했을 때 아이들 돌보기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목욕시키기, 아플 때 돌보기, 놀아주기, 옷 입히기, 밥 먹이기 순으로 나타났다.



단위: %, n=134

[그림 III-2-2] 아버지 양육 참여비율

한편 본 연구 설문 결과를 남한 출신 영아 어머니에게 질문한 연구(이정원 외, 2012)와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북한이탈주민 아버지들의 양육역할 분담 비율이 남한 영아 아버지들에 비하여 약간 하회하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으며 내용에 있어서 두드러진 특징은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아버지들이 자녀와 놀아주기를 함께 하는 비율이 남한 출신 아버지들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표 III-2-2〉 부부간 양육역할 분담

구분	단위: %(명)					계(수)
	20% 미만	20~40 %미만	40~60 %미만	60~80 %미만	80% 이상	
① 밥 먹이기	46.8	28.4	16.3	4.3	4.2	100.0(996)
② 옷 입히기	43.0	27.7	20.8	4.6	4.0	100.0(996)
③ 놀아주기	26.1	31.6	24.8	11.2	6.4	100.0(996)
④ 아플 때 간호하기	40.4	23.7	20.2	8.3	7.4	100.0(996)
⑤ 아내 외출시 돌보기	28.4	19.8	21.9	10.7	19.2	100.0(996)
⑥ 목욕시키기	37.7	24.1	21.4	7.5	9.3	100.0(996)
⑦ 종합	34.2	26.3	26.0	9.0	4.5	100.0(996)

자료: 이정원 외(2012) 표 III-2-13에서 발췌함.

배우자가 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정도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배우자들은 대부분 시간이 되는 범위 내에서 자발적으로 양육에 참여(46.7%)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남한 출신의 영아 부모들을 연구한 선행연구(이정원 외, 2012)와 비교하였을 때, 가장 많은 비율로 응답한 항목은 ‘시간이 되는 범위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로 동일했으나, ‘개인적인 약속이나 활동을 포기하며 적극적으로 자녀 양육에 아버지가 참여한다’는 응답은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17.8%가 답해 남한 영아 부모의 4.7%(이정원 외, 2012)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I-2-3〉 배우자의 자녀 양육 참여 정도

단위: %(명)

구분	개인적인 약속 이나 활동 등을 포기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	시간이 되는 범위에서 자발적으로 참여	자녀 양육에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으나 실제로 참여하지 못함	자녀 양육에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이 전혀 없음	계
전체	17.8	46.7	17.8	15.9	1.9 100(107)
남한영아부모 ¹⁾	4.7	46.9	35.5	12.5	0.4
200만원 가구 미만	20.6	44.1	14.7	20.6	0.0 100(34)
소득 200만원 이상	17.6	47.1	17.6	14.7	2.9 100(68)
$\chi^2(df) = 1.74(4)$					
월평균 40만원 미취학 미만	23.1	43.6	17.9	15.4	0.0 100(39)
자녀 400만원 양육비 이상	16.1	43.5	19.4	17.7	3.2 100(62)
$\chi^2(df) = 1.98(4)$					
맞벌이 맞벌이	18.5	44.4	14.8	22.2	0.0 100(27)
여부 맞벌이아님	16.7	47.4	19.2	14.1	2.6 100(78)
$\chi^2(df) = 1.80(4)$					
현재 취업	20.7	48.3	13.8	17.2	0.0 100(29)
취업 미취업 여부	15.6	46.8	19.5	15.6	2.6 100(77)
$\chi^2(df) = 1.50(4)$					

자료: 이정원 외(2012) 표 III-2-14 참고.

배우자가 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것의 적절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적절한 편이라는 응답이 43.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입국시기가 최근일수록 적절하다는

비율이 높은 양상을 보이며 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전혀 적절하지 못하다는 비율이 14.3%로 가장 높았다. 월평균 미취학자녀 양육비가 4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전혀 적절하지 못하다는 응답이 11.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III-2-4〉 배우자의 자녀 양육 참여의 적절성 여부

단위: %(명)

구분		전혀 적절하지 못하다	적절하지 편이다	적절한 편이다	매우 적절하다	계
전체		9.1	25.0	43.2	22.7	100(132)
입국 시기	00~06년	12.9	32.3	41.9	12.9	100(31)
	07~09년	6.4	34.0	36.2	23.4	100(47)
	10~15년	9.3	13.0	50.0	27.8	100(54)
$\chi^2(df) = 9.26(6)$						
가구 소득	200만원미만	14.3	18.4	44.9	22.4	100(49)
	200만원이상	5.2	29.9	41.6	23.4	100(77)
$\chi^2(df) = 4.48(3)$						
월평균미취학자녀양육비	40만원 미만	11.8	21.6	51.0	15.7	100(51)
	40만원 이상	8.0	29.3	36.0	26.7	100(75)
$\chi^2(df) = 4.42(3)$						

배우자가 자녀 양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였더니 직장 일 이 바빠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7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 '자녀 양육은 엄마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응답이 18.2%로 비교적 높았다.

〈표 III-2-5〉 배우자가 자녀 양육에 참여를 못하는 이유

단위: %(명)

구분	직장 일이 바빠기에	평소에 육아에 관심이 없음	자녀 양육은 엄마의 역할이라고 생각	관심은 있으나 아이 돌보기를 어려워 함	다른 가족들이 아이를 돌보기 때문	계
전체	75.5	2.7	10.9	10.9	0.0	100(110)
입국 시기						
00~06년	76.9	3.8	7.7	11.5	0.0	100(26)
07~09년	78.0	2.4	12.2	7.3	0.0	100(41)
10~15년	72.1	2.3	11.6	14.0	0.0	100(43)

$x^2(df) = 1.45(6)$

(표 III-2-5 계속)

구분	직장 일이 바쁘기에	평소에 육아에 관심이 없음	자녀 양육은 엄마의 역할이라고 생각	관심은 있으나 아이 돌보기를 어려워 함	다른 가족들이 아이를 돌보기 때문	계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72.7	0.0	18.2	9.1	0.0	100(33)
200만원 이상	79.2	4.2	6.9	9.7	0.0	100(72)
$\chi^2(df) = 4.23(3)$						
월평균미취학자녀 양육비 40만원 미만	77.3	2.3	13.6	6.8	0.0	100(44)
40만원 이상	73.8	3.3	9.8	13.1	0.0	100(61)
$\chi^2(df) = 4.12(3)$						
맞벌이 여부 맞벌이	75.0	0.0	14.3	10.7	0.0	100(28)
맞벌이 아님	75.0	3.8	10.0	11.2	0.0	100(80)
$\chi^2(df) = 1.40(3)$						
현재취업 여부 취업	76.7	0.0	16.7	6.7	0.0	100(30)
미취업	75.3	3.9	9.1	11.7	0.0	100(77)
$\chi^2(df) = 2.80(3)$						
취업경험 경험있음	80.0	3.6	5.5	10.9	0.0	100(55)
경험없음	72.4	3.4	13.8	10.3	0.0	100(29)
$\chi^2(df) = 1.73(3)$						

자녀를 양육하는 데 가장 큰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하였더니 양육비용이 과다하다는 응답이 69.8%로 가장 높았다. 특히 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가 78.5%, 맞벌이 가정이 아닌 경우가 75.9%, 미취업인 경우가 74.6%로 양육비용이 과다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맞벌이 가정인 경우에 일할 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없는 것(32.3%)과 장시간 노동으로 자녀를 돌볼 시간이 없는(22.6%) 어려움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표 III-2-6〉 자녀를 양육하는 데 가장 큰 어려운 점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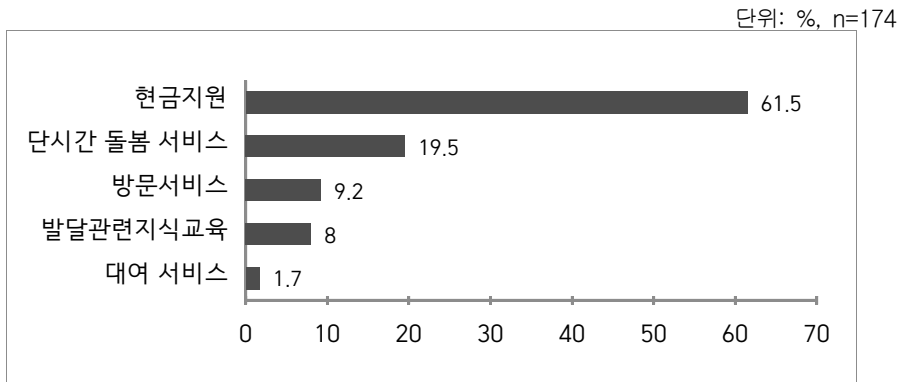
구분	양육비용 과다	일할 때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없음	장시간 노동 등으로 자녀를 돌볼 시간이 없음	기타	계
전체	69.8	18.1	8.8	3.3	100(182)

(표 III-2-6 계속)

구분		양육비용 과다	일할 때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없음	장시간 노동 등으로 자녀를 돌볼 시간이 없음	기타	계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78.5	12.9	7.5	1.1	100(93)
	200만원 이상	57.3	26.7	12.0	4.0	100(75)
$\chi^2(df) = 9.19(3)$						
월평균미취 학자녀 양육비	40만원 미만	65.2	17.4	11.6	5.8	100(69)
	40만원 이상	74.3	17.8	6.9	1.0	100(101)
$\chi^2(df) = 4.71(3)$						
맞벌이 여부	맞벌이	41.9	32.3	22.6	3.2	100(31)
	맞벌이 아님	75.9	14.2	6.4	3.5	100(141)
$\chi^2(df) = 16.16(3)$						
현재취업 여부	취업	47.2	25.0	25.0	2.8	100(36)
	미취업	74.6	16.9	4.9	3.5	100(142)
$\chi^2(df) = 17.0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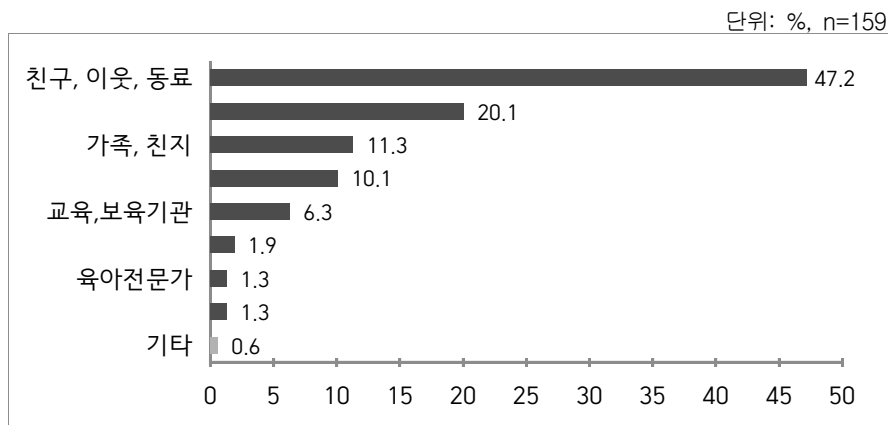
나. 자녀양육 지원

자녀 양육에서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북한이탈주민은 현금지원(61.5)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단시간 돌봄서비스(19.5%), 방문서비스(9.2%), 발달관련지식교육(8%), 대여서비스(1.7%)의 순이었다.



[그림 III-2-3] 자녀 양육에서 가장 필요한 지원

육아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곳으로 응답자들은 친구, 이웃, 동료를 47.2%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그 다음으로 인터넷이 가장 높았는데, 특히 맞벌이 가정이나 취업한 경우에 비율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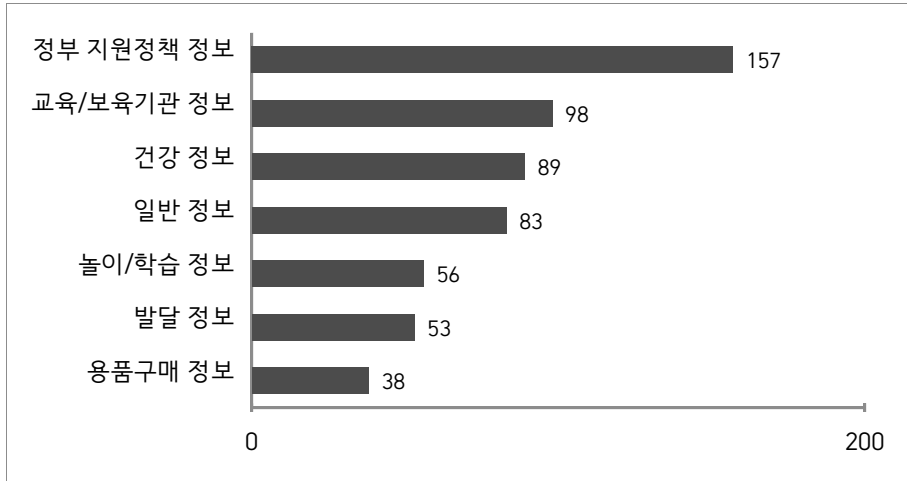


〔그림 III-2-4〕 육아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곳

〈표 III-2-7〉 육아 관련 정보를 제공 받는 곳

단위: %(명)										
	가족·친지	친구·이웃·동료	인터넷(카페, 블로그)	교육·보육기관(유치원, 어린이집)	육아관련전문가(의사, 상담사)	공공기관(육아종합지원센터, 복지관, 동사무소, 보건소 등)	TV, 라디오 등 대중매체	육아관련서적(잡지 포함)	기타	계
전체	11.3	47.2	20.1	6.3	1.3	10.1	1.9	1.3	0.6	100(159)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12.8	51.3	16.7	5.1	1.3	10.3	1.3	0.0	1.3	100(73)
가구소득 200만원 이상	10.6	42.4	27.3	7.6	0.0	6.1	3.0	3.0	0.0	100(66)
$\chi^2(df) = 8.29(8)$										
$\chi^2(df) = 9.09(8)$										
맞벌이 여부	맞벌이	31.0	31.0	17.2	0.0	0.0	3.4	6.9	0.0	100(29)
	맞벌이 아님	10.7	50.8	18.0	4.1	1.3	12.3	1.6	0.8	100(122)
$\chi^2(df) = 23.07(8)$										
현재 취업	11.4	31.4	31.4	11.4	0.0	2.9	5.7	5.7	0.0	100(35)
취업여부 미취업	11.6	51.2	17.4	5.0	1.7	11.6	0.8	0.0	0.8	100(121)
$\chi^2(df) = 19.97(8)$										

자녀 양육에서 가장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 순위를 매기도록 하였더니 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교육/보육기관에 대한 정보, 건강 정보, 일반 정보, 놀이/학습 정보 순으로 나타났다.



주: 가중치가 반영된 결과임.

[그림 III-2-5] 자녀 양육 시 필요한 정보 순위

다음으로 자녀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같은 기관 이용 실태 및 부모교육 실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우선 기관에 대한 인지여부, 이용여부, 만족도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아이사랑(39.1%), 육아종합지원센터(57.1%), 건강가정지원센터(46.1%)에 대해서 모른다는 응답이 들어보았거나 잘 알고 있다는 응답보다 높았다. 특히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 잘 알고 있다는 비율이 11.4%로 나타나 다른 기관보다 낮았다. 이용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용한다는 비율이 건강가정지원센터(79.4%)를 제외한 아이사랑(36.9%), 육아종합지원센터(12.7%)에서 이용하지 않는다는 비율보다 약 2배정도 낮게 나타났다. 만족도의 경우 아이사랑은 대체로 만족한다는 비율이 64.7%,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0%, 건강가정지원센터는 66.7%로 나타나 아이사랑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만족도가 비교적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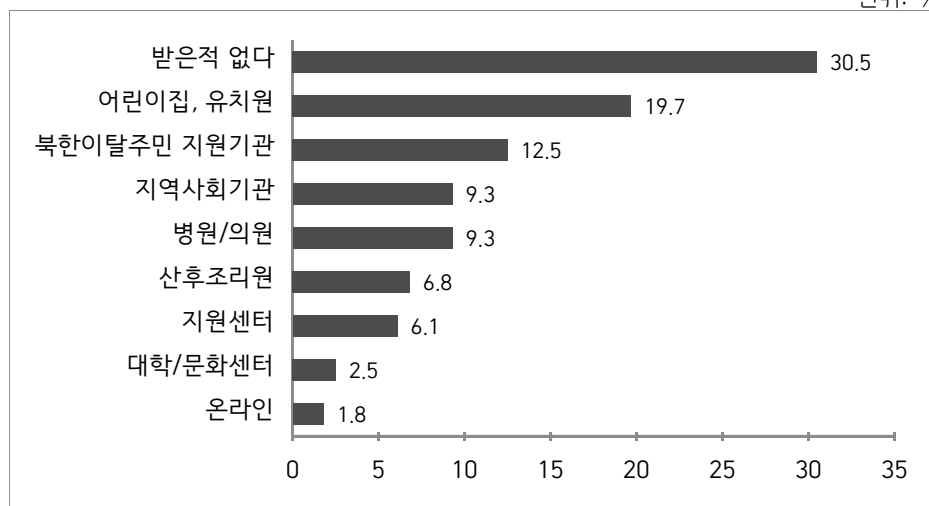
〈표 III-2-8〉 기관에 대한 인지여부, 이용여부, 만족도

단위: %(명)

구분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인지여부			
모름	39.1 (74/189)	57.1 (105/184)	46.1 (83/180)
들어만 봤음	35.4 (67/189)	31.5 (58/184)	33.9 (61/180)
잘 알고 있음	25.4 (48/189)	11.4 (21/184)	20.0 (36/180)
이용여부			
이용하지 않음	63.1 (82/130)	87.3 (110/126)	20.6 (27/131)
이용함	36.9 (48/130)	12.7 (16/126)	79.4 (104/131)
만족도			
대체로 만족	64.7 (22/34)	20.0 (3/15)	66.7 (14/21)
매우 만족	29.4 (10/34)	40.0 (6/15)	14.3 (3/21)
대체로 불만족	5.9 (2/34)	33.3 (5/15)	9.5 (2/21)
매우 불만족	0 (0/34)	6.7 (1/15)	14.3 (3/21)

자녀양육 지원 방법 중 하나인 부모교육을 제공 받는 기관에 대해서 질문하였더니 부모교육을 받은적 없다는 응답이 30.5%로 가장 높았으며 어린이집, 유치원이 19.7% 북한이탈주민 지원기관이 12.5%, 지역사회기관이 9.3%로 나타났다.

단위: %



[그림 III-2-6] 부모교육을 제공 받는 기관

3. 기관 이용 실태

본 절에서는 응답자 자녀의 기관 이용 실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미취학 자녀의 기관 이용실태를 다니고 있는 보육/교육기관, 보육/교육기관 이용시기, 기관 이용 이유, 이용 시간, 낮시간 주양육자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현재 미취학 자녀가 다니고 있는 기관으로 어린이집이 55.8%로 가장 많았으며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27.1%,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가 13.6%로 나타났다. 첫째 자녀보다는 그 후에 낳은 자녀들을 더 늦게 기관에 보내는 것으로 보이며 응답자들은 보육/교육기관 이용 적정 시기를 평균 생후 2년 3개월로 보았다. 기관을 이용하는 이유로 '남한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42.1%로 가장 많았으며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29.3%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낮시간에 주로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은 엄마가 83.4%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자녀의 보육/기관 이용 시간을 하루 평균 8시간이라고 보고하였다.

〈표 III-3-1〉 미취학 자녀 기관 이용실태

		단위: %, 년, 개월, 시간	
구분	비율	구분	평균
보육/교육기관		보육/교육기관 이용시기	
어린이집	55.8	자녀1	생후 2년 6개월
이용안함	27.1	자녀2	생후 3년 6개월
유치원	13.6	자녀3	생후 4년 1개월
대안학교	1.0		
기타	2.5	보육/교육기관 이용적정시기	생후 2년 3개월
기관이용 이유		보육/교육기관 이용 시간	
남한 문화 적응	42.1	하루 평균	8시간
돌봐줄 사람 부재	29.3	등원 시간	9시 14분
가정양육 자신 없음	11.4	하원시간	16시 14분
비용 지원받음	6.4		
기타	10.7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보육/교육기관 이용 특성을 가구소득 수준별로 살펴보면, 소득이 높은 집단일수록 기관을 처음 이용하는 자녀의 연령이 낮았으며(24.6개월), 하루 평균 이용시간은 높았다(8.6시간). 기초생활수급자 여부에 따라서는 비대상자 집단이 자녀를 기관에 처음 보내는 연령이 낮았으며(23.5), 하루 평균 이용시간이 높았다(8.3시간). 이는 가구소득과 상관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맞벌이 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맞벌이인 집단이 자녀를 기관에 처음 보내는 연령이 낮았으며(20.3개월), 하루 평균 이용시간이 높았다(9.2시간). 현재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취업을 한 집단이 자녀를 기관에 처음 보내는 연령이 낮았으며(22.4개월), 하루 평균 이용시간이 높았다(8.8시간).

〈표 III-3-2〉 최근 3개월 동안 낫시간 주 양육자

단위: %(명)

구분	엄마	아빠	친조부모	외조부모	친인척	비혈연 도우미	방과후 학교 등	기타	계
전체	83.4	0.7	1.3	1.3	2.0	3.3	0.7	7.3	100.0(151)
입국 시기	00~06년	97.6	-	-	-	2.4	-	-	100.0(41)
	07~09년	84.6	-	3.8	1.9	1.9	-	5.8	100.0(52)
	10~15년	72.4	1.7	-	1.7	3.4	1.7	13.8	100.0(58)
		$\chi^2(df) = 18.57(14)$							
가구 소득	20만원 미만	87.8	-	1.2	1.2	1.2	-	4.9	100.0(82)
	20만원 이상	75.9	-	1.7	1.7	3.4	1.7	12.1	100.0(58)
맞벌이 여부	맞벌이	71.4	-	-	7.1	3.6	10.7	3.6	100.0(28)
	맞벌이 아님	86.0	0.9	1.8	-	1.8	0.9	8.8	100.0(114)
현재취업 여부	취업	69.4	-	2.8	5.6	5.6	2.8	8.3	100.0(36)
	미취업	88.3	0.9	0.9	-	0.9	-	6.3	100.0(111)
한부모 가정 여부	한부모가정	77.4	-	-	-	1.9	5.7	-	15.1 100.0(53)
	양부모가정	85.2	1.2	2.5	2.5	2.5	1.2	2.5	100.0(81)
		$\chi^2(df) = 11.93(7)$							

* $p < .05$, ** $p < .01$, *** $p < .001$

최근 3개월 동안의 낫시간 주 양육자로 ‘엄마(83.4%)’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7.3%), 비혈연도우미(3.3%), 친인척(2.0%)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각 분류변인에 따라 비슷한 비율로 ‘엄마’를 선택하였으며,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맞벌이인 집단에서 ‘비혈연 도우미(10.%)’를 선택한 비율이 다른 분류변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한편 농어촌지역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김은설 외(2015)의 결과와 비교할 때 아버지의 월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어머니가 주양육자 비율이 낮은 것을 볼 수 있는데,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가구소득이 낮아도 한국 농어촌지역과 달리 아이를 돌보아줄 조부모가 없기에 여전히 어머니가 주양육자

인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표 III-3-3〉 남한 출신의 평일 낮시간 주양육자

단위: %(명)

구분	엄마	아빠	형제	조부모	친인척	비혈연	계
전체	82.4	2.2	1.5	12.6	0.9	0.5	100.0(601)
200만원 미만	69.1	0.9	1.8	27.3	0.9	0.0	100.0(110)
부 월평균 200~300만원 미만	84.1	3.9	1.7	7.8	1.7	0.9	100.0(233)
소득 300~400만원 미만	90.1	0.7	0.7	8.6	0.7	0.0	100.0(151)
400만원 이상	88.3	2.1	0.0	8.5	0.0	1.1	100.0(94)

자료: 김은설 외(2015) 표 V-2-5 평일 가정에서 자녀를 가장 많이 돌보는 사람의 표를 재구성하여 인용.

자녀를 보육/교육기관에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맞벌이 가정인 경우(64.3%)와 취업을 한 경우(67.5%)에 가정 내 양육자의 부재로 기관에 보내는 비율이 다른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III-3-4〉 보육/교육기관 이용 이유

단위: %(명)

구분	가정 내 양육자 부재	가정양육 자신 없음	기관비용 지원 받음	남한문화 적응을 돕기 위함	기타	계
전체	29.3	11.4	6.4	42.1	10.7	100.0(140)
가구 200만원 미만	23.9	10.4	6.0	50.7	9.0	100.0(67)
소득 200만원 이상	37.7	14.8	3.3	34.4	9.8	100.0(61)
$\chi^2(df) = 4.98(4)$						
맞벌이 맞벌이	64.3	17.9	-	14.3	3.6	100.0(28)
여부 맞벌이아님	19.8	9.4	8.5	50.0	12.3	100.0(106)
$\chi^2(df) = 27.08(4)^{***}$						
현재취업 취업	67.6	17.6	-	11.8	2.9	100.0(34)
여부 미취업	15.8	9.9	8.9	52.5	12.9	100.0(101)
$\chi^2(df) = 40.35(4)^{***}$						
한부모 한부모가정	24.4	4.4	11.1	37.8	22.2	100.0(45)
가정 양부모가정	30.5	14.6	3.7	45.1	6.1	100.0(82)
여부						
$\chi^2(df) = 12.44(4)^*$						

* $p < .05$, *** $p < .001$.

반면 김은설 외(2015)에 의하면 남한의 농어촌 지역의 부모들은 자녀를 기관

에 보내는 이유에 대해 가장 큰 이유는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가 57.4%로 가장 높았고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가 19.8%,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19.3% 순이었다.

북한이탈주민 부모는 자녀의 보육/교육기관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요인과 관련해서 각 항목별로 전혀 중요하지 않음(1점), 중요하지 않음(2점), 보통임(3점), 중요함(4점), 매우 중요함(5점)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평균을 구하여 비교하였다. 지리적 접근성(집과의 거리)은 중요한 요소(43.9%)로 나타났다.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소득이 낮은 집단에서는 지리적 접근성을 매우 중요한 요소(48.9%)로 생각하였지만, 소득이 높은 집단에서는 상대적으로 매우 중요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중요한 요소(61.5%)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자녀의 보육/교육기관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요인 중에서 교사의 질(전문성)에 대한 중요도는 매우 높은 것(61.4%)으로 나타나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0.6%에 불과하였다. 특히 맞벌이 가정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비율이 75.8%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녀의 보육/교육 기관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국공립기관 여부는 다른 요소들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중요한 요소라고 선택한 비율이 45.0%로 높게 나타났지만, 다른 요소들과 비교하였을 때 ‘전혀 중요하지 않음(0.6%)’, ‘중요하지 않음(1.8%)’을 선택한 비율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다른 요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고려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겠다.

자녀의 보육/교육기관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요인 중에서 시설, 설비/실내환경(58.2%), 이용 비용(55.3%)에 대한 중요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보육/교육기관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요소와 관련해서 앞서 서술한 요소들 외에 이용 시간(50.0%), 안전관리(68.8%), 부모와의 소통(55.0%), 급식/간식의 질(66.5%), 아이에 대한 관심과 이해(72.2%) 역시 매우 중요한 요소(50.0%)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국공립기관 여부를 제외한 모든 요소들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여겨졌으며 특히 안전관리와 아이에 대한 관심과 이해는 더욱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인 것으로 보인다.

〈표 III-3-5〉 자녀의 보육/교육기관 선택 시 고려사항

단위: 점(만점: 5점)

구분	거리	교사	공립	시설	비용	시간	안전	소통	급식	관심
전체	4.25	4.57	4.09	4.51	4.46	4.35	4.65	4.49	4.61	4.70

(표 III-3-5 계속)

구분		거리	교사	공립	시설	비용	시간	안전	소통	급식	관심
입국 시기	00~06년	4.15	4.59	4.16	4.51	4.37	4.26	4.63	4.47	4.57	4.66
	07~09년	4.26	4.52	4.11	4.49	4.52	4.41	4.66	4.50	4.63	4.68
	10~15년	4.30	4.60	4.04	4.51	4.47	4.37	4.66	4.50	4.62	4.75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4.32	4.58	4.12	4.52	4.54	4.35	4.70	4.49	4.62	4.68
	200만원 이상	4.15	4.58	4.05	4.49	4.38	4.38	4.59	4.49	4.59	4.74
맞벌이 여부	맞벌이	4.33	4.76	4.16	4.39	4.34	4.44	4.53	4.52	4.56	4.80
	맞벌이 아님	4.21	4.52	4.08	4.54	4.49	4.33	4.67	4.48	4.61	4.68
현재취업 여부	취업	4.26	4.69	4.15	4.52	4.54	4.51	4.63	4.54	4.61	4.78
	미취업	4.24	4.52	4.07	4.50	4.43	4.31	4.66	4.48	4.60	4.69
한부모 가정 여부	한부모가정	4.17	4.59	3.98	4.44	4.35	4.25	4.58	4.42	4.47	4.60
	양부모가정	4.18	4.51	4.09	4.48	4.45	4.34	4.65	4.46	4.62	4.72

** $p < .01$.

4. 기관 미이용 실태

기관 미이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자녀를 보육/교육기관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돌보는 이유, 기관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만 자녀를 양육할 시 필요한 지원, 평소 자녀 양육을 위해 활용하는 지역사회 공공자원, 긴급하게 대리양육이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는 곳,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려운 점에 대한 문항을 구성하여 질문하였다.

〈표 III-4-1〉 기관 미이용 실태 관련 문항

구분	문항
기관 미이용 실태	- 자녀를 보육·교육기관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돌보는 이유 - 기관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만 자녀를 키울 때 필요한 지원 - 평소 자녀 양육을 위해 활용하는 지역사회 공공자원 - 긴급하게 대리양육이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는 곳 -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려운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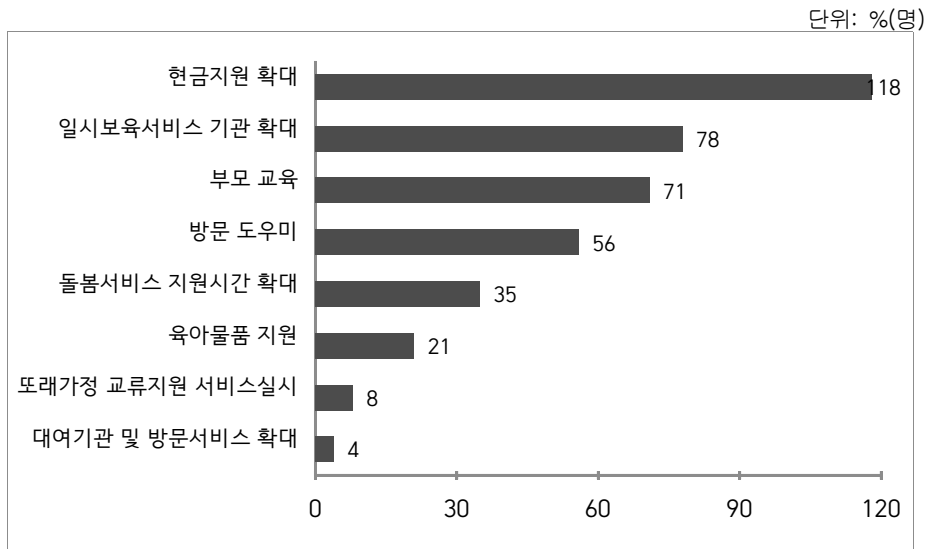
우선 자녀를 기관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돌보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였더니 자녀의 기관적응이 어렵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근처에 보낼만한 기관이 없음', '가정돌봄이 발달에 도움됨'이라는 의견 순으로 많았다.

〈표 III-4-2〉 자녀를 기관에 보내지 않는 이유 순위

문항	1순위	2순위	가중치
자녀의 기관적응 어려움	58 X2	8 X1	124
근처 보낼만한 기관 부재	15 X2	24 X1	54
가정돌봄이 발달에 도움됨	13 X2	21 X1	47
부모와 함께하는 가정교육 필요	13 X2	8 X1	34
기관 이용시간 맞지 않음	10 X2	10 X1	30
가정 내 양육자 있음	2 X2	17 X1	21
양육수당 받기 위함	3 X2	9 X1	15
기타	2 X2	1 X1	5

주: 가중치를 반영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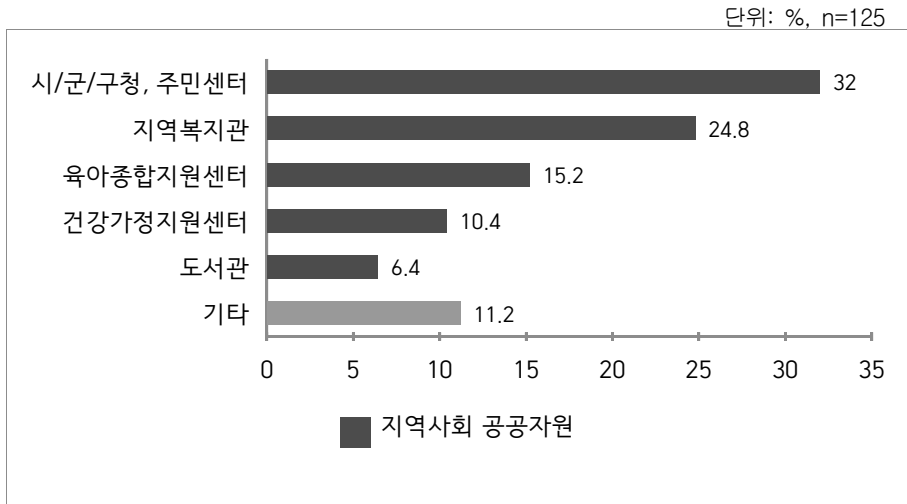
가정에서 자녀를 돌볼 시 가장 필요한 지원 순위로는 현금지원 확대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임시보육서비스 기관 확대, 부모 교육, 방문 도우미 순이었다.



주: 가중치를 반영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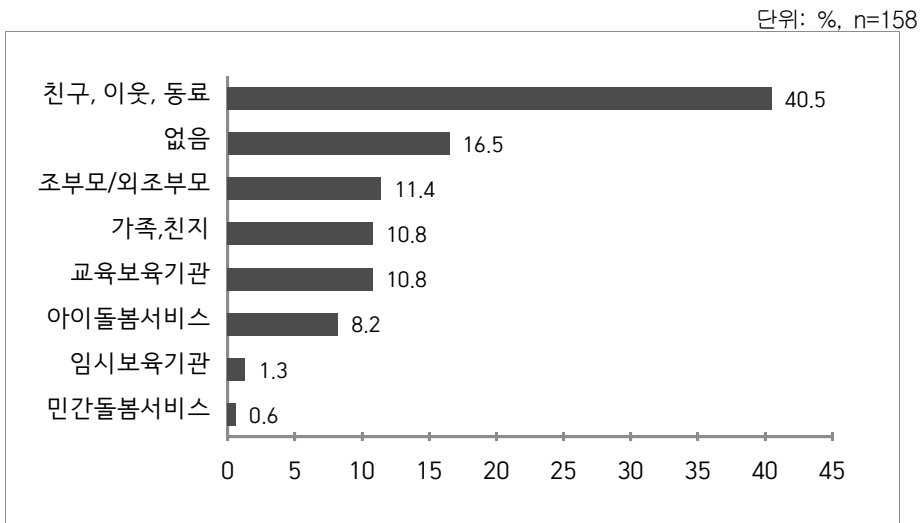
〔그림 III-4-1〕 집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 가장 필요한 지원(1순위)

자녀 양육을 위해 활용하는 지역사회 공공자원으로는 시/군/구청, 주민센터가 가장 많았다.



[그림 III-4-2] 자녀 양육을 위해 활용하는 지역사회 공공자원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긴급하게 대리양육이 필요한 경우 친구, 이웃, 동료로부터 도움(40.5%)을 받는다고 하였다.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경우도 16.5%로 나타났으며 조부모/외조부모 11.4%, 가족, 친지 10.8%로 조사되었다.



[그림 III-4-3] 긴급하게 대리양육이 필요한 경우 도움 받는 사람(기관)

IV. 북한이탈주민 사회집단의 자녀양육지원 실태

연구자들은 영유아자녀를 둔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주요한 주제들을 아래의 <표 IV-1-1>의 내용과 같이 얻을 수 있었다.

<표 IV-1-1> 북한이탈주민의 영유아자녀 양육 실태

	가정	이탈주민 모임	어린이집	지역사회	직장	전달체계
사회 관계망	친척 많지 않음	strong ties	학부모 모임 참여 않음	weak ties	weak ties 그러나 낮은 임금	기대에 미흡
육아정보 획득		주로 의존하지만 체계적이지 않음, SNS 이용	제공되는 정보가 많지 않음	체계적이지 않은 파편적 정보, 지역맘카페		주기적으로 web site 검색
의사소통		교류가 잦음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음	교류가 부족		경찰관이 자주 연락
언론매체	유아용 T.V.	인터넷	아동학대 소식 접함	드라마로 남한 환상		
건강, 안전, 성	먹는 것(모유, 이유식), 건강취약, 혼전임신, 미혼모, 보험	이성교제가 빈번히 일어나고 쉽게 헤어짐	다치지 않고 잘 돌보기만 바람, 아동학대 걱정	선진적 의료 체계, 보다 체계적 결혼 및 성문화, 보험	보험 설계사	의료비 지원

위의 표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인 관계인 가정, 북한이탈주민 모임, 어린이집, 지역사회, 직장, 그리고 전달체계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각각의 5가지 주요 주제가 어떻게 다르게 발현되는 지를 축약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연구자들은 위의 표를 통하여 드러난 5가지의 주요 주제가 북한이탈주민의 주요한 6개의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지 5가지의 주제를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1. 사회관계망

먼저 “사회 관계망”과 관련해서 북한이탈주민들은 단순한 “강한 연결(strong ties)”에만 의존한 사회 관계망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강한 연결이란 Mark Granovetter(1973)가 제안한 약한 연결의 힘(the strength of weak ties)에 나오는 개념으로, 일상적으로 만나는 친밀한 집단의 지인들과의 관계(strong ties)보다, 보다 먼 관계(weak ties)가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 경제적으로도 강한 연결에만 의존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거나 승진의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Granovetter, 1983).

가. 가정에서 사회관계망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 내에 친척이 많지 않다. 함께 온 다른 가족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 북한이탈주민은 가족 중에서 자신만이 홀로 왔다고 답하였다(북한이탈주민9, 2016년 9월 24일 면담, 641-988). 이는 가정 내에서 자녀를 주로 돌보는 이를 묻는 질문에 절대다수인 83.4%가 어머니라고 답하였으며 조부모를 포함한 친인척이 돌보는 경우는 4.6%에 불과하였다. 특히 심지어 맞벌이 가정의 경우에도 친인척이 영유아 자녀를 돌보는 비율은 10.7%에 불과해 북한이탈주민의 친척이 남한에 많지 않은 것이 자녀의 양육을 도울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이다.

〈표 IV-1-2〉 최근 3개월 동안 낮 시간 주 양육자

단위: %(명)

구분	어머니	아버지	친조부모	외조부모	친인척	비혈연 도우미	방과후 학교 등	기타	계
전체	83.4	0.7	1.3	1.3	2.0	3.3	0.7	7.3	100.0(151)
맞벌이	71.4	-	-	7.1	3.6	10.7	3.6	3.6	100.0(28)
맞벌이 여부	86.0	0.9	1.8	-	1.8	0.9	-	8.8	100.0(114)
$\chi^2(df) = 22.38(7)^{**}$									

주: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p < .01.

남편과는 이혼하고 두 자녀를 혼자 키우고 있는 한 북한이탈주민은 계획보다 자녀를 빨리 어린이집에 맡긴 이유를 묻는 연구자에게 “뭐 이유는 일 해야 하

니까, 일하고, 제가 여기 연고가 없거든요. 혼자니까 애 봐줄 사람도 없고”(북한이탈주민5, 2016년 9월 23일 면담, 1274-1443)라고 답해 육아를 도와줄 친척이 없다는 것이 보육기관을 이용하는 이유라고 답하였다.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은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친척이 없기에 아이를 데리고 다녀야 했다고 한다.

저는 맡길 데가 없어서 맡긴 적이 없고 계속 업고 다녔습니다. 저는 맡길 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급할 때 받을 수 있는 아이 돌봄 서비스. 있는데 서류를 떼 오라고 하는 데 제가 그걸 땔 시간도 안돼요. 그래서 일을 하는데 3년째 보상을 못 받고. 본인이 떼어 와야 합니다. 하면 끝이고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워해주는 사람 한명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회사에 말하기도 그렇고. 우리 일하는 한 부모 같은 엄마들은 은행 업무도 봐야하지, 평일에 봐야할 일이 있어요. 그럴 때 가장 안타깝죠. 밀린 일이 엄청 많죠. 못 받는 혜택도 엄청 많고. (북한이탈주민27, 2016년 9월 30일 면담, 7613-82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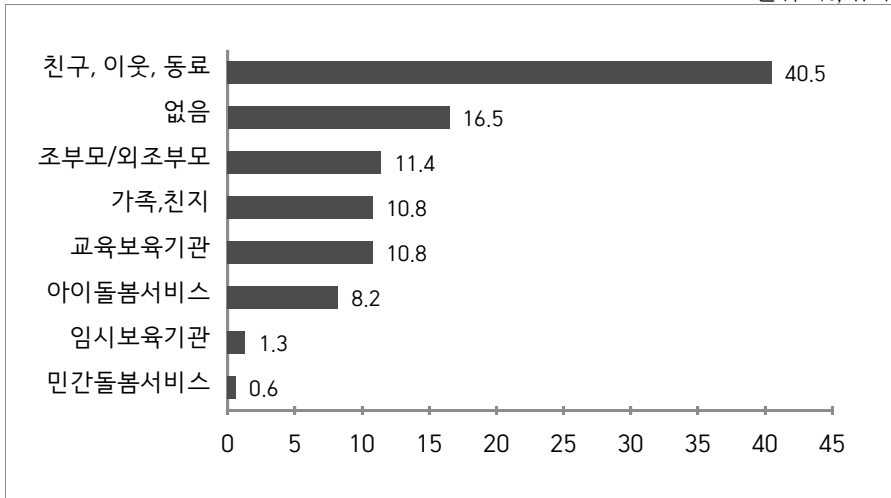
위의 북한이탈주민은 또한, 필요한 증빙 서류 등을 떼지 못해서 지원정책의 혜택을 알고도 신청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보고하였다. 남한에 가족 및 친척이 전혀 없거나 많지 않은 북한이탈주민은 자녀양육에 있어서 이러한 긴급할 경우 돌봄을 부탁할 사람이 드물기에 일시적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 같은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나. 북한이탈주민모임에서 사회관계망

한편 북한이탈주민들의 모임은 사회관계망의 측면에서 강한 연결에 해당한다. 특히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한에 함께 사는 친척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원에서 같이 교육을 받은 같은 “기수”라거나, 다른 경로를 통해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 지인은 친척을 넘어 가족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가 된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또한 긴급 시 도움을 받는 사람을 묻는 질문에 응답한 158명 중 조부모를 포함한 가족과 친지라고 답한 경우는 22.2%인 반면 친구, 이웃, 동료 등으로 답한 경우는 40.5%에 달해 긴급한 경우에도 양육에 친척의 조력보다는 북한이탈주민을 비롯한 이웃에게 많이 의존하고 있음을 알게 한다.

단위: %, n=158



주: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그림 IV-1-1] 긴급하게 대리양육이 필요한 경우 도움 받는 사람(기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언니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언니 집은 **(경기 남부 지역)이 거든요. 그래서 그 언니가 어쩌다 집에 놀러왔을 때는 괜찮고, 뭐...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딸)이 어릴 때는 제가 택시타고 개를 업고 갔었고 @@(아들)이가 좀 많이 앓았었어요. 옛날에는, 혼자 때는 앓아도 괜찮았는데, 다행히 **이가 지금 앓지는 않습니다. 한번은 장염이 와서 앓았는데 제가 급해서 나을 만에 퇴원을 했어요. 그니까 재 때문에 그때는 언니가 와서 했는데 솔직히 언니도 환자예요. 척추수술만 해도 두 번을 받았고 그래서 제가 많이 미안하죠. 그래서 솔직히 힘들죠. 근데 지금은 알았어요. 그런 돌보미들이 있더라고요. 장애아이를 돌보미. 만약에 바쁘면 거기에 전화해서 맡기려고요. (이탈주민4, 2016년 9월 27일 면담, 15494-16120)

친한 북한이탈주민 지인이 본인도 허리가 아픈 환자임에도, 그리고 그런 환자 지인에게도 미안함을 무릅쓰고도 서울 북부지역에 사는 북한이탈주민이 경기 남부에 사는 그 지인에게 도움을 청한 것이다. 이들이 이처럼 친척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점에 대해 한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사람들 보면 한 사람들 건너서 친구니까, 좋아요를 누르면 거의 다 보게 되는 거죠”(이탈주민6, 2016년 9월 27일 면담, 11545-11810)라고 말해 북한이탈주민이 자신의 강한 연결을 통해 더 많은 다른 북한이탈주민들과도 강한 연결을 크게 확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이탈주민의 강한 연결을 바탕으로 몇 몇

북한이탈주민이 보험 설계사로 일하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이 생계비가 빠듯한 상황에서도 보험을 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 어린이집에서 사회관계망

한편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사회관계망을 형성하고 있지 못했다. 어떤 북한이탈주민은 직장문제로 다른 학부모들과 만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저는 워낙 바쁘게 일을 하고 또 하기 때문에 아이의 뭐 소풍이나 이런데 단 한번도 따라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엄마들하고 친해질 사이가 없었던 거죠. 아마 아이 소풍 가는데 한번이라도 제가 따라갔으면 그 엄마들하고 어울릴 시간을 가졌을 텐데, 그런 시간조차 저는 없어가지고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어린이집에 애를 데리러 가면 그 애들이 말해요. ‘제가 **이 엄마다.’ ‘@@ 엄마다.’ 애들은 자기 애들 그 동무들 이름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연락을 주고받거나 그 엄마가 대하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탈주민26, 2016년 10월 4일 면담, 5945-6482)

어떤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는 자신의 말투, 사투리가 드러날까봐, 언어적인 문제로 어린이집에서 다른 학부모 모임에 참석을 꺼리는 경우도 있었다.

도움은 받겠죠. 받는데 내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재 친구들 부모들도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머 말투가 이상하시다. 외국인인가. 하는 뭐. 재를 입학할 때 원장님하고 숨기지 않고 얘기했어요. 저 북에서 왔어요. 얘기 했어요. 아 그래요 뭐 원장님은 그거는 상관없으니까. 근데 제가 조금 꺼려하는 거는 재 친구들, 부모들 어차피 부모교육 받으면 한자리에 앉아야 하잖아요. 전 이 그런 건 잘 모르고 뭐 얘기하려면 너무 말투가 그러니까 주저하게 되고 그런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모임에 잘 안가요.(웃음) (이탈주민5, 2016년 9월 23일 면담, 22439-22923)

이와 같은 이유들로 북한이탈주민들은 어린이집을 통한 사회관계망에서 약한 연결을 형성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라. 지역사회에서 사회관계망

지역사회 역시 대표적인 약한 연결이 가능한 공간이다. 그러나 지역에서 남한 출신의 어머니들과 함께 모임을 갖거나 하는 경우가 있냐는 연구자의 질문에 남한에 입국한지 7년 된 한 북한이탈주민은 아래와 같이 답하였다.

<답> 모임은 없고 그냥 놀이터에 나가면 놀이터에서 주로 조금씩 주고 받고 그 정도. 아직은 모임까지는...

<문> 친하고 서로 어울려서 활동 하시는 분은 없고...

<답> 네네. 그거는 아직은 없어요.

<문> 얼굴보고 아시는 정도.....

<답> 네네 .아직은.

(이탈주민3, 2016년 9월 23일 면담, 4386-4619)

이처럼 지역에서 또래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어머니들과 간단한 인사만 나눌 뿐 함께 모임을 갖거나 하지는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이탈주민이 같은 북한이탈주민들과는 쉽게 만나서 어울리고 관계 형성이 빠른 데 비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는 쉽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마. 직장과 사회관계망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에서 직장을 구할 때, 고용지원센터의 도움을 받거나, 남북하나재단이나 북한이탈주민이 자주 가는 홈페이지에 소개되는 공고 등을 보고 구직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 건 본인이 내가 구직하겠다고 고용지원센터에 가서 등록을 하면 조금 도움이 되는데 처음에 하나원 나와서 남양주에 있을 때, 고용지원 센터는 의정부 쪽에 있더라구요. 저는 제 발로 찾아가서 집 근처에 찾아주세요 해서 찾아서, 하루 만에 일을 했었거든요. 본인이 직접 찾아가서 어떤 일 하고 싶습니다. 하고 체크 해서 마치면 그에 대한 일자리 정보랑 이런거 해서 알려주는데 본인이 가서, 그런데 신청을 안하면 그사람들이 맹목적으로는 어떻게 해라 이런 거는 없는 거 같아요. (이탈주민3, 2016년 9월 23일 면담, 23613-24068)

아 그거는 새터민 쉼터라고, 새터민 쉼터에 남북하나재단이랑 이렇게 채용 공고가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보고, 그 채용공고 그게 다 뜨거든요. 전국적으로 이런 거 각 지역별로. 서울이면 서울, 경기면 경기, 인천이면 인천, 거기거 보고 갔었거든요.(웃음) 요즘 직업에 관한 건 여기서 다 보고 있거든요. (이탈주민3, 2016년 9월 23일 면담, 24188-2448)

면담에 응한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북한이탈주민 출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는 없었다. 따라서 사회관계망 측면에서 볼 때 약한 연결을 통한 구직활동이 대다수임에도 많은 북한이탈주민은 단순노동이나 임시직에 그쳤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육아문제로 주당 40시간 이상 전업으로 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회사마다 다르긴 다른데, 제가 다녔던 회사는 아침 10시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졸더라고요. 애도 9시? 조금 넘어서 집 가까이 뒤도 슬슬 가면 한 30분, 그 정도 거리밖에 안됐거든요? 그러면 저녁이 문제예요. (이탈주민5, 2016년 9월 23일 면담, 11002-11208)

이는 설문지의 응답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전체 응답자 평균 주당 28.1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3〉 근무 시간 정보

		단위: %(명), 시간	
구분	비율(빈도)	구분	평균
본인 취업여부		본인 주당 근무시간	28.1 시간
취업	24.5(49)	본인 출근시간	8시 30분
미취업	67.5(135)	본인 퇴근시간	17시 50분
무응답	8.0(16)		

주: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이로 인해 비록 약한 연결로 구직활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직장에서 받아야 하는 임금은 정규직의 그것과는 다르다.

바. 전달체계와 사회관계망

북한이탈주민들은 거주지를 배정받은 후 권역별로 23개가 있는 지역하나센터를 통해 지역적응교육을 받는다. 또한 초기 정착 5년간은 거주지 보호를 받는데 거주지 보호담당관, 취업 보호담당관, 신변 보호담당관이 지정되어 생계 및 의료급여를 지급 받거나, 취업 및 신변보호 등에 지원을 받는다. 그러나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초기 정착 시에는 하나센터의 연락이 취해졌을지 모르겠으나 시간이 지난 뒤 잘 이용하지 않게 되고, 따라서 이들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지내지는 못하는 것이다.

<답> 저는 여기가 거주가 원래 남양주 쪽이다 보니까, 포천 쪽에 하나센터 있었어요. 그때 거기 다니고서는 전혀 하나센터 쪽은 아예 이제..

<문> 자기 거주지 쪽에만 이용해야 하나요?

<답> 그런 거는 아닌 거 같아요. 저도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문> 별로 필요성을..

<답> 네. 이제는 적응이 되다 보니. 거기에. (웃음) 그렇게 되더라구요. (이탈주민3, 2016년 9월 23일 면담, 3532-3853)

특히 북한이탈주민은 남북하나재단 그리고 하나센터의 역할에 의구심을 표하며 이들에게 들어가는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결국 북한이탈주민에게 배정된 예산을 그들이 나누어 사업을 하고 있다는 불신을 보였다.

네 그 많은 돈이 솔직히 말해 노골적으로 우리 그러거든요. 남북하나재단 일 년 예산이 몇 억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북한 사람에게 차려지는 게 얼마가 있냐. 거기에서 운영하고 쓰는 돈이 더 많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 들어보면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뭐 남북하나재단을 이용해서 북한사람에게 아프면은 뭐 그런게 또 있어요. 남북하나재단의 의료비 지원 신청이라고, 내가 치료를 7백만원 받았다고 하면 병 상태에 따라서 몇 프로 돌려받고 몇 프로 돌려받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돈이 그렇게 들어와서 다시 우리에게 온다해도 그 사람들이 결국에 다... (이탈주민3, 2016년 9월 23일 면담, 47631-48190)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이탈주민을 돕기 위한 하나센터의 전문상담사들이 있음에도 그들과 개인적인 교류를 하거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었다.

<답> 도움이라기보다도 크게 기대를 안 하게 되요. 차라리 인터넷 검색해서 나 혼자 검색해서 이렇게 알게 되고 도움 받으면 좀

<문> 잘 모르시나요? 하나센터 상담사분들이 이런 내용은?

<답> 전 아직 상담사들하고 크게 얘기 안 해봤어요. 이번에도 이거 하면서 저도 누구 소개해주니까... 애를 키우니까 큰 도움은 없어도, 이런 도움을 반영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걸 상담사한테 연락해봤자 크게, 상담사들하고 이 러쿡저러쿡... (이탈주민5, 2016년 9월 23일 면담, 17729-18221)

반면, 지원정책의 전달체계 속에서 만난 상담사와 개인적인 인연을 맺고 이들과 지속적인 관계가 형성된 경우도 있었다.

그때 그 선생님이 왔는데 내가 좀 힘들었나봐요. 그래서 선생님 오니까 내가 눈물을 흘렸어요. 이 선생님이 우울증이 심하다는 걸 알고 다문화센터 상담사 연결을 시켜주더라고요. 제가 정기적으로 한 주에 한 번씩 가정방문하셔서 상담을 해주시는데 그 선생님이 정보를 줄 때마다 금을 주는 것보다 좋은 거예요. 대한민국에 이런 기관도 있네. 이러면서 한국을 알게 되고, 누군가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푸드마켓에 연결도 해주고, ***(충청남도 지역)에 있을 텐데 그 선생님이 지금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일을 하시는 데 또 전화가 오더라고요. 지금도 연락하고 서울로 이사 왔더니 왜 갔냐고 그러고. 또 보건소에서 암 관리하시는 선생님들이 좋은 정보도 주시고 영양플러스 라는 것도 연결을 해주셨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나쁘게 봤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인간적인 사람이 더 많더라는 거죠. (이탈주민2, 2016년 10월 1일 면

담, 2903-3678)

이와 같이 지원 정책을 이용하는 중에 만난 상담사와 개인적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고, 상담사가 다른 기관으로 자리를 옮겨도 지속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을 돕는 관계로 발전하여 남한에 정착하는 데에 큰 도움을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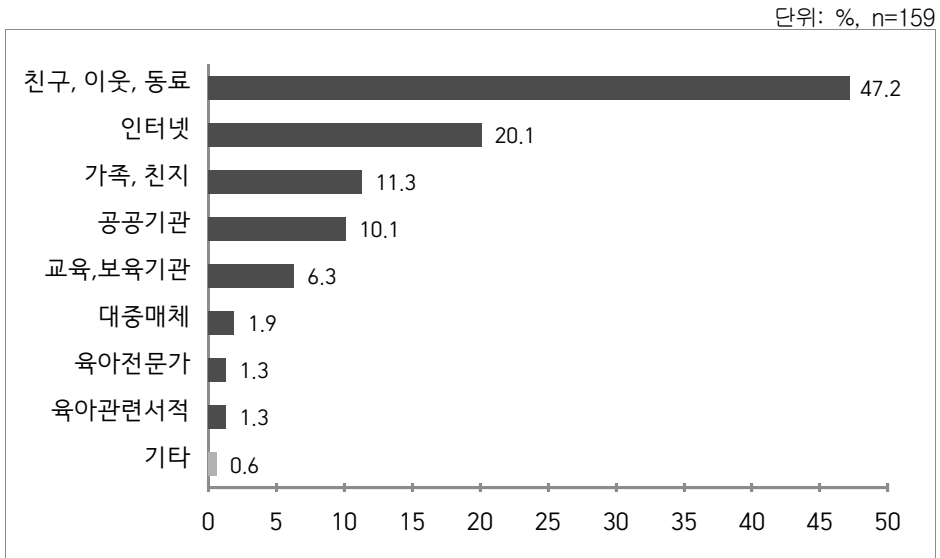
이탈주민이 맺고 있는 사회 관계망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단순한 강한 연결 중심의 사회관계망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서먹하고 서로 간에 오해가 있어서 불편할 수도 있는 관계일지라도, 적극적으로 사회 관계망 형성에 나설 필요가 있다.

2. 육아정보 획득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의 제도와 환경에 익숙하지 않다. 그렇기에 육아를 위한 정보가 특히 더 필요한데, 육아와 관련된 정보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제공되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이는 사실 남한 출신 어머니들에게도 매년 새로이 변경되는 관련 정책이 관련된 다양한 부처에서 진행될 뿐 아니라 이에 따른 규정들을 알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저는 여기 사람들과 똑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남북하나 재단에 저 처음에 애기 낳아서 산후도우미 할 때도 남북하나재단 사이트 보고 거기에서 전화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딱 보니까 . 1월 달까지 제가 삼월에 낳고 제가 이월 달에 신청을 했었거든요? 애를 낳으면 산후도우미를 쓰겠습니다. 남북하나재단에 있다고 해서 공지 떠서 신청을 했는데, 그때 1월 달인지 뭐 이런 걸로 해서 재정 지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탈주민3, 2016년 9월 23일 면담, 46218-46634)

위의 사례와 같이 운영되고 있었고, 홈페이지에 공고까지 게시되어 있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제도가 바뀌었다고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그림 IV-2-1] 육아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곳

한편,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북한이탈주민에게 육아관련 정보를 제공 받는 곳을 물어보았다. 설문에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47.2%) 친구와, 이웃, 동료라고 응답하였는데 이를 각 영역별로 면담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 북한이탈주민들로부터 육아정보 획득

북한이탈주민은 육아와 관련된 정보를 다른 북한이탈주민을 통해서 주로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탈북자들이죠. 그리고 인터넷에서 어린이집 찾기, 아니면 집 주변 찾기 눌러서 다행이 있더라고요. 여러 곳에 전화도 많이 해봤어요. 우리 **(**)이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행히 북한에서 왔다 뭐 탈북자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다행히 되더라고요. 다 어린이집 보게 되면 인원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한 아이가 이사를 가면서 자리가 비어가지고. 다시 전화가 왔더라고요. 처음엔 안됐는데 안됐어요. 기다리라고, 그런데 자리가 났는데 오겠냐 물어봐서 가겠다고 (이탈주민4, 2016년 9월 27일 면담, 3157-3603)

위의 경우와 같이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한 정보도 다른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를 통해서 전해 듣고, 필요한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도 전해주기도 한다. 특히 주민센터를 비롯해 통일부 산하의 하나센터, 복지부 산하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여성부 산하의 건강가정지원센터, 경찰서 신변보호담당관 등 다양한 전달체계가 각자의 업무 영역을 벗어난 정책에 대한 숙지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입장의 북한이탈주민이 전해주는 정보가 정말 긴요하고 필요한 경우가 많다.

언니는 6월 25일 생이고. 언니가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뭘 모르면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고 특히나 한부모 같은 경우에는 애들 8개월 까지가 분유나 기저귀나 이런 게 제공이 되더라고요. 저희는 아예 그런 지식이 없으니까 아예 정보를 몰랐죠. 그거를 동사무소에서 원래 알려줘야 되는데 동사무소에서 안 알려주더라고요. 저희가 정보를 알면 알아서 찾아봐라 그런 식이니까 그게 되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언니가 임신이 돼서 다른 사람한테서 그걸 알아서 저한테도 그런 혜택을 받았나? 물어봐서 저는 아예 모른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고 제가 아는 동생이 제가 아는 정보를 얘기 해줬어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가서 물어보니까 본인이 모르면 어떻게 해줄 수 없다. 본인이 알아서 찾으라고 얘기해서 기분 나빠서. 이런 거는 저희가 정보가 없잖아요. 알아서 좀 챙겨줬으면 저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영양플러스 같은 것도 동사무소에서 안 알려줘요. 이것도 다 지인들 통해서 이런 것도 있다. 이런 것도 혜택이 되나 한번 물어봐라 해서. 저는 영양플러스 아예 몰라서 기간도 놓치고. 저는 한부모라고 해도 이런데서 제공되는 것들을 아예 하나도 못 받았어요. 이런걸 알면 찾아가서 물어 보고 할 수 있겠지만 아예 모르니까 그런데 주변에서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탈주민28, 2016년 9월 28일 면담, 3947-5100)

물론 주민센터 직원 개인의 성품의 문제일 수도 있으나, 다양한 부처의 지원정책을 잘 알지 못해서 전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전달체계에 모든 것을 의존하고 알아서 해주겠거니 기다려서는 필요한 정책의 지원을 잘 받을 수가 없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이 제공하는 정보는 필요한 시기보다 늦게 전달되는 경우가 많다. 위의 사례처럼 이미 정책에 해당하는 시기가 지난 뒤에 “왜 그런 정책의 지원을 받지 않느냐?”고 묻는 경우처럼 뒤늦게 전달되는 경우가 많다. 아래의 사례는 전문가가 아닌 북한이탈주민이라는 강한 연결이 주는 정보가 제한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문>양육에 관련된 정보는 주로 어디서 얻으시나요?

<답> 주변에 언니라거나. 네 아는 언니 저 가족이 없어서 아는 언니인데 되게 친하게 지내서.

<문> 그 언니는 하나원에서 알게 된 언니인가요?

<답> 그 언니는 중국에서 예전에 알고 지내던 언니인데 먼저 한국에 왔고 언니

가 이렇게 브로커를 해줘서 넘어오게 됐어요.

<문> 언니가 보육포탈이나 이런 건 안 알려줬나요?

언니도 몰라요. (이탈주민28, 2016년 9월 28일 면담, 3345-3684)

나. 어린이집/유치원으로부터 육아정보 획득

북한이탈주민들은 유치원보다 어린이집을 선호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어린 연령부터 어린이집을 보내기에 굳이 유치원으로 옮기려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유치원의 운영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서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또 자부담 비용이 유치원이 더 많은 경우들이 있어서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다양한 이유로 북한이탈주민 면담자는 대부분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 자녀를 둔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장 친근하게 자주 접할 수 있는 기관이다. 이런 곳에서 부모들에게 체계적으로 육아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이고, 실제 그렇게 운영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그렇지 않았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와서 보면 육아에 대한 정보를 주는 데가 솔직히 없어요. 받을 데도 없고 어딜 가서 물어볼 데가 없어요. 어린이집에 물어보면 어린이집은 자신의 어린이집에 좋은 얘기만 하지 무슨 부모교육 같은 건 안 해주잖아요. (이탈주민27, 2016년 9월 30일 면담, 22636-22858)

위의 사례처럼 어린이집에서 행하는 부모교육을 경험했냐는 질문에 실제 어린이집에서는 부모교육을 종종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는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는 부모교육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에서 육아관련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을 기대도 하지 않고 있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역시 육아관련 정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제공받겠다고 답한 경우는 6.3%에 불과했다 (그림 IV-2-1 참고). 이는 교사와의 면담을 통해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는데, 반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한 명 돌보고 있는 어린이집 교사는 북한이탈주민 부모님들과 그 자녀의 특별한 요구에 대해 물었을 때,

아니요. 없어요. 그냥 보통 아이들이랑 똑같고 어머니도 특별하게 한 게 없는데. 요구 자체가 없으세요. 그냥 아이들이랑 싸우지 않고 잘 보내고 잘 수업하고 그런 거. 똑같이. (어린이집교사1, 2016년 9월 30일 면담, 14957-15145)

라고 대답하여 북한이탈주민 부모들을 어떻게 도울지, 그 이전에 이들이 무슨 요구가 있는지를 알지 못했다.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은 자신들의 역량으로 인

해 북한 출신임이 드러날까봐, 그로 인해 자녀가 또래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거나 교사로부터 차별적 대우를 받을까봐 소극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에도, 교사는 그저 단순히 부모가 요구가 없다고 치부한 것이다. 한편, 북한이탈주민들 사이에서 좋은 어린이집으로 잘 알려져 다섯 명의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재원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원장 역시 구체적으로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들 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안내를 이들에게 하고 있음을 전했다.

어느 센터를 제가 연결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그랬을 경우에 한국 부모들은 무료 법률 자문 같은 그런 것들을 ***(인천 지역)에 그런 데가 있거든요. 거기는 일단은 기초수급이라고 해야 하나? 그 부모님들 우선이고 그런 아이들 먼저잖아요. 그런 데를 소개해드리면 전화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연계해서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린이집원장1, 2016년 9월 30일 면담, 5729-6103)

다. 지역사회로부터 육아정보 획득

북한이탈주민은 지역사회의 남한출신 어머니들로부터 육아정보를 얻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주요한 정보제공자가 아닌 경우에는 체계적이지 않은 파편적인 정보를 얻는데 불과하다. 한 북한이탈주민은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했는데 함께 대학원에 다니던 동기들이 어린이집 원장인 경우여서 그들로부터 육아정보를 많이 얻었다고 한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는 동네 놀이터에서 잠깐 만나서 얻는 정도의 얇은 정보교환일 뿐 주요한 정보는 대부분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얻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네. 그런 카페가 있더라구요. 보니까 우리 애는 돌 지나 났어요, 뭐 이런거 있으니까 제가 궁금한거, 어, 애가 구개월이 되었는데 이가 아직 안나요, 하면 답변글이 오더라구요”(이탈주민10, 2016년 9월 24일 면담, 21599-21770). 특히 지역 구분없이 운영되는 인터넷 카페들도 있지만 지역에 특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지역 맘카페의 경우 더욱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

인터넷 들어가 보고 카페 같은 데 가보면 엄마들이 그 이제 뭐 어디가 괜찮다 추천해주는 게 있더라구요. 조금 여기 근처에도 있긴 한데 그래도 조금 먼데 여기도 괜찮다 싶어가지고 그쪽으로... (이탈주민43, 2016년 10월 7일 면담, 1196-1383)

그냥 댓글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동네에 산다.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막, 여기가 제일 유명해요. 네이버에 맘스홀릭베이비라고 카페가 있어요. 여기에 글을 올리면 엄마들이 거기가면 안 되요. 그러면서 조언을 주는거죠. (이탈주민 6, 2016년 9월 27일 면담, 1658-1872).

이처럼 남한 출신 부모들과 어울리는 데 부담을 느끼는 북한이탈주민 부모들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자신이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다양한 정보를 얻고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생소한 웹사이트를 처음 접속해서 회원가입과 정보를 취득하는 과정이 말처럼 그리 쉬운 것만은 아니다. “컴퓨터는 뭐 하나원에서 있을 때부터 배워서 나왔으니까 그런 거는 괜찮는데, 어떤 어떤 거, 무슨 사이트가 있는지를 모르죠”(이탈주민5, 2016년 9월 23일 면담, 16579-16698). 컴퓨터의 기본적인 사용법은 알고 있겠지만, 인터넷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배경지식이 필요한데 그런 지식의 부족과, 자신의 필요와 해당하는 정책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검색이 가능한데 이런 검색을 하기 위한 정보도 부족한 경우가 많다. 특히 각종 사이트마다 회원가입을 하는 것은 컴퓨터가 익숙치 않은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엔 어려운 일이다. “사이트에 들어가서 찾는 건 찾는 건데 제대로 접속도 안되고 힘들더라구요. 뭐 또 거기다가 가입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접속이 너무 안되더라구요”(이탈주민26, 2016년 10월 4일 면담, 29212-29358).

한편, 이러한 인터넷을 통한 지역사회의 정보를 얻는 데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복지학 석사과정을 졸업한 북한이탈주민은 멘토-멘티 맺기와 같은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다.

남한 엄마가 멘토가 되고, 북한엄마가 멘티가 되가지고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못하면 둘이라도 정보를 교환 해주고 좀 이런데 대해서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남한 엄마들은 많이 잘 알잖아요. 남한 엄마들이 멘토를 좀 많이 키워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북한 엄마들한테 한 사람씩 멘티. 멘토멘티사업이 중요한 거 같아요. 정부에서. 교육을 시켜서 좀 잘 정착을 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이런 이런 사이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이럴 때는 어떻게 말하면 이러면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다는 정보를 좀 제공해주면 그러면 엄마들도 거기에 대처해서 일 할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겠나. (이탈주민26, 2016년 10월 4일 면담, 33527-34121)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육반장 제도와 같은 취지로, 특별히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남한 출신의 육아선배가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멘토가 되어서 그의 필요에 맞는 정책을 소개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라. 전달체계로부터 육아정보 획득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 대부분 남북하나재단(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웹사이트는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맞춤형 정책은 이 곳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수시로 직업 공고도 나오기 때문이라고 한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그 지원재단은 북한사람들이 지원센터는 들어가 보지는 않고요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은 그래도 많이 들어가 보더라고요. 공지들이 많이 뜨니까. 거기서 그런걸 알려 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의 정보가 될 것 같기도 해요. (이탈주민6, 2016년 9월 27일 면담, 10380-10624)

한편,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정책은 아니지만 다문화지원센터의 상담사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 받은 경우가 있었다. 북한이탈주민은 다문화지원 대상은 아니지만 이후 상담사가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옮기면서 지속적인 지원을 받은 경우이다.

나는 그 다문화 상담사 선생님이 많이 주셨어요. 서울에 와서 많이 받은 건 없지만. 그때는 하나센터에서도 애들 문화센터에서 노는 그런 것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도시마다 다르니까 시스템이. 여기 와서는 아직 받은 게 없고. (이탈주민2, 2016년 10월 1일 면담, 6826-7080)

많은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이 보건소의 영양플러스 사업에 대한 만족을 표했다. 덩달아 영양플러스 사업에 참여하며 보건소를 통해 자연스럽게 정보를 얻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기저귀도 신청했어요. 기저귀도 신청했고 첫째 때는 몰랐고 둘째 낳으면서 그런데 주변에 애들이 이렇게 있다. 하니까 그러고 보건소도 가고 그런거 내가 얘기하고 싶은거 그거예요. 내가 그런거 모르고 있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 그러면 그런 걸 어떻게 빨리 이렇게 좀 알려줄 수 있는...하나원에서 라던지 이런데서 또 나가면 이런 일을 다 알려줄 수는 없겠죠. 물론. 제 바람은 그거예요. 애 키우는 거...현장에서는 이런 보건소에는 이런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영양플러스 라던가 기저귀라던가? 이것을 몰라서 혜택 못 받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주변사람들이...그런 거 보면 하나원이나 아니면 하나센터 이런 데서는 그런 것도 배우고 (이탈주민5, 2016년 9월 23일 면담, 30436-31041)

다만 영양플러스에 대해서는 많이들 인지하고 있었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되다보니 지자체에 따라 접수기간이 따로 있었으며 이에 따라 신청이 조기 마감되어 정작 필요할 때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므로 단지 영양플러스가 있다는 정보로는 부족하고 지자체별로 신청 절차와 시기를 안내하

고,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 사전에 이사 가는 지역에 대한 정보도 보건소에서 함께 제공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신청을 하려고 하니깐 아직 신청기간이 아니라고 했나? 저희가 이사를 가잖아요. 거기 보건소에 가서 다시 신청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원래는 안했었거든요. 원래 하려고 했는데 신청이 5월 달 이래요. 그때 하려고 하니깐 제가 두달 있으면 이사를 가야하니깐 지금 안하고 가서 하자 했는데 지금 신청기간이 아니라고... 대기자 명단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11월이라고 했나? (이탈주민6, 2016년 9월 27일 면담, 4903-5313)

한편,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역 주민센터를 들었다. 거주지 인근에 있는 지역 주민센터 직원의 역량과 의지에 따라 이를 이용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책 이해도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었다. “우리네들도 잘 몰라요. 그런 거는 주민 센터에서 얘기를 안 하면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이탈주민5, 2016년 9월 23일 면담, 17199-17295). 지역 주민센터와 더불어 시청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북한이탈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직원이 있어서 좋다는 북한이탈주민도 있었다. 특히 이 경우에는 시청에서 북한이탈주민 출신 직원이 근무해서 정책에 관한 정보들을 문자나 SNS 등으로 소개하는 역할을 해서 북한이탈주민들이 빠르게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만족해했다.

그런데 우리는 저희 쪽은 저 시청은 북한분이 일하시거든요. 그 분이 저희와 연계가 되거든요. 북한 사람들하고 소통이 빨라요. 그런대로 들어오면 제일 빠르죠. 그럼 이 분을 통해서 그럼 우리 북한에서 오신 어머니들이 도움이 될 만한 정보. 뭐 프로그램이라던가 이런 게 있으면? 무슨 일이 있으면 뭐 다 거기서 알아보거든요. 그리고 일 있으면 그 언니가 다 알려주니까요. 빠른 거 같아요. (이탈주민42, 2016년 10월 7일 면담, 8316-8701)

정보를 얻고자 해도 기본적인 배경정보가 부족한 경우 적절한 정보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로 인해 북한이탈주민에게의 정보 전달은 주민센터와 같은 곳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안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만일 이런 지원이 각 지역의 주민센터 마다 이루어지기 어렵다면 위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에서 문자 등으로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안내를 해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3. 의사소통 및 언어

많은 북한이탈주민은 자신의 억양과 사투리가 드러나 상대방이 북한 출신임을 눈치 채는 것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을 체득한 결과일 것이다. 이로 인해 북한이탈주민의 의사소통은 대부분 다른 북한이탈주민들과의 교류 외에는 저조하다.

가. 북한이탈주민들과의 의사소통

남한 출신의 이웃들에게는 자신의 억양이나 사투리가 드러나서 북한출신임이 밝혀지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북한이탈주민들끼리 의사소통이 제일 활발하다. 이러한 활발한 의사소통 속에서 양육 관련 정보들도 주고받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 특히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 적은 수의 북한이탈주민이 상대적으로 넓은 지역에 살고 있지만 손쉽게 통화할 수 있는 점도 이러한 북한이탈주민 간의 의사소통을 활발하게 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아오 너네 인천인데 인천에 어린이집이 인천 쪽에 이런 일이 있었던단다. 어떡케. 그게 애 키우는 집 수다죠. 우리 같은 경우 다른 건 없잖아요(이탈주민5, 2016년 9월 23일 면담, 10360-10502)” 뉴스를 보고 그 지역과 관련된 소식에 문득 생각이 나서 전화를 걸어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웃들과의 소통이 부족함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역시 다른 북한이탈주민도 힘들 때, 이를 나누고 이야기할 상대로 가장 편한 것이 같은 북한이탈주민 언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막히 어떻게 푸는 게 없어요. 어떨 때는 너무 힘들어서 애를 보고 있다가도 애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고. 애가 뭘 잘못이 없잖아요. 애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애가 조금 말 안 들으면 애기 엉덩이 때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불쌍해서 언니랑 다른 사람한테 푸념하는 식으로만 하다가 언니네 집에 갔다가. 그렇게 풀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풀 수가 없어요.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서 환경을 어떻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냥 이겨내면서 살아가야하니까. 그냥 부딪히며 살자, 살자. 너무 힘들 때는 막 머리카락이 한 뭉큼씩 빠지는데.. 언니가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 그러고. 받지 말라고 해도 안 받는 것도 아니고...(웃음) 그래서 한번은 저 혼자서 뭘 일이 생겨서 계속 신경 쓰이잖아요. 그러면 생각하지 말자 생각하지 말자 그러면 내가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힘들지 않으니까 힘들면 그냥 언니한테 전화해서 푸념하기도 하고 언니 또 만나고 그냥 사람 만나면서 푸는 것 밖에 없어요. (이탈주민28, 2016년 9월 28일 면담, 14139-15007)

특히 외부에서 북한 억양과 사투리로 대화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서 부담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가까이에서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인 남편과 결혼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같은 언어로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생각하게 한다.

애기아빠도 북한 사람이예요. 내가 한국에 나와 보니까 같은 조선말을 하지만 시선이 따가운 것도 있지만 내가 누구한테 의지해야 되겠는데 그 때 당시에는 누구한테 의지가 안 되더라고요. 같은 북한에서 온 사람은 심정을 알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많이 의지를 했죠. 그 사람이 도움을 사실은 내가 하나원에서 집받을 때 안동으로 받았는데 그걸 취소시키고 서울로 받았거든요? 그 사람이 도움이 많이 컸었어요. 이제 뭐 하나원에 나올 때 우리한테 담당 형사를 붙여줘요. 모르거나 이런 게 있으면 전화하라고. 그걸 막 전화를 하는 게 안 되더라고요. 항상 전화가 와요. 나와서 밥이라도 같이 먹자고 그러면 안 나갔어요. (이탈주민 4, 2016년 9월 27일 면담, 20679-21266)

한편, 요즘 SNS의 발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단체 대화방의 기능이 이런 의사소통을 더욱 활발하게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 한 북한 이탈주민은 하나원 동기들과 통화는 자주하지 않지만, “단(체)톡”은 수시로 한다고 이야기했다.

나. 어린이집에서의 의사소통 및 언어

이탈주민 부모들의 고민이 자신의 억양과 사투리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북한 출신임이 드러나거나 간혹 조선족으로 오해받는 것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에 자녀들은 어린이집에서 남한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네, 좀 가서 다 원장선생님께 면담을 할 때, 아이는 여기서 낳았지만, 부모가 북한사람이기에 때문에 사투리를 많이 할 수 있다. 사투리에 대해서 많이 코치해달라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선생님들이, 저번에도 선생님이 주영이가 사투리를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선생님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코치해주세요. 선생님들 입장에서 바로 코치를 하면 또 부모들이 안 좋아할까봐 코치를 못했다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코치해주는 것에서 동의를 합니다. 해주세요. 애가 어린이집에서까지 집에서 하는 북한 사투리를 하는 건 싫다고 그랬더니, 알겠다 그러면서 ... 아무래도 그런 면에선 조금 억양이 아무래도 차이가 나니까. 다른 것은 여기 아이들 못지않게 더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태어나서 그래서 그런 진 모르겠는데. (이탈주민3, 2016년 9월 23일 면담, 7094-77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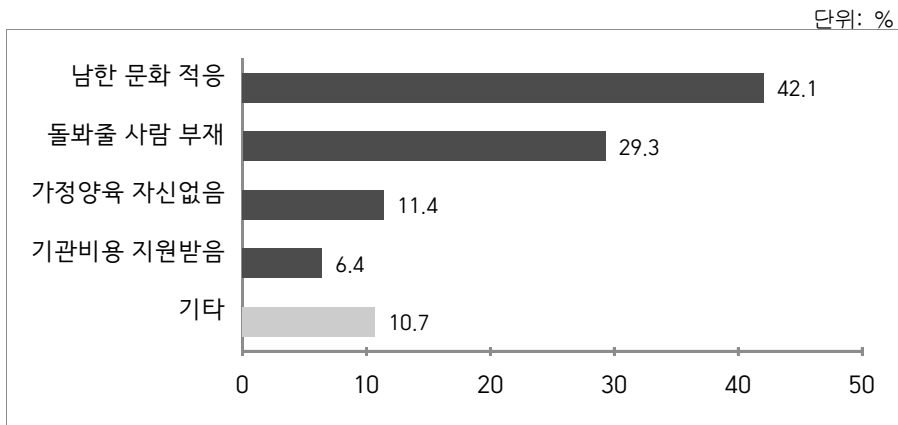
이처럼 북한이탈주민 부모는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이유 중

하나로 집에서 남한의 언어를 배우기 어려운 환경이니 일찍부터 어린이집에서 남한의 언어 환경에 노출시키고 싶은 바람이 포함되어 있다.

적당한 때라고 하면 내가 생각한 거는 17개월 이럴 때도 괜찮아요. 그때 제가 17개월에 보낼 때 기저귀 다 떼고 보냈거든요? 기저귀 다 떼고 보냈는데,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게 또 집에서 엄마하고 말하는 것 보다도 어린이집 가서 생활을 하면 말투도 많이 배울거고 그러니까 좋아요. 좋은데, 싹 그 엄마가 일하는 여기에 조금더 불편해 그럴지, 괜찮아요. 빨리 적응하면 그만큼 애들은 더운데마음(?)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거는 괜찮아요. 조금만 허락된다면... (이탈주민5, 2016년 9월 23일 면담, 25791-26230)

그 2년 6-7개월 세 살 그 때 그거는. 그때까지 제가 데리고 있다가 보낸다는 거죠. 빨리 받았으면 하는 게 아니라, 그 때 되면 보내야죠. 제가 제가 북한사람이 아니더라도 교육은 받아야 하니까 애들이 집단생활도 하고 사회성이 있어야 하니까. 저 같은 건 다음에 보내자는 게 제가 지금 사투리 쓰고 모르는 게 많고 하다보니까. 빨리 보내려고 하는 거죠. 일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다 (이탈주민42, 2016년 10월 7일 면담, 2980-3347)

본 연구를 위한 설문에서 북한이탈주민 부모에게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이유를 물었더니 가장 많은 42.1%의 부모가 남한의 문화에 대한 적응이라고 답하여 언어 및 문화 적응의 문제가 부모의 제일 큰 관심사 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IV-3-1] 자녀 보육·교육기관이용 이유

부모들의 이러한 바람은 실은 우리 사회의 편견과도 관계가 있다. 자신의 언

어를 부끄럽게 여긴다는 것 자체는 큰 문제이다. 특히 자녀가 나의 언어를 쓰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그만큼 우리 사회의 내재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적대감 및 비하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어린 아이들 사이에서도 이런 우리 사회의 문제는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다.

어린이집에서도 왕따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우리 애는 하도 아빠가 한국 사람이고 제가 그나마 여기 와서 조금씩 변화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게 없지만. 그 애들 같은 경우는 한 부모 가정. 특히나 여기 와서 남한에 와가지고 신랑하고 갈라져서 그런 경우도 있고, 북한 남자와 살다가 갈라진 경우가 있고, 중국에서 중국사람 데려다가 여기서 애를 낳고 갈라지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남한에 대한 문화 차이라던가 이런 걸. 별 밖에 나가서는 느끼지만, 집안에서. 저는 집안에서 문화 차이를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문화차이에 대해 내가 극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겠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남한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기 때문에 별 차이를 몰라요. 모르니까 북한에 대한 인식, 북한에 대한 그 뭔가 말투라던가 이런 사투리 쪽으로 아이한테 많이 해주니까. 애가 그거를 이제 따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딘가 모르게 그 행동이라던가 이런데서 남한 아이들에 비해서 툭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가한테 쉽게 접근을 안 해주는 거죠. 애도 접근을 못하고, 그러니까 왕따를 당하고... (이탈주민26, 2016년 10월 4일 면담, 40612-42068)

이와 같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 영·유아들임에도 이들의 언어가 이들 북한이탈주민과 그들 가족의 표식(marker)이 되는 것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 과정에서 심각히 고려할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영·유아의 사례는 아니지만, 언어의 문제로 인해 결국 자녀를 일반학교에 보내지 못하고 대안학교를 택하는 경우도 있다.

제가 알기로는 북한 여자들이 중국에 들어와서 애를 낳잖아요. 그러면 한국 입국 해가지고 그 애를 데려왔거든요? 중국말을 하니까 여기 오면 한국말을 모르기 때문에, 대안학교라는데는 중국 말도 가르칠 수 있고, 중국애들을 위해서 가르칠 수 있고 그리고 또 북한 아이들이 들어오자마자 한국 학교 들어간다 하면 격차가 많을 거 같거든요. 조금정도가 아닐거 같아요. 워튼 배워온 수준이라던가 차이가 많기 때문에 북한에서 오자마자 남한 학교 들어간다 하면 왕따는 근본이고 성적도 안 따라 갈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서 밀리지 않으려면 그냥 수준이 그저 비슷비슷한 대안학교 이런 데를 선정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탈주민3, 2016년 9월 23일 면담, 26230-26828)

이런 언어의 문제는 자녀만의 문제일 뿐 아니라, 부모가 교사나 원장과 의사소통 할 때도 드러난다. 한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는 어린이집 교사와 대화를 하

기를 꺼린다고 해서 그럼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는지 물었더니 “저는 문자를 해요”(이탈주민5, 2016년 9월 23일 면담, 23355-23468)라고 답했다. 누가 이들 북한이탈주민에게 입을 다물도록 하고 있는 지 고민해야 한다.

다. 지역사회에서의 의사소통 및 언어

사람의 언어는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일 뿐 아니라 그 사람의 정체성, 문화와 배경 등 많은 것을 표현한다. 그런 점에서 이들이 입을 열어 발화하지 않으면 남한 출신들과 구별할 수가 없지만, 그들의 억양과 어휘, 말투를 사용하면서 이들은 사람로부터 차별적인 시선을 느끼게 된다. 이는 그래서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차이(invisible difference)라고 이야기한다. 신체적으로 피부색이 다르거나, 얼굴 형태가 다르지는 않지만, 북한이탈주민이 입을 열고 발화하게 되면, 주류와는 다른 이들의 정체성이 드러난다.

제가 근데 제가 막 섞여서 그런 거 하는 걸 싫어해요. 알기는 하는데 배우고 싶기도 한데 안 나가는 편이에요. 그런데는 사투리도 좀 있고 하니까 조금. (이탈주민43, 2016년 10월 7일 면담, 9992-10143)

상처 입은 적도 있구요. 사투리 때문에. 회사에서나 이런데서 그러다보니까 본인 이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자제하게 되고 말도 가려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말을 안 할 때도 있고 그게 힘들어지니까 대중생활을 아예 자신감도 없어질 때도 있고... (이탈주민43, 2016년 10월 7일 면담, 18754-18995)

한 북한이탈주민은 중국사람, 조선족으로 오해받는 것이 불쾌하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시선도 곱지 않지만, 그나마 조선족, 중국사람으로 싸잡아 자신의 정체성과 다르게 오해받는 것이 싫다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사장님 같으면 어떤 사람은 중국에서 고향이 어디예요. 그럴 때는 옥해요, 고향이 어디예요.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면접 얘기하다가 취업하려고 얘기하다가 끝까지 안 들어보고 고향이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요. 아 내가 말투에서 나는구나. 북에서 왔습니다.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탁 끊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탈주민5, 2016년 9월 23일 면담, 22952-23287)

이러한 차별적 시선과 오해로, 북한이탈주민 부모들은 자신의 억양을 자식에게 물려주기 싫어서 스스로의 억양을 누르고, 남한의 언어를 배워야 하는가 고민도 하게 된다.

그럴 때는 답답하죠. 답답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애한테 말투라던가. 북한 사투리를 될수록이면 쓰지 말고, 애가 그게 따라오니까. 애가 내 말을 따라하더라구요. 어느 때인가는 그래서 말투라던가 언어랑 바꿔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탈주민26, 2016년 10월 4일 면담, 15172-15414)

이탈주민의 언어는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지역사회의 남한 출신 부모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하게 하는 장벽이 되기도 한다.

사람들하고 차라리 친해지고 편안하다 보면 긴장감이 풀리면 사투리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저도 힘들죠. 그게 막 신경 쓰고 얘기를 해야 하고 하니까. (이탈주민43, 2016년 10월 7일 면담, 19043-19207)

라. 전달체계와의 의사소통

북한이탈주민이 관공서나 전달체계와의 의사소통에 가장 많이 언급한 것은 신변보호담당관, 즉 경찰서의 담당 경찰관이었다.

<답> 제일 빨라요. 경찰서가 아마 시청보다 빨라요.

<문> 아 그럼 어머니는 이런 경찰서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주로 받으셨나요?

<답> 아니 이쪽에서 아예 이런 정보는 그 쪽으로 안 왔으니까 몰랐지만. 다른 것들 뭐지? 성 예방. 이런 거랑 행사하고 이런 거 시시각각으로 경찰서에서... 종략... 네 그러다 보니까 보이싱 피싱 문자. 이런 거 조심하라고.

(이탈주민42, 2016년 10월 7일 면담, 15185-15610)

신변보호담당관인 이들 경찰관들은 업무의 특성상 이들 북한이탈주민들과 주기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 북한이탈주민을 돕고 보호하는 임무도 있지만, 또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행사 등에도 북한이탈주민을 초청하는 등 비록 단체 문자 발송이라고 할지라도 수시로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

괜찮은데 막 몇 명씩 불어나면 그분도 힘들죠. 근데 관심에서 전화하면 전화 한다고 뭐라 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일도 힘들어요. 힘든데. 어떻게 보면 다른 동생 애는 전화 와서 언니 섭섭하대요. 언니 선물 탔어요? 추석에? 제가 다 쓸 뿐 아니라 **시(경기 남부지역) 대표로 참석을 했어요. 안탔다 했어요. 말이 어떻게 될 줄 몰라서. 자신은 왜 선물 안주냐고. 왜 주는 사람만 주고 자신은 안주냐고... 종략 ... 내년에는 꼭 줄 꺼야. 그러고 형사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형사님 내년에는 이름 꼭 넣어서 챙겨주세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까먹는데. 내가 또 담당형사님한테 개 줌 주세요. 그러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개 좀 챙

겨 주세요. 나는 담당이 아니지만 얘기 해볼게 이러는 거예요. (이탈주민42, 2016년 10월 7일 면담, 21364-22588)

그러나 한편으로 신변보호담당관은 북한이탈주민들의 보호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보호라는 의미는 “동정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의미가 있어서 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근데 우리 북한사람들이 보호담당관을 싫어해요. 왜냐면 북한에서 오면서부터 조사가 많이 들어왔고 중국에 있을 때는 경찰을 싫어했고 잡혀갈까봐.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보호담당관이 전화하면 나를 감시하나 그리고 또 나에 대해서 뭘 따지려고 그러나. 왜 물어보지? 그래서 이번에도 언니 하나가 전화 와서 자기 담당관하고 싸웠다 그래서 왜 싸웠냐고 물어보니까 왜 자꾸 나한테 전화 하냐고. 언니 전화를 할 때, 언니한테 전화가 올 때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랬더니 시끄럽다고. 금방 와서 모르니까. 언니 삼년만 지나 봐요. 전화 안와요. 전혀 관심도 없고 그러다가 뭘 일이 생겼어요. 급한 일 일 때 형사한테 전화했을 때 전화를 안 받아요. 섭섭하지 않겠어요. 형사님하고 관계를 잘 가지는 건 나쁜 일이 없어요. 전혀. 좋은 일 만 있을 꺼고. 앞으로도 내가 도움을 받을 때는 그래도 가까운 형사님한테 도움을 받지. (이탈주민27, 2016년 9월 30일 면담, 20557-21328)

북한이탈주민의 언어의 문제는 단순히 의사소통이라는 기능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이들을 대하는 태도와도 깊은 관계가 있다. 이는 단기적인 정책으로 극복하기는 어렵고 이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회 전반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의사소통의 욕구가 없는 소극적인 사람이어서 잘 말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이들이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것은 한편으로는 무엇을 묻고 요구해야 할지조차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들의 발화로 인해 차별을 겪은 상처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4. 언론매체의 영향

언론매체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는 창구이다. 다만 전통적인 매체는 일방적인 정보의 전달기능이 강하고, 또한 매체가 강조하는 면만이 두드러져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시각보다는 평면적인 정보를 제공해서 자칫 이로인해 왜곡된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기도 한다.

가. 가정에서의 언론매체의 영향

이탈주민의 가정에서 단연 눈에 띄는 매체는 텔레비전이다. 특히 영유아 자녀를 조용히 무료하지 않게 해주는 것은 텔레비전 밖에 없다. “제가 준비를 다 해놓으면 애가 TV를 봐요. 그러면 선생님이 오셔서 데리고 나가요”(이탈주민41, 2016년 10월 5일 면담, 14270-14837) 위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출퇴근 시간과 자녀의 어린이집 등하원 시간이 맞지 않아 부모는 아이를 집에 홀로 남기고 출근을 하고 또 아이는 어린이집을 마치고 아무도 없는 빈 집에 혼자 들어와 다른 식구들을 기다린다. 그 아이가 홀로 있는 시간에 아이를 뱃해주는 것이 바로 텔레비전인 것이다. 연구자들이 북한이탈주민의 자택을 방문해 면담을 진행할 때 영·유아 자녀가 함께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늘 아이들은 아동 프로그램이 나오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이처럼 가정에서 영유아 자녀들은 텔레비전으로 유아용 프로그램을 시청하거나, 때로는 부모의 휴대전화로 시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나. 북한이탈주민들 사이의 언론매체의 영향

북한이탈주민들의 매체는 전통적인 텔레비전 같은 매체보다는 소규모로도 운영이 가능한 인터넷 사이트가 주로 사용되었다.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채용 공고, 서로간의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게시판 기능 등을 담고 있어 이런 인터넷 매체가 주로 이용되고 있었다.

아 그거는 새터민 쉼터라고, 새터민 쉼터에 남북하나재단이랑 이렇게 채용 공고가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보고, 그 채용공고 그게 다 뜨거든요. 전국적으로 이런 거 각 지역별로. 서울이면 서울, 경기면 경기, 인천이면 인천, 거기서 보고 갔었거든요.(웃음) 요즘 직업에 관한 건 여기서 다 보고 있거든요... 중략 ... 이게 지금 저도 딱 잘 모르는 데 그러니까 중국에서 한국에 온 중국 조선족 이걸 북한사람들을 위로하는 마음에서 쉼터라고 해서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이탈주민3, 2016년 9월 23일 면담, 24188-24787)

한편, 보다 젊은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엔 불특정 다수가 공유하는 이러한 웹사이트 중심의 매체보다는 지인과 지인의 지인의 사이트로 연결이 되는 SNS를 주로 사용하였다.

어르신들 보다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하는 곳인 것 같아요. 페이스북, 카카오톡

리로 많이 공유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보를 올리는 거예요. 쪽~ 북한이탈사람들 보면 한 사람들 건너서 친구니까 좋아요를 누르면 거의 다 보게 되는 거죠. (이탈주민6, 2016년 9월 27일 면담, 11545-11810)

이처럼 인터넷이 북한이탈주민들 간의 주요한 언론매체로 역할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작아서이기도 하지만, 또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매력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소통을 통해 보다 자기에게 적합한 정보와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

네. 인터넷 많이 보고 티비에서 뭐 육아정책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 자세히 뉴스 라든가. 오히려 동네 있는 놀이터에 나가면 한국 분들, 한국 애기 엄마들. 놀이터에서 좀 만나게 되면 그런데서 좀 솔루션을 받기도 하고. 친척들이나. 나가서 밖에 나가서 이외의 사람들하고. 전 좀 인터넷 쪽을 많이 보거든요.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어요. 사이트하고. (이탈주민3, 2016년 9월 23일 면담, 3976-4314)

컴퓨터에 친숙한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었으나 면담에 참여한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컴퓨터에 전혀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는 거의 없었기에, 인터넷이 언론매체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다.

다. 어린이집에 대한 언론매체의 영향

북한이탈주민들의 어린이집에 대한 언급 중에 가장 공통되고 일관되게 진술한 것이 어린이집 폭력사태에 대한 문제였다.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은 언론, 특히 텔레비전으로 전달된 어린이집 교사들의 아동학대 소식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아이 알아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나쁜 건 아니지만, 너무 뉴스가 그렇게 해가지고 기자도 그렇게 해가지고 방송도 그런 거 있어야하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너무 이게 겁나기도 해요 (이탈주민5, 2016년 9월 23일 면담, 9934-10108)

물론 남한출신 부모들 사이에서도 어린이집에서의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문제가 크게 이슈가 되기는 했지만, 유독 북한이탈주민들 사이에서 이 문제가 더 자주 거론되고 있었다.

요새는 아동 폭력이라고 해서 어린이집에서 뉴스랑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겁나요. 걱정도 많이 나는데 **이(딸)가 오는 거.. 솔직히 애한테 그런 거 물음을 하는 건 아니지만 “**아 선생님이 너를 맘매 안 해?” 물어봐요. “아니?”

너무 자연스럽게 대답 하는 거 보면 선생님이 애를 예뻐하는구나 실제 어린이 집 데리러 갈 때 보면 “엄마 잘가” 하고 씽 들어가고 좋길래~ 그런 반응이 나오잖아요. 나쁘면 안 들어가려고 그러고. 우리 진복이도 같아요. 일단 신발을 자기 자리에 놓고 씽 들어가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애가... 우리 재 같은 경우는 아직 말은 못하지만 그걸 하고 기억은 좋아요. 자기를 한번 욕 했다면가 이러면 그 사람을 다시는 안 봐요. 근데 어린이집 선생님이랑 작년의 선생님하고 올해 선생님이 바뀌었는데 작년에 선생님도 참 좋았었어요. 애가 적응이 빨랐다고 봐야하죠. (이탈주민4, 2016년 9월 27일 면담, 7269-8165)

아무래도 북한이탈주민들이 직접 경험하는 남한 사회의 단면적이 적다 보니 상대적으로 텔레비전 매체 등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라. 지역사회에 대한 언론매체의 영향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에 오기 전부터 보아오던 TV 드라마로 남한 사회의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어서 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따귀를 맞는다던가 뭐 여자들한테 찔찔매고. 북한에서는 좀 반대거든요. 남자한테 어디 따귀를 때려요 그럴 수가 없어요. 손이 올라가면 큰일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고 살다가 그 교육시간 빼고는 병실에 와서 TV 보잖아요. 그럴지 않아도 북한에서 한국에 대한 TV가 로망이었는데 그 로망을 보고 있잖아요. 드라마에서 집도 너무 으리으리한데 다 보게 되면 여자한테 찔찔매고 여자한테 따귀를 맞고 남자가 조금만 잘못해도 야 이 새끼야~ 이러니까 야 세상에 저거 어떻게 사냐. (이탈주민4, 2016년 9월 27일 면담, 22029-22479)

물론 TV 드라마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극적효과를 위해 현실의 삶이 과장되고 왜곡되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눈앞에 보이는 시각적 자극을 부정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그 내용이 동경하던 내용이면 알면서도 속고 싶은 것이 사실이다.

남자선생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칠판에 메모하면서 남한남자, 북한남자 우리가 기억하는 그걸 말하래요. 북한남자들 보다는 남한남자는 선생님이 메모하다가 아니 이거보세요 나도 남한남자예요. 하지만 그건 TV지 현실과는 달라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럴잖아요. 사실은 한국사회를 모르는 상태에서 TV를 제일 먼저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탈주민4, 2016년 9월 27일 면담, 22507-22859)

특히 북한에서 접한 텔레비전은 채널이 다양하지 않고 모두 체제 선전을 위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서 자극적이고 상업적인 내용에 그 몰입도가 더 클 수

밖에는 없을 것이다.

문화적 차이 많죠. 아시다시피 북한에는 강박적이죠. 강압적으로 해야 하고... 중략 ... 지금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는 북한 떠난 지가 20년이 다 돼서 그때를 놓고 봤을 때는 여기는 여러 가지 있지만 거기에는 TV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정관념이 되어 있고. 북한사람들이 많이 수련되기도 하고 많이 그랬다고는 하는데. 상황에 대해서 가보지를 못하니까. (이탈주민22, 2016년 9월 30일 면담, 16436-17173)

이처럼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매체가 주는 영향력은 실로 강력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은 이러한 언론 매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형태에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다. 이전에 경험한 북한 체제에 익숙해 있어서 언론매체가 전하는 내용이 과장되고 왜곡될 수 있음에 대한 판단이 부족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사회와 육아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이러한 언론매체가 전하는 내용을 다른 각도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남한 사회를 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5. 건강, 안전, 성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은 자녀의 건강과 안전의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에 더해 성문제는 부부관계와 가족의 형태 및 자녀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내용으로 연구자들이 북한이탈주민의 삶이 남한 출신 부모들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이 부각된 부분으로 파악하였다.

가. 가정에서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성

먼저 북한이탈주민 가정에서 어머니들은 자녀가 먹는 것에 있어서 북한의 양육문화와 남한의 문화가 다른 점이 크다고 보고하고 있다. 먼저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에서 이유식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우선은 애기 엄마들한테 제일 필요한 건 정보예요. 애들이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며 부모가 예비엄마로써 받을 교육 이런 정보가 그 사람이 애기 다 낳은 다음에 알려주면 필요 없잖아요. 애기 낳기 전에 필요한 그걸 제때 빨리 제공을 해주는 게 필수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고 북한에는 이유식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애기가 뭐 막 옥수수밥을 먹어야하고 쌀밥도 못 먹고 이런 상황인데 여기는 이유식을 하잖아요. 북한사람들은 이유식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그 때 애기를 낳

고 보건소에서 연락이 와서 가니까 이유식을 어떻게 해라. 그 다음부터 이유식을 해 먹었어요. 그러니까 애기한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비엄마한테 도움이 필요하고. (이탈주민27, 2016년 9월 30일 면담, 14982-15600)

북에서의 삶의 여건이 좋지 않아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잘 먹이지를 못했던 것을 깜짝 놀라하는 부모들이 많았다. 그래서 남한에서의 육아문화가 더 발달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강했다.

저는 어릴 때 보면, 엄마들이 딱 고 한가지면 한가지. 두가지면 두가지 해먹이고 싶어도 없으니까 못하는데. 여기는 많더라고요. 애기를 다른 분들은 저희 쪽 분들하고 오픈을 하면 그냥 어른들이 먹을 때 같이 먹인다고 대부분 세살이고 하니까. ‘우리 같이 먹는 거 먹어’ 하는데. 저는 또 이왕이면 모르면 모르겠는데, 알고서리 그냥 할 수는 없으니까. 인터넷 들어가 보면 이제 다시다 멸치 우려가 지고 된장국할 때도 하는데, 저희 분들은 그런 게 없어요. 끓는 물에 된장타서 해서 그렇게 먹고, 먹어 왔으니까. 애들한테 멸치가 뭐 성장에 뭐 어디 좋다 어디에 좋다더라 하니까 이왕이면 하는 거 해보자고 하는데. 제가 몰랐던 아는 것 보다 모르는 게 더 많으니까. 그거 할 때마다 인터넷 들어가서 보고. 이건 어떻게 해야하나. 조금 알려지가 있는 편이에요. 음식도 가려 먹어야 하고 면 종류도 가려 먹어야 하고, 매번 가려 먹어야 하고 (이탈주민43, 2016년 10월 7일 면담, 22623-23414)

자신들이 어렸을 때 여러모로 부족한 상황에서 자녀에게 좋은 것을 제공해주는 것보다는 생존이 더 우선된 목표였을 때와 다른 상황에서 전혀 부모가 될 준비가 되지 못했다고 문화충격을 경험한 것이다.

기저귀 우리가 언제 종이기저귀 써봤어요. 못 쓰죠. 분유? 우리 평양 고모네 보니까. 저 아주 어릴 때도 그 집은 분유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양하고도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니까요. 그 집 그 평양에서 키우는 고모네 자식들하고 손주들하고, 우리 집은 완전시골이라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기저귀 분유 그런 거 먹이는 거 모르죠. 분유병은 무슨. 보니까 엄마가 모유가 안 나오니까 막 애기 신생아 아주 작은 애인데도, 막 쌀미음 써주는 데 된장을 살짝 풀어 먹이더라고요. 여기는 간이나 이런 것들 안 먹이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거기는 간 안 넣으면 애기가 안 먹는다고 살짝 풀어먹여요. 살짝 풀었다는게 여기서 보면 엄청 짠 거지. 여기는 어른도 엄청 싱겁게 먹잖아요. 짜게 먹어요, 북한은. 그런 것들에서 차이가 많이 나죠. 차이가 많이 나서 어떻게 말을 해요. (이탈주민42, 2016년 10월 7일 면담, 17785-19775)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의 먹는 문화를 다 좋게만 여기는 것은 아니다. 특히 어린 영아들에게 여전히 모유보다 분유를 더 많이 먹이는 세대는 못마땅하게 여기며, 가능한 한 모유를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었다.

엄마들이 모유를 안 하더라고요. 북한은 무조건 엄마가 모유예요. 애는 엄마 젖을 먹어야 된다고, 모유를 먹어야 된다고.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지 하니까 엄마들이 몸매관리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도 애한테 좋다는 거는 우선을 해줘야 되지 않냐. 내가 진복이 낳 때도 그렇고 유진이 낳을 때도 그렇고 의사선생님이 들어와서 애 낳기 전에 항상 물어 보시는 게 있더라고요. 모유하나, 수유하나? 아이는 모유할 겁니다. 이러니까 그렇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러시나 했죠. 그 다음에 지금 쪽 보니까 그 때 선생님이 물어본 이유가 있었구나! 그래서 그게 좀... (이탈주민4, 2016년 9월 27일 면담, 19397-19964)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은 모유를 선택이 아닌 아이들을 위한 당연한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가정에 미치는 이성교제의 문제는 북한이탈주민 자녀와 그들 가정이 처한 어두운 현실의 원인 중 하나이다. 영·유아 자녀를 둔 북한이탈주민 중 많은 수가 결혼 전에 혼전 임신을 통해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로 인해 동거나 결혼을 결정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한국에 입국한 지 2~3년 내에 결혼하는 비율이 높았는데, 한 어머니의 경우 2개월간 사귀고 헤어진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으나 뒤늦게 태아를 없애는 것이 불법임을 알고 아이를 낳아 미혼모가 된 경우였다. 중국에서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낙태시술을 했는데 남한에서는 다른 문화임을 몰랐고, 그런 점에서 피임을 위한 노력 등이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한부모 가정에 덩그러니 남게 되는 일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 북한이탈주민 사이에서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성

면담에 참여한 한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는 북한이탈주민들 사이에 성교육이 많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였다.

북한에서는 그 여자한테 여성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요. 우선 산부인과 진료를 받아 볼 수가 없고요. 처녀시절에는 전혀 그런 진료를 받아 볼 수가 없고 그러고 임신이 된 다음에는 애기 낳을 때까지 자기 혼자 관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대충 먹고 그랬는데 임신이 되면 그 다음부터 몸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고 태아에 대한 그거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전혀 없었어요. 그런 걸 볼 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배 안에 있을 때부터 애에 대한 애착을 가지면서 애에 대해 귀중히 여기고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이 중요할 것 같고, 특히 초보 엄마들은 더해요. 그리고 여자들이 자기 이런 산부인과에 대해서 치료도 좀 받고, 우리 사람들은 부끄러워하면서 안가요. 그런 걸 안받아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아보고 검

진도 해보고, 처음에는 전혀 그런 걸 몰랐어요. 산부인과 가면 다른 사람이 보는 눈이 신경이 쓰이고 북한에 있을 때부터 재네들이 산부인과에 가면 재 바람피워서 애 났나봐 이런 인식밖에 없어서 산부인과에 가는 걸 겁 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개념을 좀 깨고 내 몸을 여자로서 지켜간다는 생각을 하고 검진을 받아 봤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여기 오면 검사할 때부터 자궁질환이 엄청 많은 거예요. 암인 건 몰라요. 여기 와서 암이다 하면, 평소에 검진이란 자체가 없어요. 북한에는, 거기에 대한 걸 아는 분들이 설명을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탈주민27, 2016년 9월 30일 면담, 12080-13267)

이와 같이 성교육뿐 아니라 결혼과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미리 계획하고 이를 대비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가 생기면 함께 동거를 하려고 법률혼 관계가 아니다 보니 상대적으로 쉽게 가정이 해체되는 것이 북한이탈주민들 사회의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다. 어린이집에서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성

북한이탈주민 부모가 어린이집에서 건강과 안전 문제로 걱정하는 부분은 먼저 안전이었다. 특히 어린 영아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아이들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기에 어린이집에서 어떤 안전 문제가 있을지 노심초사하는 모습이 많았다.

말을 할 때 왜냐하면 말을 못 할 때는 선생님이 때려도 말을 못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16개월 때 보냈는데 어깨가 굽혀서 핏자국이 딱지가 붙어 왔어요. 제가 선생님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면서 원장선생님 제가... (이탈주민27, 2016년 9월 30일 면담, 2825-3024)

이처럼 부모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의 원장은 모르는 일이고 그럴 수 있다고 답하며 담임과의 통화를 거절했다고 말했다.

애를 일단 잘 입장을 잘 들어주고 애들이다 보니까 다녀서 삼일 만엔가? 입술 안쪽이 터져서 왔더라구요. 저는 조금 남들보다 조금 틀린 면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뭐 어떻게 생각하든 바로바로 봐요. 요새는 하도 교사들이 폭행을 한다고 하니까 바로바로 왜냐하면 애가 말이 뜬 편이라 표현을 잘 못해요. 친해지면 잘 노는 타입인데 삼일 정도 다녔는데 이제 다른 애들도 대부분 그렇지만 적응기간이라고 많이 운다고는 하는데, 자기가 좋으면 하루이틀 엄마들은 알잖아요. 하루 이틀 다니면 그래도 그렇게 우는 정도는 아닌데 삼일 째 다니는데 너무 애가 우는 거예요. 가는데 목을 붙잡고 문을 붙잡고 뭐 붙잡고 이정도 까지 이럴 때는 뭔가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안 보낼 의향이 있었구요.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제가 바로바로 삼일 다녔고 입술이 터졌는데 그 입술을 제가 못 본

거예요. (이탈주민43, 2016년 10월 7일 면담, 5682-6815)

처음 아이를 보육기관에 맡기는 어머니는 북한 출신이나 남한 출신이나 혹은 다른 나라 출신의 어머니라고 해도 어렵기는 마찬가지 일 것이다. 그런데 낯설은 곳에서 어렵게 떼어놓은 아이가 훗날 집에 돌아왔는데, 교사는 모르겠다고 하며 대화가 안 되는 상황에서 부모는 속상할 수밖에 없다. 북한출신이라 이들이 나를 무시하는 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물론 많은 경우는 이와 같은 불미스런 경험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경우에도 걱정은 다르지 않았다.

선생님이 날 이뻐했다. 뭐 이런 소리도 하고, 어린이집 생활 재밌었어? 친구들이랑 재밌었어? 하면 재밌었어. 애들도 이게 자기 그 어른하고 틀려가지고 숨기는 게 없거든요. 그런 거 보면 아 우리 애는 괜찮구나 이런 거는 느낄 수는 있어요. (이탈주민5, 2016년 9월 23일 면담, 9474-9707)

괜히 또 그렇게 하면 사실은 어린이집도 그렇잖아요. CCTV도 다 있고 애한테 강압적으로 할 수도 없고 솔직히 우리 재 같은 경우는 너무 식욕이 이렇게 많아요. 가리는 음식도 가리지만 한번 보게 되면 내 밥을 먹고도 총 반찬은 옆에 친구 밥을 다 뺏어먹고 그러면 선생님이 “먹지마라!” 라고 하게 되면 애한테는 솔직히 CCTV도 있으니까 이거는 폭력으로 가지는 않아요. 저보고도 그래요 선생님이. 그럴 때 보면 속상하지만 그래도 애한테는 그럴 수 없다. 지금 상태도 배가 이렇게 점심을 너무 많이 먹어서 솔직히 다른 거 바라는 거는 없어요. (이탈주민4, 2016년 9월 27일 면담, 8500-9011)

한편 한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는 어린이집에서 자녀에게 제공하는 간식이 건장하지 않은 것이어서 불만인 경우도 있었다. 집에서는 먹이지 않는 사탕 같은 것을 간식으로 주는 것이 그의 걱정이었다.

애들 먹이는 거 보니까 사탕이랑 잘 막 먹더라구요. 저는 우리 애 간식도 안 먹이거든요. 딱 밥에다 분유 이런거, 과자도 안주고 과자 안 먹여요. 개가 밥을 엄청 잘 먹어요. 식성이 완전히 장난 아니게 좋아요 간식을 먹이면 안 먹겠쥬. (이탈주민4, 2016년 10월 27일 면담, 4339-4567)

라. 지역사회에서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성

영·유아의 경우 병원 갈 일이 많고, 증상이 순식간에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서 부모들은 늘 자녀의 건강에 대한 걱정이 크다.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도 마찬가지로 자녀의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훌륭한 남한의 의료시스템에

만족하며 이를 비롯한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도 모두 만족하게 이용하고 있었다.

한 달 동안은 염증치료 강하게 받고, 혈장 교환까지 다 했어요. 투석처럼 피를 빼서 하는 걸. 다섯 번. 한 셋트에 7번인데. 다섯 번하고 좋아지니 어린이 재활 전문병원 옆에 붙어있어서 바로 이동해서, 한 달 동안 재활치료 받아서, 두 달 동안.. 70일 동안 입원해서 그래도 지금 다 완쾌되어서 (이탈주민3, 2016년 9월 23일 면담, 14433-14709)

자녀의 장애를 발견해 그 아이의 치료하기 위한 비용을 공공이 부담하는 체 제에 만족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에서인지 소득에 관계없이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은 자녀를 위해 민간보험을 거의 대부분 가입하고 있었다.

그러나 영유아들의 부모에게는 드물지 않은 산후 우울과 같은 정신 질환에 대한 병원 진료는 쉽게 선택하지 못하는 것도 볼 수 있었다.

그게 아니고 제가 일을 하는데, 저 북한에서 제가 사고 났어요. 차하고 기차하고 부딪혀서 전 그 사고 어혈이 있어가지고 일을 팔을 못 썼어요. 코 알레르기가 심해가지고 제품이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시간이 지난 팔 못쓰고 냄새나고 그리고 애를 데리고 오다가 애가 잡혔거든요. 우울증이 심각하게 왔어요. 그렇게 일을 다니면서 저녁마다 애를 찾는다고 이 탈북자 센터 다 다니면서 도와달라고 두 시까지 넘게 찾다가 다음날 일어나서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가 몸이 완전 잘못된 거예요. 우울증이 심각하게 되어서 일을 못하게 되었고 팔을 못 쓰고 그러다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코 알레르기 심해져서 우울증으로 3년을 앓았어요. 근데 그게 그걸 그런 우울증이 온지도 모르고 갑자기 일을 하기 싫고 뭐 할까. 사람이 자신감이 쏙 나가서 일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일하기 싫어지는건가. 처음에는 내가 일하기 싫은 거. 내가 게으름을 피우는구나! 했는데 후에 보니까 우울증이 온거더라구요. 너무 자질 못하고 힘들어서, 사람이 자질 못하니까 기분이 항상 나쁘고, 머리가 짜증이 나가지고, 잠을 못자고 누가 권고하더라구요. 병원 가보라고 그러고 보니 우울증이 심각하다고 하더라구요. 지금은 치료 받고 지금은 일하고 싶어요. (이탈주민42, 2016년 10월 7일 면담, 9787-10858)

마. 직장에서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성

우연인지 눈덩이 표집으로 섭외한 참여자 중에서 보험 설계사가 한 명이 있었으며, 또 보험 교육을 받고 있는 참여자가 한 명이 더 있었다. 앞서 언급한 바처럼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의 의료시스템에는 만족하지만, 여전히 의료비에 대한 걱정과, 의료급여가 보장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걱정 때문에 대부분 민간의료보험을 가입하고 있었다. 그에 따라 이들에게 보험을 판매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은 어머니들이 많았다.

어느 정도 벌어도 우리식구 한 식구 한 달은 살순 있다. 이런 건 있는데 여긴 아니에요. 너무 비싸고, 월급도 우리가 또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다니니까 월급도 안 많아요. 100만원부터 120만원. 집세 월세를 내고, 그 다음에 관리비 이런 거, 핸드폰 써야 되고, 생활에도 다니가는데, 우리 같은 경우 못사니까 보험도 더 들어야 되고 내가 아프면 어떡케, 연고도 없고 누구도 없이 사람도 없거든요. 보험도 들어야 되고. 네. 좀 힘들더라도 애들 보험은 다 들었어요.(웃음) 힘들더라도 보험은.... (이탈주민5, 2016년 9월 23일 면담, 12705-13174)

특히 보험설계사는 출근은 일정하게 하지만 퇴근시간은 자유로워서 파트타임으로 일해야 하는 영아 부모의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근무조건으로 여겨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답> 그런 것까지는 안되죠. 제가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자리를 심사숙고해서 고르는 편이에요.

<문> 그럼 직장이 어떻게 그런게 가능한지?

<답> 아 보험사 가능하다고 해서 교육받고 있어요.

<문> 아 보험사

<답> 보험사는 아침에 출근해서 조회하고 뭐 그러잖아요. 교육 그냥 받고 있어요, 지금. (이탈주민10, 2016년 9월 24일 면담, 10668-10957)

바. 전달체계에서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성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 만족하는 것 중 하나는 선진적인 의료시스템이다. 북한이탈주민 어머니가 암에 걸려 남한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도 있었고, 자녀가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가 70일이나 입원해야 했고, 치료비가 2천만원이나 청구되었으나 의료급여 1종 대상으로 자부담은 거의 없었으며 그나마도 따로 가입한 실비보험에서 지급된 경우도 있었다.

마지막에 계산해서 보니 총액이 2천만원. 다행히 보험도 있고. 의료보험 1종. 혜택이 많은지 이번에 알았어요. 2천 몇 만원에서 내가 나간 돈은 400만 얼마밖에 안 되더라구요. 딱 그 때 시기가 그래서 그런지. 2인실에 들어갔는데.. 병원 공사를 하고 있어서, 소리가 시끄러우니까, 40만 얼마짜리를 완전 세일해서 시끄러워서 세일을 해서 넣어줬어요. 진짜 일이 잘 되어서 저희는 그거까지도 무료로 병원 측에서 지원을 해 주었어요. (이탈주민3, 2016년 9월 23일 면담, 14744-15152)

건강한 가정의 출발은 부부의 만남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젊은 북

한이탈주민이 낯선 문화와 사회의 곱지 않은 시선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고단함은 안타깝지만 더욱 안타까운 것은 가벼운 위안을 제공하는 남녀관계가 손쉽게 동거를 결정하고,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법률상의 부부가 아닌 관계로 가정이 쉽게 깨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한부모, 혹은 위기의 가정 속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어머니의 취업에 큰 어려움이 된다. 영유아 자녀를 가진 북한이탈주민 어머니가 안정적인 직장을 얻기 힘들다는 것은 또한 자녀에게 안정적인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미혼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신중하게 동반자를 선택하고, 그들과 바른 관계 속에서 현실적인 미래를 설계하는 가운데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바른 성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초생계비 지급의 조건이 북한이탈주민에게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유인이 되고 그로 인해 쉽게 가정이 해체되는 계기가 된다면, 본래의 법 취지와는 다른 부작용을 낳고 있는 만큼 제도의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

6. 기타

가. 교육

북한이탈주민들의 탈북 전 학력은 남한에서 직장을 구하는 데에 큰 관련이 없었다.

주변에서 대학원 다니는 언니들은 너 할 수 있어 라고 얘기 하시는데 되게 힘들다고. 애를 키우면서 하기도 힘들고 얘기해서.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면서 그렇다고 배우지를 않으면 마땅히 일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직업이 없어요. 아니면 식당에 가서 노동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솔직히 제가 나이는 둘째 치고 제가 좀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저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싶고 자기계발도 해보고 싶고 남들처럼 직장에도 다녀보고 싶고...(웃음) 어리석은 생각은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북한에서 좋은 대학을 나왔거든요. 유치원 교사를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제가 만약에 어린이집교사라든지 됐다고 하면 저희 신분적인것 때문에 그게 되게 꺼려서 만약에 내가 엄마라고 해도 애가 북한사람 교사 밑에서 교육을 받는다고 하면 저도 솔직히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하고 사회복지를 제가 신청을 했어요. (이탈주민28, 2016년 9월 28일 면담, 12255-13173)

북한에서 받은 교육은 남한과는 내용이 달라서 그대로 남한에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북에서의 학벌은 남한에서 인정받기가 더욱 어려워서 북

에서의 학력 및 학벌 수준이 높은 경우 상대적인 박탈감이 더 클 수 있다. 일부 연구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에서 학력 수준이 낮았기에 좋은 직장을 얻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 연구의 사례에서 나온 바처럼, 북한에서 좋은 대학을 나온 경우에도 다시 남한에서 대학을 다니지 않으면 크게 소용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근본적으로는 남북한의 교육계의 교류와 협력의 증진을 통하여 통일 조국을 준비한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체제가 다르고 서로 다른 직업 환경 속에서 이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현재 하나원에서 제공되는 교육이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교육에 그치고, 지역 하나센터에서 제공되는 교육 역시 지속가능한 형태가 아니다. 특히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자녀를 출산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자녀를 훈육하고 교육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이탈주민들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느낄 때는 정작 생업과 육아로 부모교육을 받기에 적당한 시기가 아니다.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예비부모교육을 일정 시간 이상 수강할 수 있도록 돕고, 남한에서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진지하고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연구에 참여한 상당수의 부모들이 자녀를 바르게 키우고 싶어 하며 그러기 위해 스스로가 배우고 싶은 열의를 보이고 있다.

나. 돈

북한이탈주민은 돈 문제에 대한 언급이 많았다. 당연히 양육이나 생활과 관련된 질문에 비용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특히 지원과 관련되어서 돈에 대한 이야기가 민감하게 제기되었다.

네 그 많은 돈이 솔직히 말해 노골적으로 우리 그러거든요. 남북하나재단 일 년 예산이 몇 억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북한 사람에게 차려지는 게 얼마가 있냐. 거기에서 운영하고 쓰는 돈이 더 많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 들어보면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뭐 남북하나재단을 이용해서 북한사람에게 아프면은 뭐 그런 게 또 있어요. 남북하나재단의 의료비 지원 신청이라고, 내가 치료를 7백 만원 받았다고 하면 병 상태에 따라서 몇 프로 돌려받고 몇 프로 돌려받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돈이 그렇게 들어와서 다시 우리에게 온다 해도... (이탈주민3, 2016년 9월 23일 면담, 47631-48190)

위의 면담 기록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현재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전달체계인 남북하나재단을 통해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은 본인과 지인들의 목소리를 빌려서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을 위한 예산

중의 상당수가 실제로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직접 전달되는 것보다, 전달체계 자체의 유지를 위해 쓰이고 있다는 데에 많은 불만을 표하였다.

다 우리에게 100프로 다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들어갈때는 더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들이 들어오는 건, 작게 들어오거든요. 차라리 그렇게 더 낭비 하지 말고, 그런 거 아예 하지 말고 차라리 직방으로 우리 병원에 입원할 때 그런데서 차라리 혜택을 더 준다고 하던지. 의료급여 환자들은 대부분 북한 사람들은 의료급여가 많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많이 쓸 일은 없지만 MRI는 자기 돈이 많이 나가잖아요. 위에처럼 뭐 남북하나재단 통하지 않고 그냥 여기 그대로처럼 도와주려면, 진짜 도움을 받는다면 직통으로 도움 받고, 위예를 거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탈주민3, 2016년 9월 23일 면담, 48208-48811)

특히 북한이탈주민이 원하는 수준의 만족스러운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경우, 그 원인이 예산의 효율적이지 못한 집행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정책 덕분에 남한 출신의 직원들이 호의호식하고 있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

한편, 북한이탈주민들은 자녀를 위한 교육·보육 시설을 선택하는데 있어서도 비용이 상당히 민감한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특히 많은 부모들은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추가로 비용을 내야한다는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명목상 어린이집은 무상보육이 실현되고 있다. 그럼에도 매달 어린이집에서는 추가로 비용을 낼 것을 요구한다. 비단 어린이집 뿐만이 아니다. 북에서는 먹을 것만 별면 되었지만, 남한에서는 먹지않고 가만히 있어도 돈이 나간다는 한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푸념처럼, 필수적인 지출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운 북한이탈주민들이 안정적으로 남한에서 생활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브로커를 통해 남한으로 건너온 이들이 적지 않은 브로커 비용을 갚아야 하고, 또 북에 남겨진 가족을 데려오고자 하는 상황은 이들이 더욱 이들의 삶을 궁핍하게 만든다. 어린이집에 추가로 지불하는 비용, 정부에서 대부분을 보조하고 일부 자부담이 있는 아이 돌보미를 자부담 비용이 너무 커서 이용하지 못하는 이들의 삶에서 저렴하고 질이 보장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많은 경우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민간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고 있다. 공립 어린이집은 대기자가 많아서 들어가기가 어려우며 마냥 순서가 될 때까지 기다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이탈주민은 본 연구의 응답자 분포에서도 가늠해볼 수 있듯 일부 지역에 밀집하여 살고 있다. 이러한 지역을 중심으로 공립 어린이집을 더욱 우선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

다. 암묵지(tacit knowledge)

법규나 규정에서는 분명하게 제시된 것들이 실제 삶에서는 다른 방향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나, 반대로 제도가 분명하지 않아 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들이 있다. 남한에서 태어나 자연스럽게 살아가면서 익힐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북한이탈주민에게는 어려울 수 있고, 남한 생활이 오래되어도 여전히 문득문득 막히는 부분으로 등장한다. 이처럼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자녀를 양육할 때 필요한 남한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명시적이지 않은 지식을 암묵지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자녀의 양육을 위한 암묵지란 이런 것이다. 어린이집은 기본적으로 12시간 보육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그것이 현재 유효한 제도이다. 그런데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은 직장 때문에 자녀를 더 맡기고 싶은데도 8시간도 채 맡기지 못한다. 또한 보육료는 정부에서 무상으로 지원된다. 그러나 어린이집은 부모들에게 각종 명목으로 추가로 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구한다. 어린이집의 탈법적인 불법적인 운영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표면적인, 명목적인 지식이 있지만 그런 지식이 적용되지 않는, 즉 암묵적인 지식이 필요한 때가 많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도와야 할 기초생활수급 제도는 오히려 편법적으로 독립가구를 가장한 사실혼 관계를 선택하도록 하는 아쉬움이 있다. 또한 다양한 양육지원정책은 지원 조건이 복잡하고 절차가 까다롭다.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에게는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명시적인 지식(explicit knowledge)도 부족하지만 이러한 암묵적 지식이 남한 사회에의 적응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명시적 지식과 암묵적 지식 사이의 미로를 잘 헤쳐나가기를 가르치고, 기대하기 보다는 보다 제도가 일관되고 단순화되어 정책을 이용하려는 자가 직관적으로 정책을 이해하고 정책의 애초 목적이 훼손되지 않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시작부터 편법을 이용하게 만들고, 또한 그들 사이에 새로 태어난 자녀가 법률적인 부모 관계를 누릴 수 없게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

V.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양육지원시스템 구축 방안

통일부(2016c)는 지난 2016년 10월 1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3만 명시대에 맞춰서 기존의 탈북민 정책방향을 '사회통합형'으로 바꾸려고 한다고 밝혔다. 사회통합형 지원이라는 것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에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이 계도화 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 통합형 지원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기본 방향에 기반한 정책이 필요하다.

1. 기본방향

첫째, 북한이탈주민 개개인이 아닌 가정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북한에서 태어난 것과 제3국에서 태어난 것과, 남한에서 태어난 것이 이들의 처우와 사회보장에서의 지위에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접근이다. 북한이탈주민이 단 한명이라도 속한 가정은 모두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다. 건강한 가정의 출발은 부부의 만남에서부터 시작된다. 젊은 북한이탈주민은 낯선 문화와 사회의 곱지 않은 시선 가운데 가족과 떨어져 삶을 살아야한다. 어쩌면 동향의 또래를 만나 위안을 얻고자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이들이 새로이 정착해야 할 남한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이러한 선택이 그들의 고된 선택으로 귀결될 뿐 아니라 이들의 2세들이 고스란히 부모세대의 어려움을 물려받는 환경임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한부모, 혹은 위기의 가정 속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또한, 어머니의 취업에 큰 어려움이 된다. 영유아 자녀를 가진 북한이탈주민 어머니가 안정적인 직장을 얻기 힘들다는 것은 또다시 자녀에게 안정적인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미혼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신중하게 동반자를 선택하고, 그들과 바른 관

계 속에서 현실적인 미래를 설계하는 가운데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바른 교육과 이들에게 부모의 역할을 대신해줄 수 있는 멘토링 등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초생계비 수급의 조건이 북한이탈주민에게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유인이 되고 그로 인해 쉽게 가정이 해체되는 계기가 된다면, 본래의 법 취지와는 다른 부작용을 낳고 있는 만큼 제도의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이 약한 연결을 신뢰하고 안전하게 손을 내 뻗을 수 있는 신뢰의 환경을 조성한다.

이탈주민은 단순한 강한 연결을 중심으로 한 사회관계망에 의존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강한 연결에 의존하게 된 배경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물론 강한 연결은 나쁘고, 약한 연결은 좋은 것이라는 이분법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북한이탈주민이 강한 연결에 과잉 의존하다 보니, 약한 연결을 시도하기 어려운, 즉 북한이탈주민 그룹 안에서 고립된 관계만을 유지한 채 살아갈 염려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각 영역에 이들이 진출하여 활약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어린이집과 지역사회가 먼저 나서서 이들 북한이탈주민을 환영하고, 차별적인 시선을 유지하기 보다는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기 위해 찾아온 먼저 온 미래를 맞아야 한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이 자신의 언어로 인해,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으로 인해 차별을 겪지 않도록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언어의 문제는 단순히 의사소통이라는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의 정체성과 관계된 근본적인 문제이다. 특히 이는 그들 스스로 정체성을 선택하고 버리는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북한이탈주민을 대하는 태도에 달려 있는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단기적이고 일회적인 정책으로 극복하기는 어렵고 이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회 전반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이들 북한이탈주민은 소극적인 사람이어서 의사소통의 욕구가 없고, 잘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냉담함이 이들 북한이탈주민으로 하여금 입을 다물게 한 것은 아닌 지 먼저 살펴야 한다. 특히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는 무엇을 묻고 요구해야 할지조차 모르는 북한이탈주민에게 먼저 다가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정책 방안

가.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방향을 가정 중심으로 전환

현재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은 법령에서부터 모두 개인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특히 같은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할지라도 누구와 결혼하는지에 따라, 어디에서 자녀를 출산했는지에 따라 그들이 지원받는 내용이 다르기에 우리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북한이탈주민이 시작부터 편법을 이용하게 만들면 안된다. 또한 그들 사이에 새로 태어난 자녀가 법률적인 부모 관계를 누릴 수 없게 하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도와야 할 기초생활수급 제도는 오히려 편법적으로 독립가구를 가장한 사실혼 관계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처럼 보인다. 다양한 양육지원정책 역시 지원 조건이 복잡하고 절차가 까다롭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이지 못한 가족 구조에 우리 사회의 이런 문제가 기여하고 있기에 전체적인 지원정책의 방향이 개인 중심에서 북한이탈주민이 포함된 가정 중심으로 전환되고 개선될 것이 요구된다.

나. 북한이탈주민 옴부즈맨 제도 도입

옴부즈맨은 스웨덴어로 대리자라는 뜻으로, 민정관 등으로 번역해서 사용되기도 한다. 정부의 정책 등이 효율적으로, 혹은 공정하게 집행되지 못하거나 제도의 허점이나 특수한 사정 등에 의해 구제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정부나 공공기관 등에서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연구의 결과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새로운 사회의 제도를 잘 몰라 남한 사회에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으나 기존의 제도가 북한이탈주민의 특수성을 고려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에 북한이탈주민의 특수성을 대변하고 이를 반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1) 통일부/하나원 북한이탈주민 옴부즈맨

북한이탈주민 부모들은 입국 초기 하나원에서 기초적응교육을 받는다. 이러한 기초적응교육은 다양한 요구를 가진 입소자를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의 양육관련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는 어렵다. 특히 입국 초기 임신 중이거나 영유아 자녀를 가진 북한이탈주민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시기의 교육이 대다수에게는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사전에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는 기관의 한계를 감안해 북한이탈주민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옴부즈맨 제도를 통해서 꼭 필요한 교육 및 정보제공의 노력이 요구된다.

2) 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 옴부즈맨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은 그들을 위한 전달체계인 남북하나재단을 통해 공식적인 정보를 얻는다. 그러나 그 운영방식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도 있었다. 물론 민간에서 운영되는 온라인 사이트나 사회관계망을 대체할 수도 없고 대체할 필요도 없으나 남북하나재단이나 하나센터가 영유아자녀를 갖은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밀착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는 점은 개선이 필요한 점이다. 특별히 몇몇 북한이탈주민 부모들은 남북하나재단의 직원들이 북한이탈주민을 잘 이해하지 못하다고 호소한 바가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하나재단에 북한이탈주민 출신의 옴부즈맨을 둬으로써 하나재단/하나센터의 사업과 운영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보다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3) 지자체 북한이탈주민 옴부즈맨(북한이탈주민 보육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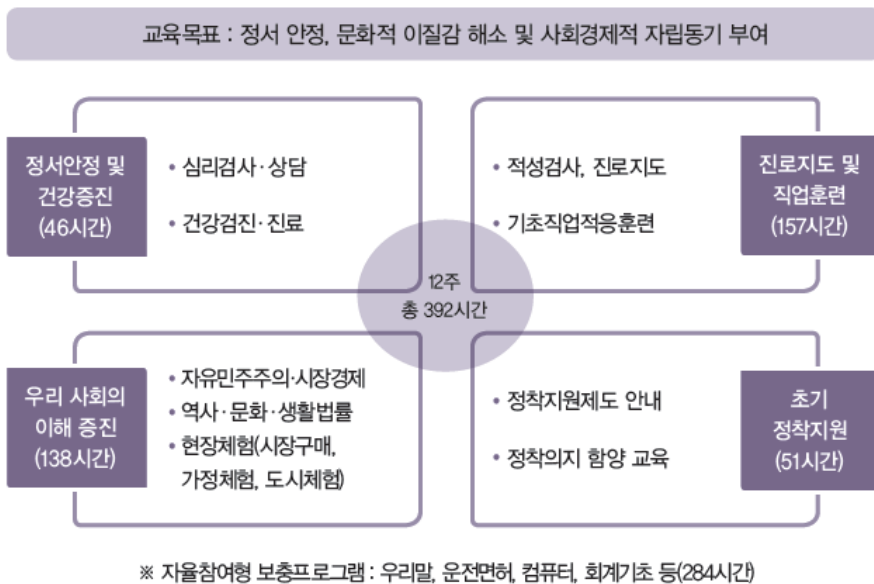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북한 출신의 직원이 없다. 또한 특별한 지역이 아니거나 고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직원을 일부러 채용해야 할 필요성도 높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북한이탈주민 직원이 지자체에 근무할 경우 이를 거점으로 그 지역의 북한이탈주민 부모들이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런 점을 통해 각 지자체는, 특히 북한이탈주민이 다수 거주하는 지자체에서는 특별히 북한이탈주민 보육반장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보육반장은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부산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관내의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육 기관뿐만 아니라 병원, 복지관, 상담소, 도서관 등 영유아 부모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과 서비스를 잘 연계하고 관리하여 부모의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서울특별시, 2016). 북한이탈주민이 이와 같은 보육반장을 맡게 되면, 해당 지역의 육아관련 정보를 잘 이해하게 되고, 또 북한이탈주민 부모의 특수한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다.

다.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양육/지원매뉴얼 제작

1) 입국초기 양육매뉴얼

북한이탈주민 부모들은 입국초기 하나원을 통하여 부모교육을 제공받는다.



출처: 통일부 (2015a).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정착지원 매뉴얼, 20.

[그림 V-2-1] 현재 하나원 교육과정의 구성

그러나 이는 하나원 입소 시점에 자녀를 가진 부모의 경우에 해당한 것이라 실제 대다수의 북한이탈주민의 임신, 육아, 출산 등과 관련한 교육은 하나원에서 거의 제공받지 못하고, 또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당시에는 그 필요

성을 크게 공감하기 어렵다. 그러나 본 연구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 부모들은 책자 등이라도 제공받은 적이 있다면,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한 경우가 많았다. 입국초기의 교육내용에 자녀 양육과 관련한 내용을 많이 포함하기는 어렵겠으나 남한의 생활과 문화를 이해하는 내용에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매뉴얼이 제공되면 좋을 것이다. 특히 많은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미리 계획하거나 예견하지 못한 상황에서 아이를 임신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매뉴얼의 내용은 보다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으로 예비부모교육 과정이 제시되어야 한다. 일부 연구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에서 학력 수준이 낮았기에 좋은 직장을 얻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북한에서 좋은 대학을 나온 경우에도 이를 남한에서 좋은 직장을 얻는 데는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재 하나원에서 제공되는 교육이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교육에 그치고, 지역 하나센터에서 제공되는 교육 역시 지속가능한 형태가 아니다. 또한 직업교육을 유도해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다고 하지만, 제공되는 직업교육은 대부분 노동력 중심의 저임금 직업이며 특히 젊은 북한이탈주민 여성이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한 후에도 지속할 수 있는 직업들이 아닌 경우가 많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은 자녀를 훈육하고 교육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기 이전에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예비부모교육을 일정 시간 이상 수강할 수 있도록 돕고, 남한에서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진지하고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의 제작을 제안한다.

2) 정착기 양육매뉴얼

일부 하나센터에서는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그 운영이 지역 센터마다 다르고 매번 교육 주체에 따라 그 내용의 구성도 달라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양육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도 상설된 프로그램이 아니어서 관련 욕구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부모가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므로 각 지역의 하나센터가 영유아 부모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계획하는 데 지침이 될만한 부모교육 매뉴얼을 제작하면 좋을 것이다. 특히 최근 유선방송을 통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언론에 자주 비취지는데 편향되거나 왜곡된 모습이 대부분이다. 언론 매체는 북한이탈주민에게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들에게 매체가 주는 영향력이 강력하기에 북한이탈주민은 이러한 언론매체가 전하는 내용이 과장되고 왜곡될 수 있음에 대한 판단이 부족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사회와 육아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적응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는 이러한 언론매체가 전하는 내용을 다른 각도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남한 사회를 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가진 계층과 집단과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도록 하나센터에서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아도, 관련 문의가 있을 때 참고용으로 제시할 수 있는 매뉴얼을 배포하여 북한이탈주민 부모가 손쉽게 이를 활용하도록 지원하기를 제안한다.

3) 육아종합지원센터/어린이집용 북한이탈주민 지원매뉴얼

연구진의 기대와 달리 북한이탈주민이 많이 사는 지역, 그리고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이용하는 어린이집에서 공식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에 관해 참고할 수 있는 매뉴얼이 없다. 어린이집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특수한 요구에 민감하지 못했고, 각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개인의 인성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부모를 접근하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 부모가 자신의 이해와 요구를 잘 들 어줄 수 있는 어린이집을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입소대기시스템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우선권이 있지만, 마음대로 어린이집을 고를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가까운 지역에 있는, 신청 당시에 자리가 나는 어린이집을 다녀야 한다. 그러므로 이들이 경험하는 어린이집의 서비스가 흡족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 어린이집이라는 곳에서 장시간 자녀를 돌봐주는 것에 대한 고마움은 있었지만,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이로 인한 오해, 신분노출과 그로 인한 차별에 대한 두려움 등 다양한 문제가 있었으나 이에 대한 어린이집과 교사들의 이해는 매우 낮았다. 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재원하는 어린이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모교육 매뉴얼, 교사를 위한 안내서 등이 제작되어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수요가 있는 어린이집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라.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활성화

통일부(2015a)의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정착지원 매뉴얼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를 구성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돕는다.

참고문헌

- 강재희(2008). 새터민 유아의 어린이집 생활. 교육과학연구, 39(1), 45 - 66.
- 강재희(2011). 북한이탈가정 유아의 남한 입국 전 탈북과정 경험. 幼兒教育研究, 31(4), 59 - 81.
- 강재희·박은혜(2011). 북한이탈유아 3명의 또래관계 적응과정. 교육과학연구, 42(2), 109 - 136.
- 강재희(2014). 입국 초기 북한이탈가정 유아가 다니는 평화유치원 교사의 경험. 한국생활과학회지, 23(2), 175 - 191.
- 강재희(2016). 면담자료, 2016년 6월 20일.
- 권정윤·조혜영·김미경(2013).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및 양육 특성이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幼兒教育學論集, 17(4), 275 - 296.
- 김윤영·이상원(2014). 신변보호경찰관의 탈북민 신변보호 개선방안. 인문사회과학연구, 44, 157 - 182.
- 김은설·윤재석·윤지연(2015). 농어촌 지역 영유아 교육·보육 실태 및 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김정인(2003).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의 프로그램 만족도 분석·평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아·조영아·김요완(2012). 북한이탈주민 가족유형 분석 및 지원방안 (Vol. 53).
- 남북하나재단(2015a). 2014 북한이탈주민사회조사. 2014 (Vol. 1).
- 남북하나재단(2015b). 2014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 2014 (Vol. 1).
- 동아일보(2016. 10. 6). [주성하 기자의 서울과 평양사이]“탈북해 한국 가면 정말 잘사나요?”(<http://news.donga.com/3/all/20161006/80642502/1#csi dxa738edad162c875b4d0d12d1f4b37d1>, 2016년 11월 20일 인출).
- 류지성(2016). 북한이탈주민 지원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세종: 한국법제연구원.
- 보건복지부(2015).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16.11.15.] [법률 제14275호, 2016.11.15., 일부개정]
- 서울특별시(2016). 보육반장 사업소개(<http://iseoul.seoul.go.kr/portal/boyukChief/boyukChiefInfo.do>, 2016년 11월 20일 인출).
- 이부미(2003). 탈북가정 유아의 남한사회 적응과정에 대한 현장연구. *幼兒教育研究*, 23(2), 115 - 146.
- 이윤진·서문희·김선화·박영자(2011). 통일에 대비한 북한의 영유아 양육에 관한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이윤진·이정림·김경미(2012). 북한이탈주민 영유아 자녀 양육지원 강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이정원·도남희·김세현·나지혜(2012). 출산수준 제고와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내실화 방안(Ⅱ)- 가정 내 영아 양육 실태와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 조혜영·김미경·이문옥(2013).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유아기 자녀 영어교육 실태와 어려움.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5), 201 - 228.
- 통일부(2015a).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정착지원 매뉴얼: 거주지보호담당관 업무, 지역협의회 운영, 종합관리시스템 이용. 통일부.
- 통일부(2015b). 북한이탈주민 정착도우미 활동 표준 매뉴얼.
- 통일부(2015c).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 통일부(2016a). 거주지보호제도(<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1447>, 2016년 10월 2일 인출).
- 통일부(2016b). 통계자료(<https://www.unikorea.go.kr/content.do?cmsid=3099>, 2016년 9월 9일 인출).
- 통일부(2016c). 통일부 정례 브리핑(http://unitv.unikorea.go.kr/web/unitv_vod.html, 2016년 10월 20일 인출).
- 하현선(2016)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사업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 홍누리·김희진(2013).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북한이주민가정 어머니와 일반 저소득 가정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사회적 지지.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0(4), 217 - 236.

Granovetter, M. S. (1973). The strength of weak 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360-1380.

Granovetter, M. (1983). The strength of weak ties: A network theory revisited. *Sociological theory*, 1(1), 201-233.

[인터넷 웹사이트]

통일부 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

Abstract

Child Care supporting System Building for North Korean Refugee Parents of Young Children

Wonsoon Park, Donghoon Kim, Seungjin Kim

This study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households, the economic characteristics of households, the characteristics of parents' occupation,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childcare, the need for childcare support, and the reasons of use of childcare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through a survey of 200 North Korean refugees with young children. The average number of household members living with North Korean refugees was 3.1. The majority of the respondents were recipients of basic living allowance. The monthly average household income was about 1.8 million won(about 1,600 USD), and monthly childcare cost for infants and young children was about 450 thousand won(about 400 USD). The majority of North Korean refugees perceived that caring their children is their own responsibility (55%). The refugee parents had a similar share of nurturing roles compared to their South Korean counterparts, but the rate of playing with their children was significantly lower. The biggest difficulty for North Korean refugees in raising children was urgent childcare because they didn't have relatives in South Korea. North Korean refugees needed information on government childcare support policies. Child raising inform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was mainly obtained through their friends and neighbors. North Korean refugees were most likely to use the Healthy Families Support Center among their child care support delivery systems and their satisfaction was high. North Korean refugees often failed to receive parent education. Other North Korean refugees were the first to place their children in urgent cases, followed by their friends or neighbors.

This study also collected data through in-depth interview with North

Korean refugee parents. The social network established by North Korean refugees was formed through strong-tie, a network among their friends and relatives. The social network of weak-tie was needed more actively in pursuit of social network formation because the information delivery to refugees was insufficient. Guidance on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childcare support policies was required in common spaces such as the resident center. The language of North Korean refugees acted as a marker to inform them that they are from North Korea. Many refugees feel uncomfortable with the marker. This was not just a matter of language itself, but the social prejudice against the refugees. Without this change of awareness, it would be difficult for refugees to communicate easily in South Korea. The influence of the media on North Korean refugees was strong. The majority of North Korean refugees were unmarried women. Without sufficient education and information about marriage and pregnancy, the refugees had difficulty of being parents.

Based on the result of this study, the authors suggest the followings:

First, the direc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support policy should be changed from individual center to family center.

Second, the introduction of the North Korean refugee ombudsman system is necessary.

Third, we propose to create manual for child support for North Korean defectors.

Fourth, North Korean refugee support regional council should be more activated.

부록

1. 면담 프로토콜(북한이탈주민)
2. 면담 프로토콜(어린이집/유치원 교사용)
3. 북한이탈주민 대상 설문지

부록 1. 연담 프로토콜(북한이탈주민)

주거형태

어디 사시죠?

처음에 오실 때 어떻게 그곳으로 정하게 되셨나요?

누구와 함께 사시나요?

가족 중에서 지금 함께 살지 않는 가족이 있나요? 있다면 어디 살고 있나요?

이곳에서 살면서 좋은/불편한 점은 무엇인가요?

남한 적응

남한에 적응하기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요?

남한에 적응하기 위해 가장 애쓰는 점은 무엇인가요?

말이나 사투리 같은 문제로 어려움이 있나요?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원에서의 교육은 (무엇이) 도움이 되었나요?

직장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정착지원 서비스 이용실태

정착도우미를 알고 있나요? 얼마나 자주 만나셨나요? 도움이 되었나요?

신변보호담당관(담당 경찰관)을 만난 적이 있나요? 얼마나 자주 만나셨나요?

도움이 되었나요?

직업훈련 안내를 받아본 경험이 있나요? 어떤 훈련? 취업보호담당관을 만난

적이 있나요? 얼마나 자주 만나셨나요? 도움이 되었나요?

남북하나재단/하나센터 이용한 적이 있나요?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와 이야기한 적이 있나요? 얼마나 자주 만나셨나요?

도움이 되었나요?

정착 지원 서비스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이용하는 서비스는?

개선되거나 더 있었으면 하는 지원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보호기간 5년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나요?

양육지원 서비스 이용실태

산모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해본 적이 있나요?

고운맘카드, 아이돌보미, 출산장려금, 드림/위스타트, 양육비 지원을 받은 경험
이 있나요?

정부에서 아이를 키우는 데 지원받는 것이 더 있나요? (어린이집 등 포함)

육아지원기관 이용

자녀가 유치원/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나요? 시설 유형(공/사립 등)
기관의 이용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육아지원기관 교사나 원장 등과 이야기는 자유롭게 하실 수 있나요?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별도의 지원이 있나요?

자녀가 몇 살 때부터 기관을 이용하기 시작했나요?

양육 실태

함께 살지 않는 어린 아이가 있나요? (친척 집, 기숙 시설 등)

아이는 충분히 잘 자나요? 몇시에 자서 몇 시에 일어나나요?

아이는 잘 노나요? 하루에 얼마나, 그리고 주로 무엇을 하며 노나요?

아이는 음식을 골고루 충분히 먹나요? 주로 어떤 음식을 먹나요?

아이가 특별히 아프거나 다친 곳은 없나요?

자녀와의 관계는 좋은가요? (애착)

자녀는 친구들과 잘 어울리나요? 주로 누구와 어울리나요?

자녀의 학습지원

아이들 교육에서 가장 어려운 점/중점을 두는 것이 무엇인가요?

자녀가 방과후 과정, 학원이나 학습지를 하나요?

다른 아이들에 비하여 자녀의 학습문제는 무엇인가요?

다른 부모님에 비하여 학습 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점은 무엇인가요?

양육 문화

현재 자녀를 주로 돌보는 분은 누구인가요?

자녀 양육을 돕는 분이 있나요?

아이를 키우며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아이를 키우며 가장 중점을 두는 점은 무엇인가요?

남북한의 아이를 키우는 문화에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떤 차이가 있나요?

본인은 남북한 중 어떤 문화가 더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남편은 자녀 양육을 많이 도와주나요? 무엇을 도와주나요?

남편에게 도움을 받고 싶은 양육 지원은 무엇인가요?

가족 정보

한국에 살고 있는 가족이나 친척이 있나요?

자녀 양육에 가족의 도움을 받고 있나요?

결혼 정보

배우자의 고향은 어디인가요?

배우자께서는 언제 한국에 들어오셨나요?

배우자의 가족 및 친지가 한국에 살고 있나요?

부록 2. 면담 프로토콜(어린이집/유치원 교사용)

북한이탈주민 지원의 실제

현재 기관을 이용하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별도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입학시 우선 순위 배정등 혜택 등 포함)

북한이탈주민의 요구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부모님들과 달리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북한이탈주민들이 자녀 양육으로 어려움을 겪는 점은 무엇이 있나요?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요구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이 남한 아이들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을까요?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이 특별히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이 특별히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무엇인가요?

양육 실태

담당하고 계신 북한이탈주민 자녀 중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어린 아이가 있나요? (친척 집, 기숙 시설 등)
북한이탈주민들의 자녀 양육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북한이탈주민들의 자녀 양육에 있어서 이해가 잘 안되거나 남한 사람들과 다른 특이한 점이 있습니까?
북한이탈주민들이 겪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지원 체제의 적절성

현재의 기관에서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현재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체제에 개선이 필요하다면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인가요?
교사로 일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사례는 무엇인가요?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교사로 일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양육지원 서비스 이용실태

북한이탈주민들이 자녀 양육에 대해 정부의 지원에 대해 잘 이용한다고 보십니까?

가장 잘 (못) 이용하는 서비스는 무엇이 있습니까?

북한이탈주민들이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북한이탈주민 부모님들이 기관을 이용하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나요?

부록 3. 북한이탈주민 대상 설문지

응답내용은 통계법에 의해 통계자료 작성의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북한이탈주민 자녀양육지원시스템 구축’ 의견 조사

조사원		-	조사표		

안녕하십니까?

국가 정책연구기관으로 체계적인 육아정책의 수립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설립된 육아정책연구소는 영유아 자녀를 둔 북한이탈주민 부모님을 위한 육아지원정책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다음과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자료로만 활용되며 비밀이 보장되오니 성실하고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사는 약 30분 이내로 소요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어 북한이탈주민 부모님을 위한 육아지원 정책의 개선을 위한 소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연구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 9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연락처: 육아정책연구소 김승진 연구원 (02-398-7762, ksj3963@kicce.re.kr)

박원순 부연구위원(02-398-7741, wonsoonpark@kicce.re.kr)

(사)새롭고하나된조국을위한모임 문현예 간사(02-747-2944, hyeonye@nate.com)

문Ⅲ-2. 귀댁에서 부부간 자녀 양육을 어떻게 분담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참여비율을 답해주시요.

아버지 참여비율	20% 미만	20~40% 미만	40~60% 미만	60~80% 미만	80% 이상	비해당 (한부모)
밥 먹이기						
옷 입히기						
놀아주기						
아플 때 돌보기(병원 데려가기)						
아내 외출 시 돌보기						
목욕시키기						
총 합						

문Ⅲ-3. 귀하의 배우자는 자녀 양육에 어느 정도 참여하십니까?

- 1) 개인적인 약속이나 활동 등을 포기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2) 시간이 되는 범위 내에서는 자발적으로 양육에 참여하는 편이다
- 3) 자발적으로는 하지 않으나 도움을 청하면 양육에 참여한다
- 4) 자녀 양육에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으나 실제로는 참여하지 못한다
- 5) 자녀 양육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생각이 전혀 없다
- 6) 비해당

문Ⅲ-4. 귀댁에서는 취침시간을 제외하고 평소 주중과 주말에 자녀를 돌보는 데 하루 평균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시는지 기입하여 주십시오.

	주중	주말
본 인	시간	시간
배 우 자	시간	시간

문Ⅲ-5. 귀하는 배우자의 자녀 양육 참여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못한 편이다	적절한 편이다	매우 적절하다	비해당

문Ⅲ-6. 귀하의 배우자가 자녀 양육에 참여를 잘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직장 일이 바쁘기에(늦은 퇴근, 주말 근무 등)
- 2) 평소에 육아에 관심이 없기에
- 3) 자녀 양육은 엄마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에
- 4) 관심은 있으나 아이 돌보기를 어려워하기에
- 5) 다른 가족들이 아이 돌보기를 다 하기 때문에

- 6) 기타(
7) 비해당

문Ⅲ-7. 귀하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가장 큰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 1) 양육비용 과다
2) 일할 때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없음
3) 장시간 노동 등으로 자녀를 돌볼 시간이 없음
4) 기타()

문Ⅲ-8. 부모가 자녀를 직접 돌볼 때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입니까?

- 1) 육아 정보, 육아 관련 교육 제공을 위한 방문 서비스
2) 신체·정서·인지 등 아이 발달관련 지식 교육
3) 장난감, 도서 등 대여 서비스
4) 단시간(2~3시간 정도) 이용 가능한 일시 돌봄 서비스
5) 양육수당과 같은 현금 지원
6) 기타()

문Ⅲ-9.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장 필요한 육아 정보는 무엇입니까? 필요한 순서대로 2가지를 선택해주시요. (1순위:_____ 2순위:_____)

- 1) 영유아 양육에 대한 일반 정보(훈육, 기본생활습관 지도 등)
2) 영유아 발달에 대한 정보
3) 영유아 건강에 대한 정보
4) 영유아 놀이나 학습에 대한 정보
5) 영유아 교육·보육기관에 대한 정보
6) 영유아용품 구매에 대한 정보(육아용품 및 서적)
7) 정부 양육지원정책에 대한 정보
8) 기타 ()

문Ⅲ-10. 다음의 기관의 (1) 인지여부, (2) 이용여부, (3) 만족도에 대해 응답해주시요.

항 목	(1) 인지여부			(2) 이용여부		(3) 만족도			
	잘 알고 있음	들어만 봤음	모름	이용함	이용하지 않음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1	2	3	1	2	1	2	3	4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은 임신·출산·육아 관련 종합정보, 입소대기·보육료 결제·시간제보육 신청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임신육아종합포털입니다 (www.childcare.go.kr).

**육아종합지원센터란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 어린이집 지원, 가정내 양육을 지원하는 기관(장난감/도서대여, 체험실, 부모교육/상담, 양육정보 제공 등)

***건강가정지원센터란 건강가정사업을 실시하는 전달체계로 가정문제 예방/상담/치료,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공동육아나눔터, 다양한 가족 통합지원, 가족문화활동을 제공함

문Ⅲ-11. 육아 관련 정보를 어디서 주로 제공받습니까?

- 1) 가족이나 친지
- 2) 친구·이웃·동료
- 3) 인터넷(카페, 블로그 등)
- 4) 교육·보육기관(유치원·어린이집)
- 5) 육아관련 전문가(의사, 상담사 등)
- 6) 공공기관(육아종합지원센터, 복지관, 동사무소, 보건소 등)
- 7) TV, 라디오 등 대중매체
- 8) 육아 관련 서적(잡지 포함)
- 9) 기타(

문Ⅲ-12. 부모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어디에서 제공받았습니까? 모두 골라 주시기 바랍니다.

- 1) 받은 적이 없다
- 2) 어린이집/유치원
- 3) 육아종합지원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
- 4) 대학, 문화센터 등 민간교육기관
- 5) 지역사회 기관(주민센터, 복지관 등)
- 6) 병원/의원·보건소
- 7) 산후조리원
- 8) 북한이탈주민 지원 기관
- 9) 온라인(
- 10) 기타(

문Ⅲ-13. 부모교육이 제공된다면 어떤 내용을 받고 싶습니까? 모두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 1) 영유아 발달 이해
- 2) 부모자녀 관계
- 3) 놀이 지도
- 4) 자녀의 정서/사회성 지원(문제행동 지도 등)
- 5) 훈육 방법
- 6) 바람직한 부모 역할
- 7) 건강, 영양, 안전 지도
- 8) 신생아 돌보는 방법(수유, 이유식 방법 등)
- 9) 자녀의 학습지도 방법
- 10) 초등학교 적응 준비
- 11) 기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연령의 자녀가 어린이집, 유치원, 대안학교 등의 보육·교육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실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IV. 기관 이용실태

문IV-1. 현재 미취학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대안학교 등 보육/교육 기관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해당 사항을 모두 골라주십시오.

- 1) 어린이집 2) 유치원 3) 대안학교 4) 기타()
 5) 아니오 (현재 보육/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자녀가 전혀 없을 경우는) ☞ V. 기관 미이용

문IV-2. 자녀가 언제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대안학교 등 보육·교육기관에 가기 시작했습니까?

	자녀 나이		
자녀1(가장 어린 아이)	생후	년	개월 부터
자녀2	생후	년	개월 부터
자녀3	생후	년	개월 부터

문IV-3. 아이가 보육·교육기관 이용을 시작하기에 적당한 시기는 언제부터라고 생각하십니까?

생후 ()년 ()개월부터

문IV-4. 자녀를 기관에 보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일하러 가느라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2) 집에서 잘 키울 자신이 없어서
 3) 기관 이용비용을 지원받게 되어서
 4) 남한의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하려고
 5) 기타 ()

문IV-5. 귀하가 자녀의 보육·교육 기관을 선택하는데 다음의 요소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혀 중요 하지 않음	중요하 지 않음	보통임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지리적 접근성: 집과의 거리					
2) 교사의 질(전문성)					
3) 국공립기관 여부					
4) 시설·설비/실내환경					
5) 이용 비용					
6) 이용 시간					
7) 안전관리					
8) 부모와의 소통 (상담등)					
9) 급식·간식의 질					
10) 아이에 대한 관심과 이해					

문IV-6. 자녀가 평소 보육·교육 기관을 이용하는 시간은 평일 기준으로 몇 시간 정도인가요?

하루 평균 ()시간 정도

등원 시간: ()시 ()분

하원 시간: ()시 ()분

문IV-7. 최근 3개월을 기준으로 답하여 주십시오.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낮시간에 집에서 주로 누가 이 아이를 돌보니까?

- 1) 엄마 2) 아빠 3) 친조부모 4) 외조부모
5) 친인척 6) 이웃 등 비혈연 도우미 7) 낮 동안은 방과후 학교 등에서 지냄
8) 기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연령의 자녀를 어린이집, 유치원, 대안학교 등의 보육·교육 기관에 보내지 않는 부모님을 대상으로 한 질문입니다. 보육·교육 기관 미이용 자녀가 없으면  VI. 주관식 문항을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V. 기관 미이용 상태

문V-1. 자녀를 어린이집, 유치원, 대안학교 등 보육·교육기관에는 보내지 않고 집에서 돌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 두 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1순위:_____ 2순위:_____)

- 1) 자녀가 너무 어려 기관에 적응하기 어려워서
2) 양육수당을 받기 위하여
3) 기관을 이용하는 시간이 맞지 않아서
4) 아이는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 가정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5) 가까운 곳에 보낼만한 기관이 없어서
6) 가정에서 돌보는 것이 아이 발달에 좋을 것 같아서
7) 아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집에 있어서
8) 기타()

문V-2. 기관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만 자녀를 키울 때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1순위:_____ 2순위:_____)

- 1) 육아를 위해 필요한 정보 제공이나 아이들 발달에 관한 부모 교육
2) 가사나 육아를 돕기 위한 방문 도우미 지원
3) 급한 일이 있을 때 잠시 맡길 수 있는 일시보육서비스 기관 확대
4) 방문하여 아이를 양육하는 돌봄 서비스 지원시간 확대
5) 놀이감, 책을 빌려주는 기관 및 방문 서비스 확대
6) 지역 내 또래 아동이 있는 가정과 교류를 지원하는 서비스 실시
7) 양육비에 대한 현금지원 확대
8) 분유나 기저귀 같은 육아물품 지원
9) 기타()

문V-3. 귀하가 평소 자녀 양육을 위해 활용하는 지역사회 공공 자원은 무엇입니까?

- 1) 육아종합지원센터
- 2) 건강가정지원센터
- 3) 시/군/구청, 주민센터
- 4) 지역 복지관
- 5) 도서관
- 6) 기타(

문V-4. 자녀를 양육하면서 긴급하게 대리양육이 필요한 경우, 주로 도움을 받는 사람(기관)은 누구입니까? 하나만 골라 주십시오.

- 1) 아이의 조부모/외조부모
- 2) 아이의 이모, 고모, 삼촌 등 친지
- 3) 친구·이웃·동료
- 4) 아이돌봄 서비스(정부운영)
- 5) 교육·보육기관(유치원,어린이집)
- 6) 민간 돌봄 서비스(베이비시터, 놀이선생님 등)
- 7)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일시보육기관(시간제 보육 서비스)
- 8) 기타 (
- 9) 없음

문V-5.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어려운 순서대로 두 가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위:_____ 2순위:_____)

- 1) 급할 때 돌봐줄 사람 찾기가 어렵다
- 2)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치원,어린이집이 부족하다
- 3) 기저귀, 분유 등 양육비용이 부담된다
- 4) 교육·보육(유치원,어린이집) 비용이 부담된다
- 5) 학원, 학습지 등 사교육비가 부담된다
- 6) 양육방법을 잘 모르겠다
- 7) 개인 시간이 부족하다(내 시간이 없다)
- 8) 수면시간 부족으로 체력적으로 힘들다
- 9) 기타(
- 10) 없음

VI. 주관식 문항

문VI-1. 귀하는 남한과 북한의 아이를 키우는 문화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VI-2. 하나원에서 자녀 양육과 관련한 교육이 개설된다면 어떤 교육이 필요할까요?

문VI-3. 자녀가 어린이집이, 유치원, 대안학교 등에 다니고 있다면 원장, 담임 선생님께 바라는 바는 무엇인가요?

문VI-4. 현재 자녀양육과 관련된 부모교육이 실시된다면 어떤 내용을 교육받고 싶은가요?

연구보고 2016-14

북한이탈주민 자녀양육지원시스템 구축

발행일 2016년 11월

발행인 우남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3층, 4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http://www.kicce.re.kr>

인쇄처 경성문화사 02) 2090-1179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85941-85-1 93330